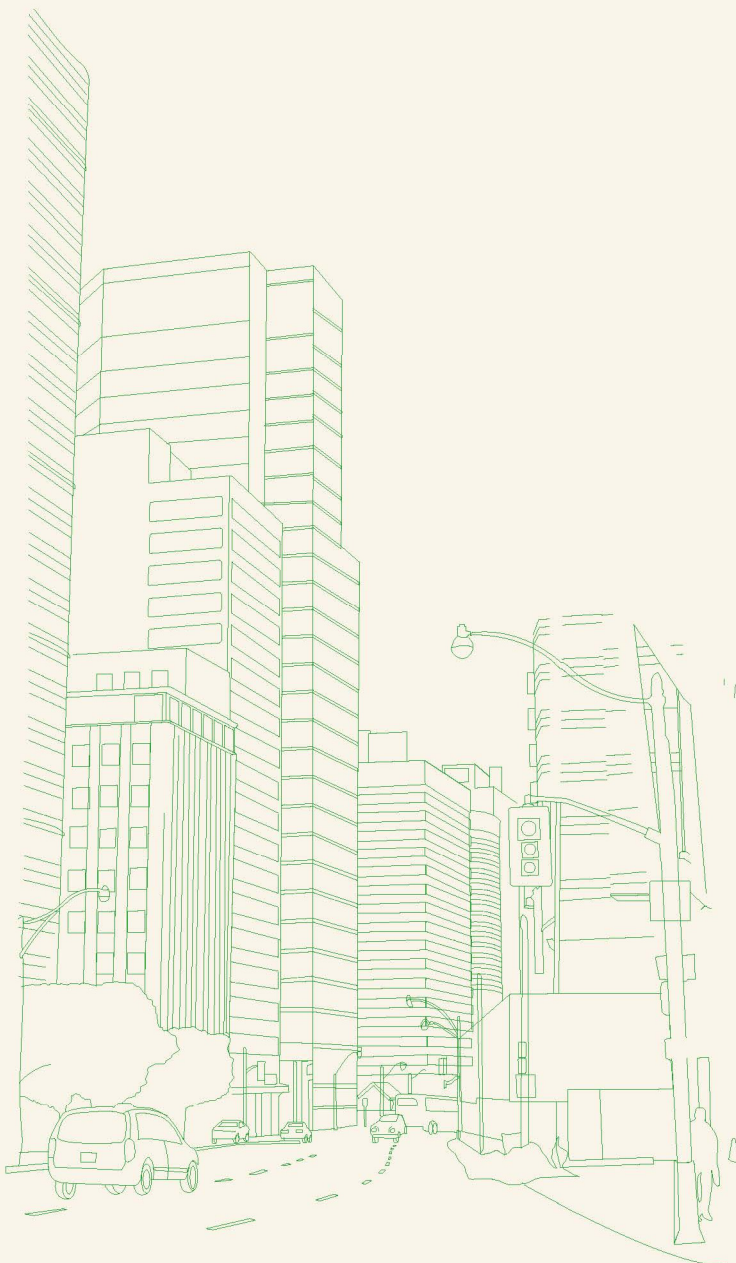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Does
city living
make us
happy?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city

2018년 12월 6일(목)

10:00~17:00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December 6 (Thurs), 2018
The Seoul Institute
Conference Room(2F)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국제 컨퍼런스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0:00 ~ 17:00
장	소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주	제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	관	서울연구원

DATE	December 6, 2018 (Thursday)
VENUE	The Seoul Institute Conference Room (2F)
TITLE	Does city living make us happ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city
	Under the Auspic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Institute
	Organized by The Seoul Institute

프로그램_2018년 12월 6일

시 간	행사구분	프로그램
09:30 ~ 10:00	등 록	현장등록
10:00 ~ 10:20	개 회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김경혜 서울연구원 부원장) • 축 사(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대표)
10:20 ~ 12:00	세션1 글로벌 세션	<p>세션 1: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장덕진(서울대학교 교수) • 발제: 동아시아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 서은국(연세대학교 교수) 행복한 도시로 향하는 길 / 호 콩 충(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문화가치와 공동체의 행복,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 낸시 텍스베리(코임브라 대학교 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훈(전 제주시장/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변미리(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12:00 ~ 13:10	점심식사	
13:10 ~ 14:40	세션2 세대 세션	<p>세션 2: 세대별 행복과 삶의 질 _ 해외도시와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이지훈(전 제주시장/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 이희길(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 서기관)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와 시사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노인가구의 시간 사용과 생활만족도 / 김주현(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교준(고려대학교 교수) -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이병호(아주대학교 교수)
14:40 ~ 15:00	휴식	
15:00 ~ 17:00	세션3 특별세션	<p>세션 3: 도시사회정책조사(서울서베이)를 통해 본 사회의 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이재열(서울대학교 교수) • 발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삶의 질 / 마사유키 카나이(센슈대학교 교수) 자카르타의 사회적 행복 탐색 / 파울라스 위루토모(인도네시아 대학교 교수) 관계적, 감정적 경험들이 사회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임동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 신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균(서울시 정보기획관) - 이재원(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 호 콩 충(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 낸시 텍스베리(코임브라 대학교 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Program_Thursday, December 6

Time	Contents
09:30 - 10:00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10:00 -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Address(Kyung-Hye Kim, Vice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 Congratulatory Address(Jin-do Park, Standing Representative of GNH Forum)
Session I Global Session 10:20 - 12:00	<p>Social Quality and Happi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Dukjin Chang(Seoul National University) • Pres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urprisingly” Unhappy East Asians: Going beyond objective QOL numbers / Eunkook Seo(Yonsei University) The Lanes to Happiness in the City / Ho Kong Chong(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e Place of Culture i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 Nancy Duxbury(Centre for Social Studies at University of Coimbra) • Panelists: Ji-hoon Lee(Former Mayor of Jeju City/GNH Forum) / U-seok Seo(University of Seoul) / Miree Byun(The Seoul Institute)
12:00 - 13:10	Lunch
Session II Generation Session 13:10 - 14:40	<p>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Ji-hoon Lee (Former Mayor of Jeju City/GNH Forum) • Pres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ty of Life Indice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 Hee-gil Lee(Statistics Korea)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Young Adult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 Ki-hun Kim(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amily Tim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 Ju-hyun Kim(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Panelists: Jun Koo(Korea University) / Seulki Choi(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Byung-ho Lee(Ajou University)
14:40 - 15:00	Break
Session 3 Special Session 15:00 - 17:00	<p>Social Quality through the Lens of Social Policy Surveys (Seoul Surv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Jaeyeol Y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es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ty of Life in East and Southeast Asia: Findings of the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 Masayuki Kanai(Senshu University) Searching for Societal Well-being in Jakarta City / Paulus Wirutomo(University of Indonesia) Relational-Emotional Experiences and Social Psychological Consequences / Dong-kyun Im(University of Seoul) The Happiness of Seoul Citizens / Inchol Shin(The Seoul Institute) • Panelists: Tae-kyoon Kim(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Jae-won Lee(Statistics Korea) / Ho Kong Chong(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Nancy Duxbury(Centre for Social Studies at University of Coimbra)

목 차

세션1: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 1

■ 동아시아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3
서은국(연세대학교 교수)	
■ 행복한 도시로 향하는 길	11
호 공 총(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 문화가치와 공동체의 행복,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12
넌시 텍스베리(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교 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토론문	31

세션2: 세대별 행복과 삶의 질_해외 도시와의 비교 • 40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43
이희길(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 서기관)	
■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와 시사점	67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 노인가구의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	85
김주현(충남대학교 교수) 99	
■ 토론문	110

세션3: 도시사회정책조사(서울서베이)를 통해 본 사회의 질 • 121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삶의 질	123
마사유키 카나이(센슈대학교 교수)	
■ 자카르타의 사회적 행복 탐색	137
파울라스 위루토모(인도네시아 대학교 교수)	
■ 관계적, 감정적 경험들이 사회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59
임동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160
신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문	183

CONTENTS

Session I: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 1

- The “Surprisingly” Unhappy East Asians: Going beyond objective QOL numbers 3
Eunkook Seo(Yonsei University)
- The Lanes to Happiness in the City 11
Kong Chong Ho(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The Place of Culture i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12
Nancy Duxbury(Senior Researcher, Centre for Social Studies, University of Coimbra, Portugal)
- 토론문 31

Session II :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tion • 40

- Quality of Life Indice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43
Hee-gil Lee(Senior Deputy Director, Policy Indicator Research Division, Statistics Korea)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Young Adult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67
Ki-hun Kim(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Family Tim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85
Ju-Hyun Kim(Chungnam University)
- 토론문 110

Session III : Social Quality through the Lens of Social Policy Surveys (Seoul Survey) • 121

- Quality of life in East and Southeast Asia: Findings of the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123
Masayuki Kanai(Senshu University)
- Searching for Societal Well-being in Jakarta 137
Paulus Wirutomo(University of Indonesia)
- Relational-Emotional Experiences and Social Psychological Consequences 159
Dong-kyun Im(University of Seoul)
- The Happiness of Seoul Citizens 160
Inchol Shin(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 토론문 183

개회사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부원장 김경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도시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엄청난 부의 축적과 기술 발전에서 진보를 이룩해 왔지만 그 성장의 결과로서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2012년 유엔의 행복보고서는 국가와 도시가 왜 사람들의 행복에 공공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지난 반세기 이상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성장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과거의 시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효율성과 경쟁의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에는 어떤 사회로 전환해야 사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저성장 시기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영역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성찰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도시가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는 행복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오늘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도시의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사회의 질에 관한 문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하거나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도시정책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멀리 유럽에서, 가까이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온 전문가들이 서울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의 행복과 삶의 질을 논의하고 행복한 도시와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한 사회, 행복한 도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경 혜
서울연구원 부원장

환영사

성장을 넘어 국민총행복 사회로 나아가자

오늘 서울연구원이 주최하는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국제컨퍼런스’라는 뜻 깊은 자리에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지난 4월11일 각계인사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창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같은 몇 사람이 모여 작은 대화 모임을 만들려고 했으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여 커다란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 사단법인 등록도 마치어 명실 공히 시민사회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대표/지역재단 이사장)

우리의 문제의식은 매우 소박하였습니다. 한 때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젊은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자조할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삶의 가치가 있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해왔다.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좋다는 식의 경제성장 지상주의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국민총행복은 첫째, 행복을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이해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문화, 건강,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총행복은 행복을 집단 혹은 공유(collective)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풍량이 이는 빈곤의 바다 위에서 부유한 섬사람들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사회가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면서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관계가 붕괴된 것이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민총행복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모든 부문

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지역은 일터, 삶터, 쉼터로서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가 형성되고, 행복과 불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월17일 주민 행복을 최우선시하며,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40개의 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으로부터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우리의 주장은 아직은 작은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성장 증독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끈기 있게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연구원의 국제 컨퍼런스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행복 국제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세션1: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Session I :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동아시아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The “Surprisingly” Unhappy East Asians: Going beyond objective QOL numbers

서 은 국(연세대학교 교수)
Eunkook Seo(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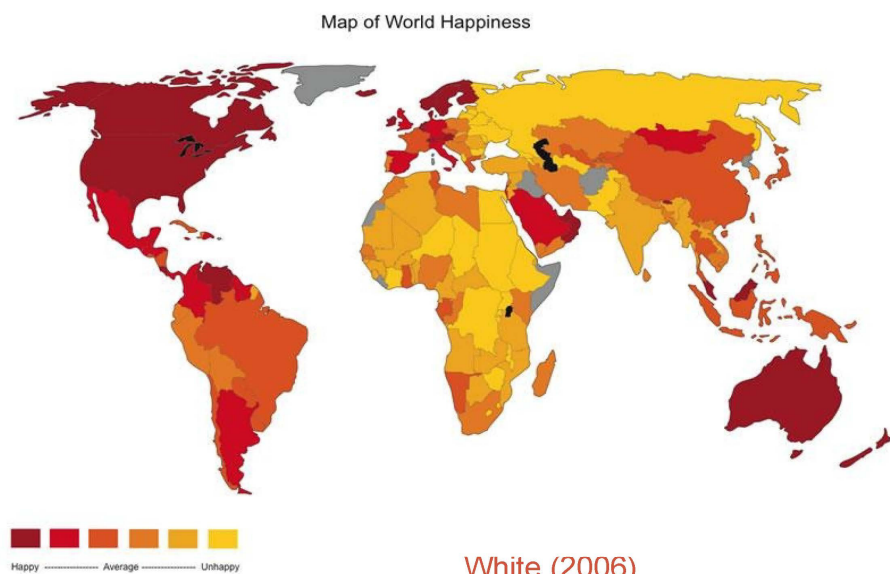
Abstract

Large scale international surveys (e.g., Gallup; OECD) annually report a wide international variation in happiness. Although establishing good life conditions is imperative, various intangible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determine the final happiness picture of nations. For instance, compared to their economic stature, East Asians report “surprisingly” low level of happiness; whereas, Latin America’s happiness is unexpectedly high. One crucial difference maker between the two regions might b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experience, which is known to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that fosters human happiness. Various negative repercussions of low social capital on societal happiness are discussed.

THE “SURPRISINGLY” UNHAPPY EAST ASIANS: GOING BEYOND OBJECTIVE QOL NUMBE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ll-being & QOL
December, 2018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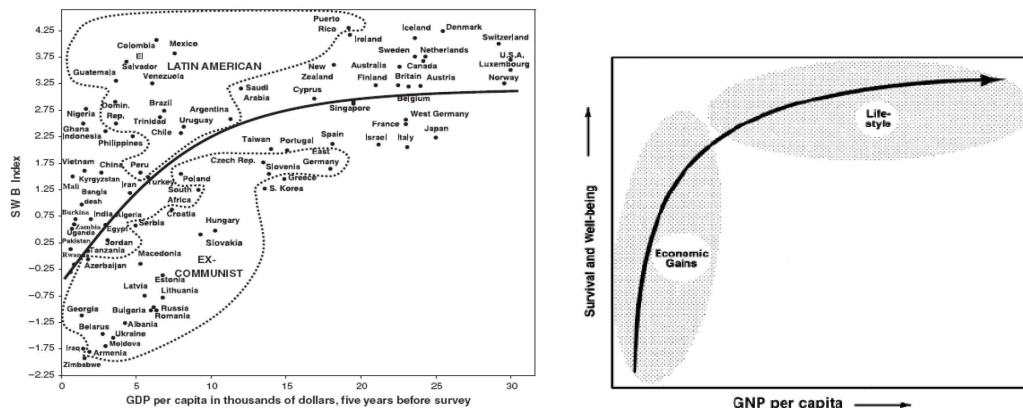
Happiness across the globe



Economy matters, but only to a point

(economy becomes even less important when

- African nations are excluded
- raw, rather than log transformed, data are examined)



(Inglehart et al., 2008)

World Rankings (Economy vs. Happiness)

$$\text{GDP rank} - \text{HAPP rank} = \text{Diff}$$

• Surprisingly Unhappy

• Hong Kong	12	72	-60
• China	92	134	-42
• Korea	32	67	-35
• Japan	18	36	-18
• Singapore	22	38	-16

• Surprisingly Happy

• Venezuela	90	16	+74
• Costa Rica	62	24	+38
• Brazil	66	31	+35
• Mexico	62	35	+27
• Colombia	79	52	+24

Positive Affect: 8 of Top 10 are Latin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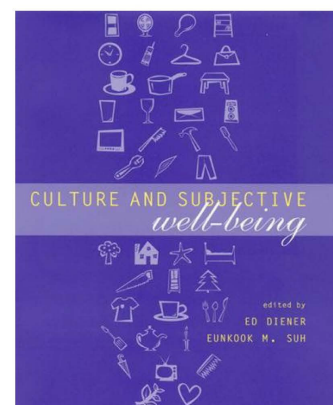
Table 6.1: Top 15 Countries in the World in Positive Affect. Positive Affect. Mean Values by Country. 2006–2016

Rank	Country	Number of observations	Positive affect
1	Paraguay	10995	0.842
2	Panama	11025	0.833
3	Costa Rica	11006	0.829
4	Venezuela	10994	0.824
5	El Salvador	11008	0.818
6	Guatemala	11045	0.812
7	Colombia	10999	0.810
8	Ecuador	11135	0.809
9	Canada	11325	0.804
10	Philippines	12198	0.800
11	Iceland	3131	0.799
12	Denmark	10777	0.798
13	Honduras	10991	0.797
14	Norway	6010	0.797
15	Nicaragua	11015	0.796
	All countries in the world		0.697

- Latin AM: Not the most richest, strongest nations
 - What should the “richer” East Asian nations take from this pattern?
 - What is the key factor that contrasts the two regions?

National differences: Beyond Money

- Multiple Cultural, Psychological Factors Involved
 - Largely neglected in latest large scale international surveys (Gallup, OECD etc.)
- For instance, cultural stereotypes of a “happy” person
 - Latin America versus 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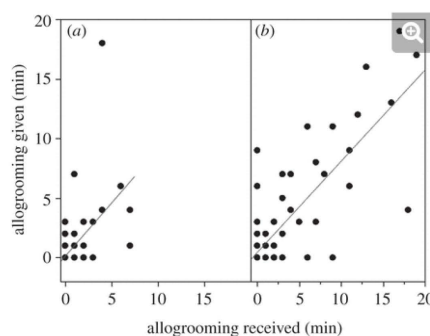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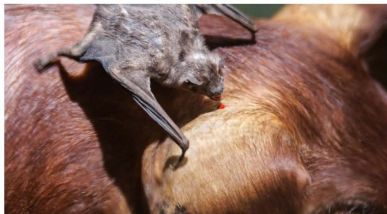
Clue: World Happiness Report, 2018

Independent Variable	Cantril Ladder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Log GDP per capita	0.311 (0.064)***	-.003 (0.009)	0.011 (0.009)
Social support	2.447 (0.39)***	0.26 (0.049)***	-.289 (0.051)***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0.032 (0.009)***	0.0002 (0.001)	0.001 (0.001)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1.189 (0.302)***	0.343 (0.038)***	-.071 (0.042)*
Generosity	0.644 (0.274)**	0.145 (0.03)***	0.001 (0.028)
Perceptions of corruption	-.542 (0.284)*	0.03 (0.027)	0.098 (0.025)***

8

Happiness = fulfilment / desire

- What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human need?
 - The key question of latest psychology research, and the converging conclusion is: "Social Belongingness"
 - Through evolutionary history,
 - social isolation = death
 - Vampire bats



Humans, same fate



The New York Times

HUMAN TOUCH

How Social Isolation Is Killing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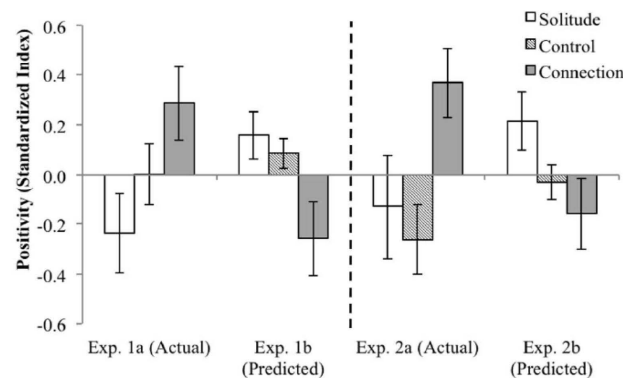
- Holt-Lunstad et al. (2015) meta-review
 - Increased likelihood of death by...
 - Loneliness—26%
 - Social isolation—29%
 - Living alone—32%



10

Quality/quantity of Social experience

- Single most important cause of happiness (Diener & Seligman, 2002;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 Extraversion is one of the strongest predictors of happiness
 - Even causal social interactions matter (Epley & Schroeder, 2014)
 - Contrary to what people believe, even chatting with strangers improve mood



2018 World Happiness Report

Chapter 6

Happiness in Latin America
Has Social Foundations

Figure 6.19: Visit Closest Friend Daily or at Least Several Times a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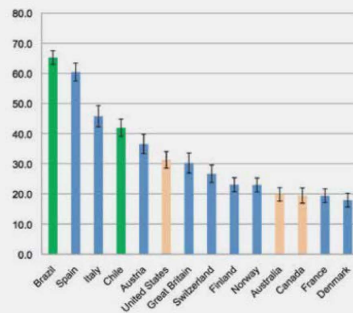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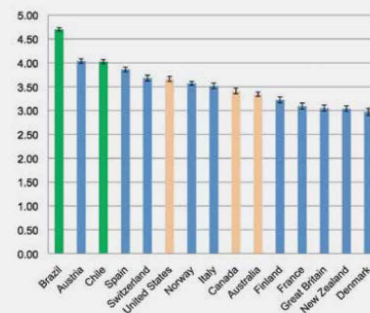


Figure 6.20: People Better Off Should Help Friends



- Social experience: The crucial happiness component
 - L.A.—strong; economically developed East Asian countries—weak

Korea: Low social capital

Diener, Suh et al. (2010)

	KOR	US	DEN
% "feel respected"	56	88	94
% "can count on others"	78	96	97

- Others, viewed as
 - Competitors than companions (zero-sum mentality)
 - Target of social comparison
 - Unpredictable, unreliable
 - Constant "evaluator" of self (deprives personal sense of freedom)

Negative repercussions

- Strong materialistic values
 - East Asia: One of the most materialistic regions in the world
 - Money partly buffers the uncertainties and pain of social experience
 - However, a vicious cycle arises (think of money→ others become less important→ social isolation)
- Less generosity & altruism
- High corruption
- Narrows radius of social interactions
- *All these factors are predictors of lower happiness

Looking under the shadow

- Need to go beyond “hard” data that are focused on quantitative & objective life conditions (transportation facilities, longevity, pollution, education level etc.).
 - This is NOT why East Asia reports low happiness
- More attention to basic human psychological needs
 - Especially critical are the social needs
 - Feeling respected; strong social network; Interpersonal trust; Sense of autonomy, respecting diversity
 - Important role of social scientists (social campaign)
 - E.g., worst policy—making citizens play “police”—being rewarded for reporting each others’ misconduct

행복한 도시로 향하는 길

The Lanes to Happiness in the City

호 콩 총(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Kong Chong Ho(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bstract

Our cities are shaped by transport networks which leads us into, out of and around the city. These different types of transport routes can also be used as metaphors to describe the sources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I like to draw attention to the lanes of happiness, which focuses on neighbourhood or village level sources of happiness. Policy makers should not dismiss such sources. Small and narrow as lanes may be, they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numerous and in their diversity, they act as grass-root produced and sustained ways of building joy and satisfaction through local participation. Can we find ways to partner such efforts? That the conference is on happiness and the city should not blind us to other emotions. Unhappiness and anger are just as important emotions because these are the very triggers to collective action which ultimately help make for happier cities.

Some of the sources of happiness derive from changes at the national rather than city levels. In my paper I primarily want to discuss a social (the problem of aging) as an expressway type issue of happiness/unhappiness as these factors impact our cities. If these forces are external to the city, can we do something at the city level to reduce the negative social effects of aging at the level of the city? This framing of the question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important because it opens our eyes to the ways in which our cities may be solutions to national issues. And through inter-city learning, other cities may become as effective.

문화가치와 공동체의 행복,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The Place of Culture i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낸시 덕스베리(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교 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Nancy Duxbury(Senior Researcher, Centre for Social Studies, University of Coimbra, Portugal)

Abstract

In the context of growing concern with societal happiness and well-being, calls to 'rehumanize' the development of cities, and heightene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 cultural dimension in city planning and developmen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lace of culture in the discourses and research concerning societal happiness,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In this work, I focus on culture as variously defined in terms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pportunities for expression,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nd so forth, rather than in terms of macro-cultural differences between societies. The reviews conducted in this paper – of the *World Happiness Reports* as well as some work o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 illustrate that while culture is sometimes present, it still largely marginal in these efforts. In this context, research and writing relating culture with community well-being or quality of life generally takes two main paths: One focuses on contributions of culture to increasing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or quality of life; the second path aims to incorporate a cultural dimension within the broader construct itself. While these domains appear to be concerned with similar issues that of societal happiness, there is room for closer dialogue. For example, a new view of sustainability that explicitly includes culture is emerging through a wide array of initiatives, but it does not appear to connect with the work being developed around urban happiness.

Since the turn of the millennium (at least), there has been a general realization in many societies that ever-increasing economic wealth does not necessarily equate to individual or societal happiness. This has been coupled with concerns about accelerating urbanization processes and sprawl in which the size and scope of cities are challenging residents' feeling of self-empowerment and contentment in this environment, as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relate to the scale of organization and complexity of large cities. Calls for 'rehumanizing' the city and developing more 'people-friendly' cities have persisted for some time (see, e.g., Sachs-Jeantet, 1996; Duxbury et al., 2016; <http://people-friendly-cities.eu/>), and may be argued to underline the current rise of attention to quality of life and 'happy cities.'

In the study, *The Happiness of Cities*, human capital is shown to be the primary contributor to happiness in the city (Florida, Mellander, and Rentfrow, 2013). Human capital generally refers to human traits such as education, knowledge, and culture – and all may be the target of investments in a society (Mincer, 1958). Extending beyond a concern with individual happiness and well-being, we can observe growing attention to collective issues and policy actions. As Ballas (2013) notes, social justice issues can have a huge impact on overall levels of quality of life of a city, and “it can be argued that policies aimed at enhancing social cohesion at the city level may have a more effective impact on the happiness and well-being of individuals compared to actions or initiatives focused on individual behavior.”¹⁾

Parallel to (and intersecting with) these discussions have been numerous efforts – from local to international scale – to advanc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 cultural dimension in city planning/development and to operationalize this in city policy frameworks and programmes. This has related, for instance, to enhancing a sense of place and residents' connection with their city, to the role of cultural activity in the development of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to culture-based economic development opportunities based in local specificities. From a planning perspective, it has included recommendations for cultural policies developed and governed participatively with citizens, to the development of a cultural lens on all public decisions, and to culturally sensitive urban redevelopment approaches, among other items.

In the early 2000s, part of my research involved monitoring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icators by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primarily in North America and

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4275113000504>

Australia. At the time, the inclusion of culture was in early phases, and more often than not, absent or represented by an inadequate “place holder.” One dimension of the work observed was a rising perceived importance of *including culture within a recognized or influential quality of life or well-being index, or a sustainability framework* such as the four-dimension model of sustainability – something that is seen as a broader, credible reference point. This framing also served as an important piece to support the inclusion of culture in broader community planning processes through building some conceptual frameworks on how culture should be included in community planning processes and thinking about planning through a cultural lens (see, e.g., Duxbury, 2005).

Since that time, research and writing relating culture with community well-being or quality of life generally takes two main paths. One focuses on contributions of culture (variously defined in terms of cultural heritage, opportunities for expression,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etc.) to increasing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or quality of life (a few examples are provided later in this paper). A second path aims to incorporate a cultural dimension within the broader construct itself. (The latter also advances through policy and planning experiments and practices.)

The first approach includes research that examines the impacts on individual well-being from participating in cultural and sporting events and activities (see, for example, the website for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A second pool of research and writing has a broader social context in mind. In this work, cultural meanings, expressions, and activities are noted as strategic elements in fostering connections to place and avenues through which individuals and collectives develop and express themselves within local communities. These development trajectories are coupled with potentially enabling greater citizen empowerment within cities, developing social networks and leadership skill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hrough cultural activity to more actively engage with ‘the city’ and its development (see, e.g., Libânio, 2018; Carvalho, 2010). Cultural activity is also discussed as an important dimension in developing social capital and connectedness across different groups and in nurturing social cohesion (e.g., Duxbury, 2002; UNESCO, 2013). There is an extensive literature critically examining various aspects of these lines in different contexts, and an array of policy and planning documents that present arguments and programmes to foster this ‘social’ side of cultural development in the city.

Overall, these streams of research, writing, and policy documents have served as an important counterpoint to more economically dominated discours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nd creative cities. They have been important shapers of contemporary cities and communities – strands of an interwoven rope on which attention to culture balances in our societies and in planning and policy fora.

With this a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place of culture within the new wave or paradigm of *happiness*, in reference to urban and local development, and aims to contextualize it with other research about the place of culture i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These considerations, of course, overlap and interrelate, linked by a common focus on the people of a city; their conditions and opportunities for healthy living, learning, and expression; and the engendering of a generalized feeling of contentment and belonging within a larger collective.

Culture in the *World Happiness Reports*

Launched in 2012, the *World Happiness Reports* can be viewed as the apex of efforts to explore, measure, and assess our global levels of happines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and thus was chose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index developed and documented in this reports examines factors of happiness and well-being at the country level, with analysis by global regions. Throughout the series, methodological issues about comparability across cultures (broadly defined) were explicitly discussed and researched, with reports from 2013 acknowledging cultural differences in regional analyses and interpretation, as well as a source of ‘measurement error’. Methodologically, some of cultural bias linked to nuances in the translation of ‘life satisfaction’ in different languages (mentioned in the 2016 report). However, my main interest in reviewing the narratives of these reports was to identify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terms culture, art, and creativity in the reports, and to examine the way in which they are contextualized.

A general review of the narrative content of the *World Happiness Reports* demonstrates an inconsistency and a wavering attention to the consideration of cultural manifestations and expression as an aspect of well-being and happiness. In large part, this observation is a function of the evolving focus of the reports, and the ‘essential’ arguments deemed necessary within dynamic societal and political contexts, which are explicitly noted and engaged in the reports. This analysis also provides an indication of how the place of

culture, as cultural expression/manifestations and a central resource in identity, empowerment, and meaningfulness is often marginalized or ‘invisiblized’ in international political discourse.

The launch of the report in 2012, according to its publishe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reflected “a new worldwide demand for more attention to happiness and absence of misery as criteria for government policy. It reviews the state of happiness in the world today and shows how the new science of happiness explains personal and national variations in happiness.”²⁾ The Global National Happiness(GNH) index consisted of 33 GNH indicators organized into nine domains, one which was “Cultural Diversity and Resilience” (presented as among the “more innovative” domains), containing four indicators:

- Native Language
- Cultural Participation
- Artisan Skills
- Conduct

Heavily influenced (and explicitly referencing) Bhutan’s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the report notes that:

Culture is not only viewed as a resource for establishing identity but also for cushioning Bhutan from some of the negative impacts of modernization and thereby enriching Bhutan spiritually. The diversity of the culture is manifested in forms of language, traditional arts and crafts, festivals, events, ceremonies, drama, music, dress and etiquette and more importantly the spiritual values that people share. To assess the strength of various aspects of culture, four indicators have been considered: language, artisan skills, cultural participation and *Driglam Namzha* (the Way of Harmony). (p. 118)

The social foundations of many cultural activities and manifestations is acknowledged within a discussion about *trust*, the report noting that trust is correlated with having a more intense relational life in general, including “social gatherings and cultural events.” Furthermore, it observes that within education, Bhutan students are encouraged to engage in “creative learning and experience” (p. 117). Overall, GNH is explicitly associated with cultural activities as a resource for establishing identity and cultural self-expression, with culture (broadly conceived) viewed as instrumental for cushioning the country’s culture(s)

2) <http://worldhappiness.report/download/> (re 2012 report)

from the negative aspects of modernization. Education including creative learning and experiences is appreciated, and may be interpreted as implicitly relating to culture as resource for self-expression and self-development as well as integrally involved in cultural continuance and sustainability. Altogether, culture can be viewed as explicitly present and an active consider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happiness.

The 2013 report was announced with the following declaration: “well-being should be a critical component of how the world measures it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word ‘happiness’ is not used lightly. Happiness is an aspiration of every human being, and can also be a measure of social progress...”³⁾ Within a discussion on *human development* (capabilities), the report points out how the core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include “Participation and Freedom,” within which one finds “cultural liberty.” Later on, however, it notes that information on “participating in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activities is not available directly from international data sets” (p. 147). In other words, the authors encountered a closed door when it came to integrating cultural participation in a quantitatively based index.

In a separate narrative, creativity was prominently touted as an economically valuable outcome of happiness. Among the 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 within the category “Income, Productivity & Organizational Behaviour,” the benefit of “creativity & cognitive flexibility” was listed. The report cites research on mood/affect and creativity that found “happiness can increase curiosity, creativity, and motivation among employees” (p. 56); that “individuals who are happier better integrate information leading to new ideas, which leads to creativity and innovation” (p. 62); and that “positive feelings are associated with curiosity and creativity” (p. 62).

Two years later,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15* was published in advance of “three high-level negotiations that will give world leaders the opportunity to reshape the global agenda and move the world towards a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at includes well-being as an essential element.”⁴⁾ The report was positioned at a time pending adoption of the SDGs, and contextualized withi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lling for all societies to balanc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in a holistic manner” (culture was not widely recognized as a fourth dimension). In this context, the narrative on culture as a source of ‘measurement error’ (p. 15), i.e.,

3)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3/>

4)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5/>

cultural differences in data (as well as variations by age and gender), and the influence of cultural contexts and norms in explaining these differences continued (as it did in the later reports). However, there were no other mentions of culture as a resource and aspect of human capital – this thematic thread had been dropped.

Meanwhile, creativity was mentioned only once, in a section entitled “Adoption of Happiness as a Guide for Public Policy,” within the aspired goals of the example, *Dubai Plan 2021*:

Dubai Plan 2021 itself covers six themes “that describe the vision for Dubai: a city of *happy, creative and empowered people*; an inclusive and cohesive society; the preferred place to live, work and visit; a smart and sustainable city; a pivotal hub in the global economy; and a pioneering and excellent government. The strategy was developed after extensive consultations involving civil society,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s. (p. 4, emphasis added)

This weak inclusion was not contextualized further in the report.

In 2016, two reports were published and the tone became more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Volume I, the 2016 Update, noted “growing global interest in using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s primary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human development”⁵⁾ and explored themes of happiness and the SDGs and of civic ethics and relationships. The the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tinued as a foundation for the narratives in this report, which referenced the encyclical *Laudato Si’* (2015), in which Pope Francis calls for a “sustainable and integral development” (p. 59): “He places his emphasis on an integral ecology that cares for the poor, protects culture, directs technologies towards their highest purposes, overcomes consumerism, returns dignity to work, and protects the environment” (p. 60, emphasis added). The economic context for discussing creativity also continues, with the report noting Pope Francis’ special emphasis on work as an empowering source of well-being: “Work should be the setting for this rich personal growth, where many aspects of life enter into play: creativity, planning for the future, developing our talents, living out our values, relating to others, giving glory to God. ...” (p. 60, emphasis added).

Following up, Volume II, *Special Edition Rome* (2016) aimed to define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would reduce dependent variable noise and cultural biases, and resorts to

5) <http://worldhappiness.report/download/>

various historical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works conceptualizing and examining well-being, happiness, and related terms. Although culture is not mentioned very often in this work, within a section entitled “Catholic social teaching,” the report notes the following: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is a commitment to “integral human development”—defined as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person and all people. This implies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in all dimensions—*cultural*, social, economic, political, emotional, intellectual, aesthetic, and religious—and the development of every single person without exception or exclusion. It is a eudaimonistic vision. It recognizes that every person, in line with his or her dignity, is called to flourishing and self-actualization, and it presumes a common duty to make this a reality. It promotes not only access to material goods, but also relational goods, *cultural goods*, and spiritual goods. It seeks to build up not only physical capital, but also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natural capital. (p. 49, emphasis added)

Neoclassical economics therefore developed as a strange stepchild of utilitarianism and libertarianism. Such a framework is not really compatible with the eudaimonistic notion of happiness rooted in the common good. It is egotistical rather than altruistic, assuming that people are motivated solely by satisfying their own desires and preferences. It is materialistic, equating happiness with the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acquired through market transactions, *discounting relational, cultural, and spiritual goods*. And it takes people as they are—or as they are assumed to be—with regard to their tastes and preferences, *with no role for self-improvement brought about by the cultivation of the virtues.*” (p. 46, emphasis added)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re-introduce the cultural dimension of the individual and highlight a dynamic process of change through self-development, self-improvement, and cultivation toward the goals of flourishing and self-actualization. In this context, access to cultural (and spiritual) goods is recognized and promoted.

(Elsewhere the text refers to cultural messages received through contemporary capitalist economic systems [e.g., p. 68], but no mention is made of arts or creativity.)

The 2017 report stresses that “happiness is both social and personal,”⁶⁾ focusing on the social foundations of world happiness. The authors observe that the roles of social factors

6)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7/>

as supports for happiness are pervasive and encompassing. But while the importance of social factors is becoming more widely recognized, the underlying mechanisms are just barely beginning to be understood. In reference to culture, the report only notes Canada's "considerable success with multiculturalism"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which it notes "has not tried very hard" (p. 184). There is no mention of art or creativity in the report.

For 2018, the report focuses on happiness and migration, and the happiness of immigrants. In this context, the personal importance of one's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personal well-being and happiness is highlighted:

Separation from friends and family, social exclusion in the host country (e.g., discrimination) and decreased social participation due to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are typical social costs of migration that frequently result in experiences of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impaired social support among migrants. Migration also often entails a lower position in the social hierarchy, a sense of disloc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cultural clashes and identity issues). Additionally, happiness gains may falter over time because people tend to adapt more to the typical benefits of migration, such as improvements in economic welfare, than to migration's typical costs, such as leaving behind one'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p. 46)

Overall, the report's analysis implicates macro-cultural factors in explaining GNH findings. As with earlier reports, it also includes methodological comments about the relevance of macro-regional cultures to interpret data (e.g. Latin American culture).

With the particular focus on the experience and happiness of migrants, the 2018 report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leaving behind one'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facing cultural barriers, disorient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cultural clashes, identity issues). Entangled wi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 explicit inclusion of culture as a factor in happiness comes full-circle from the initial texts in 2012, which positioned cultural dimensions (from a more positive, internal perspective) in terms of the strength and continuity of cultural values, skills, and manifestations. These two perspectives on culture demonstrate that there is an acknowledged significance to one's cultural context and manifestations of this, although the inclusion of these insights in more quantitative indexes is difficult and thus its inclusion is sidelined or ignored.

Happy cities

Focusing more on the urban development context, it is quickly evident that over the last few years, the notion of “happy cities” as a planning objective has become more prominent, discussed largely in terms of urban design, as manifested in Canadian author Charles Montgomery’s 2013 book *Happy City: Transforming Our Lives Through Urban Design*, and propelled by (for example) a Happy City Lab consultancy in North America, a Happy City indicator initiative (organized as a charity) in England, The Happy Cities Summit 2018 in Amaravati,⁷⁾ India, and numerous media stories on highly ranked ‘happy places’, among many other projects and event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se initiatives was, unfortunately,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In lieu of this, I review here the latest report of the Global Happiness Council, highlighting the few aspects relating to urban development and culture within the report.

The Global Happiness Council, which produces the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complementing the *World Happiness Report*), includes a thematic group on city design and management. The city, as “a de facto arena for public life” (p. 171), provokes the question of what types of interventions can raise happiness in the public arena. In a section on “People and Society,” the 2018 report notes:

There is no doubt that cities are for people and society at large. Therefore, in order to thrive, a city must support its people and strengthen its society, in its various guises and cultures. Specifically, there are key elements that require attention in this dimension, and these include domains such as *health, education, continuous learning, culture, social services, human capital, and leisure,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vity* ... (p. 170)

The report also discusses, briefly, the importance of enhancing residents’ connection to place, noting Cresswell’s (2014) definition of place as “essentially consisting of three elements; materiality, the physical part; meaning, as constructed by individuals or groups; and practice, what people actually do”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2018, p. 181). Further, in a discussion promoting the practice of mixed use zoning of cities, the report notes that this aids social connectedness, and promotes a larger potential for commercial

7) The website for The Happy Cities Summit: Amaravati 2018 (<http://www.happycitiesummit.org>) notes that the event “was centered on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happy cities: ‘Citizen-centric governance’, ‘Liveable Communities’, ‘Clean & Healthy Environment’, and ‘Vibrant Economies.’” Outputs from the event included: Amaravati Happy City Masterplan, Happy Cities Declaration (by mayors), and the launch of a Happy Cities Innovation Lab.

and cultural opportunities (Jackson, 2003).⁸⁾ Overall, while references to city life do include a cultural aspect, and the culturally and historically constructed place meanings are acknowledged, cultural dimensions are weakly integrated here, and mentioned in passing rather than being discussed directly in terms of the happiness of urban dwellers. However, further examination of the array of Happy City initiatives would likely reveal some (individual?) efforts to integrate culture more strongly.

Culture and community well-being

The 2017 report, *What is Community Wellbeing? Conceptual Review*, produced by the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UK), was developed to clarify the various aspects of well-being in the community context, including measures, indicators, and interventions. It is a valuable resource synthesizing the leading approaches to conceptualizing community well-being and critically points out the limitations and gaps in current frameworks and practice. Importantly (for this paper), it points to the usual o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dimensions in index-led approaches and suggests deliberative practices and co-production as approaches to incorporate these meanings of people and place.

Acknowledging a wide range of definitions for both community and well-being, it puts forward this definition:

Community wellbeing is the combination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cul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identified by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as essential for them to flourish and fulfil their potential. (Wiseman and Brasher, 2008, p. 358, cited on p. 4)

At describes a community wellbeing framework as being comprised, centrally, of interconnections among people, place, and power. In this triad (embedding a ‘cultural’ dimension), *place* includes emotional attachments such as a sense of belonging, memories, cultural heritage, and aesthetics (p. 6).

It acknowledges that while community well-being assessments almost always include dimensions of health, economy, social relations, and security, four important considerations are “often left out that are central to capturing a meaningful concept of

8) The culturally diverse societies in which we live, the close link between education and culture, and cultural norms and influences on behavior are also mentioned within other parts of the report.

community wellbeing; these are sustainability, inequality, *consider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There are, in turn, complex concepts that can be understood and operationalised in a variety of ways” (p. 5, emphasis added).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hidden groups within a community” also need far greater explicit attention (p. 49).

Elaborating on these omissions in the mainstream domain sets, the report notes:

There are very few inclusions of cultural aspects, of what UNESCO te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nly two formulations that references equality or equity (the Happy City [UK] approach an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S]) and only one formulation, the Happy City approach, that references sustainability as intrinsic aspects of defining and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p. 23)

Furthermore, and closely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specific consideration that similarly is lost in most schema is any notion of a sense of place or community (Kee and Nam, 2016) and the histories of place that somehow goes beyond, or certainly deeper, than assessments of individual emotional attachments to place (see Andrews et al., 2014; Gesler and Kearns, 2002; Searle et al., 2009)” (p. 24).

Recalling the discussion of a eudaimonic approach to happiness discussed in the 2016 *World Happiness Report (Volume II)*, a eudaimonic approach to community well-being “explicitly aims to create places with purpose where heritage, culture, geography and/or industry define the actions of people in place are associated with more resilient economies and with greater capacity to withstand setbacks as they play out over time” (p. 44). The report also notes that this approach is consistent with Cresswell’s (2014) definition of places as spaces endowed with meaning.

While current practice in assessing community well-being tends to be very dependent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d measurements, and noting these omissions, the report recommends making room for more discursive spaces for local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In this way, room for heritage and cultural dimensions may become an active dimension of conceiving of community well-being. Discussing deliberative practices and co-production, framed as an alternative practice that views the very act of identifying tools for monitoring as “itself contributing to local identity” (p. 45).

The process of discussing and defining what is important locally serves to open

discursive spaces ...; developing a set of conversations across the community about what is important and allowing, welcoming even, the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of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a deliberative forum.

In this way, talking about community wellbeing itself becomes a means of exploration,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local identity. The stories that emerge, the narratives about place and history both create local community and are accountable to the community's visions of wellbeing. ... Trying to capture shared values, shared understandings of place and shared cultural heritage are key to capturing community wellbeing and yet extremely difficult to operationalize. Perhaps even more important is capturing the ways in which one group understands their collective wellbeing in relation to another group, whether in competition or cooperation, and in relation to notions of fairness and political voice ... (pp. 45-46)

In Canada, similar participative and self-empowering approaches were encouraged i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Community Sustainability Plans (ICSPs), which included culture as one of four key dimensions of local sustainability, and fostered local discussions on the meaning and aspirations regarding the cultural (and other) aspects of their community within a longer-term vision (for more details about the cultural aspects of the ICSPs, see Duxbury and Jeannotte, 2012).

Operationally, the report suggests narratives and other creative practices to articulate these dimensions:

Story-telling for community wellbeing has enormous potential for operationalising a conceptualisation of community wellbeing that is comprehensive, relational, multi-scalar and sensitive to diversity, inequalities, power and sustainability. Other forms of exploration of our worlds through qualitative and creative outputs are likely to have similar strengths and value. (p. 46)

Artistic approaches in cultural mapping similarly aim to capture that “felt sense” of community experiences, an element often missing from conventional mapping practices (Duxbury, Garrett-Petts, and Longley, 2018).

Cultural well-being

A brief note must be added at this point to highlight the concept of *cultural well-being*, which was introduced and by the New Zealand government (2005-2006), defined as “the vitality that communities and individuals enjoy through: participation in recreation, creativ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the freedom to retain, interpret and express their arts, history, heritage and traditions.” It was linked to a Local Government Act was adopted (2002) which stated that local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promoting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well-being of communities, in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2006, p. 1). Cultural well-being was regarded as one of these four interconnected forms of well-being. Local authorities are asked to integrate and balance these four types of well-being in planning and practice. However, with a later change of government, cultural well-being was dropped from the policy framework, although it retained some vibrancy within local municipalities.

Culture and quality of life

One of the more comprehensive efforts to review the research linking culture and quality of life was commissioned by the Scottish Executive in 2005 to the Centre for Cultural Policy Research (UK) to undertak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 ‘think-piece’) to define “quality of life” (QOL) in the context of culture, arts, and sport and explore ways in which the impact on QOL and sense of well-being through participation in cultural or sport interventions can be identified and measured, both in social and economic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review, arts, culture and sport were defined in terms of participatory activities, i.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on QOL and/or well-being. The review found confusion on what is QOL, what contributes to QOL, and outcomes of QOL. It also noted the interrelated treatment of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many of the documents it examined. Nonetheless, in conclusion, amongst other things, the study resulted in a list of “potentially important impacts,” both direct and indirect, that community cultural participation may have, including:

- supporting civic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 catalyzing economic development
- improving the built environment
- promoting stewardship of place
- augmenting public safety
-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 bridging cultural/ethnic/racial boundaries
- transmitting cultural values and history; and
- creating group memory and group identity. (Galloway et al., 2006)

This aligns with the research stream mentioned earlier that seeks to examine and document the contributions of cultural aspects, in this case direct participation in activities, to quality of life.

Culture and local sustainability

As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mainstream views of sustainability do not adequately incorporate “many important factors ... includ[ing] the spiritu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man and knowledge” (Shaharir, 2012, p. 91). However, a new view of sustainability that includes culture is emerging through transdisciplinary research and reflection (e.g., Dessein et al., 2015; Kangas et al., 2018), a wide range of experimental policy initiatives and projects rooted in public participation (Duxbury and Jeannotte, 2012), and intercity peer-to-peer learning networks, facilitated by, for example, the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ulture Committee.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se efforts have been informed by UNESCO’s statements on the contributions of cultural diversity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covery of historical and culture-specific development approaches and worldviews, and community development trends (Duxbury, Cullen, and Pascual, 2012).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DGs and Habitat III agreements, an acceleration of efforts has been noticeable (see, e.g., UNESCO, 2016; the “Culture as a Goal” global civil society campaign; etc.). While based in a wide array of conceptual arguments and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impact of culture within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work had a political agenda as well, aiming to transform the broader framework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to explicitly include a cultural dimension.

Within the array of publications that have aimed to both track and advance these discussions, a notable contribution is *Culture Urban 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ublished by UNESCO to inform the Habitat III deliberations in 2016. Reviewing this 304-page document for mentions of happiness provides only a few returns:

- The livability of a city can in part be gauged by the degree of happiness urban life can bring its inhabitants, contextualized within a call for human-centred cities with culture as both a goal and a tool in this urbanity (Minya Yang, p. 133)
- A case study of Salvador de Bahia, known as Brazil's 'capital of happiness', "whose ethnically-diverse inhabitants are proud of their cultural diversity, and share this through their creativity and heritage" (p. 195)

This finding reinforces the parallel nature of the work being developed around urban happiness and that on culture in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bsence of further connections is surprising given that many of the themes and concerns discussed in each of these discourse domains are held in common. For example, in a chapter on "Culture in urban futures," the chapter highlights note how cultural vitality is necessary to city life, as it permeates all spheres of living and lies at the foundation of freedoms, the public exchange of ideas, and societal well-being (cf. *World Happiness Report* of 2013) and refer to the need to:

- 'Rehumanize' urban areas, both in terms of scale and in enhancing a sense that facilitate belonging;
- Develop systematic, comprehensive, and culturally sensitive urban development models to promote inclusive processes of access,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 Build on culture for inclusive development, overcoming current inadequacies of indicators and measurement of impacts, citizen participation, and gender inequality.

Politically, the chapter also points out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enterprise is crucial "to create and support spaces for dialogue and action; plan, design, implement and monitor policies and programmes; develop infrastructure; and ensure that the values of heritage, diversity and creativity are recognized, particularly in contexts where these may be neglected or threatened" (p. 204). Altogether, while not identical there is room for a closer dialogue and better relations.

Closing reflections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place of culture within the paradigm of *happiness*, in reference to urban and local development where possible, and contextualize these findings with other research about the place of culture i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Overlap and interrelations were expected as these ideas are linked by a common focus on the inhabitants of a city; their conditions and opportunities for healthy living, learning, and expression; and the engendering of a generalized feeling of contentment and belonging within a larger collective. The reviews conducted in this paper – of the *World Happiness Reports*, as well as some work on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 illustrated that while culture is sometimes present, it still largely marginal in these efforts.

While the specific contexts differ, this situation is a long-standing issue within cultural indicators research, particularly when aiming to include cultural aspects within broader community frameworks. As a result, the dominant efforts observed in research and advocacy documents tend to continue to focus on “making the case” for inclusion and proving effect. Perhaps this “phase” will never end. Over time, however, these multiple efforts accumulate and may gradually alter prevailing frameworks for thinking about and acting on them. Over the last two decades, we have observed the rise of the notion of culture as a key dimension of sustainability as numerou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cattered globally, began to articulate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limitations of a “three pillar “ model and the need for one that included cultural dimensions. (These efforts continue as it is not yet a fully accepted paradigm, although much more prominent today.) The review conducted here identified a few threads that could begin a similar trajectory within the rubric of urban happiness. At the least, further efforts to interlink the efforts to link culture with community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local sustainability should be more closely examined from an urban happiness perspective.

References

- Andrews, G., Chen, S., Myers, S. (2014) The 'taking place' of health and wellbeing: towards non-representational theor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08: 210–222
- Ballas, D. (2013). What makes a 'happy city'? *Cities*, 32(suppl. 1): S39-S50. Available: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4275113000504>
- Carvalho, C. (2010). The Creative Citizen: Citizenship Building in the Boston Area. PhD dissertation, Faculty of Economics (in Sociology), University of Coimbra, Portugal.
- Cresswell, T. (2014) *Place: An Introduction* (2nd Edi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 Dessein, J., Soini, K., Fairclough, G., and Horlings, L. (Eds.) (2015). *Culture in, for and as Sustainable Development*. Conclusions from the COST Action IS1007 Investigating Cultural Sustainability. University of Jyväskylä, Finland.
- Duxbury, N. (Ed.). (2002). Special issue: Making Connections: Culture and Social Cohesion in the New Millennium.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2). Available: <https://www.cjc-online.ca/index.php/journal/issue/view/100/showToc>
- Duxbury, N. (2005). Cultural Indicators and Benchmarks in Community Indicator Projects. In C. Andrew, M. Gattinger, M.S. Jeannotte, and W. Straw (Eds.), *Accounting for Culture: Thinking through Cultural Citizenship*.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Duxbury, N., Baltà, J., Hosagrahar, J., and Pascual, J. (2016). Culture in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 agenda for local governments (pp. 204-211). In *Culture Urban 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aris: UNESCO.
- Duxbury, N., C. Cullen, and J. Pascual. (2012). Cities,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H.K. Anheier, Y.R. Isar, and M. Hoelscher (Eds.), *Cities, Cultural Policy and Governance* (pp. 73-86). The Cultures and Globalization Series, Vol. 5. London: Sage.
- Duxbury, N., and M.S. Jeannotte. (2012). Including Culture in Sustainability: An Assessment of Canada's Integrated Community Sustainability Plan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4(1), 1-19. doi:10.1080/19463138.2012.670116
- Florida, R., Mellander, C., and Rentfrow, P.J. (2013). The Happiness of Cities. *Regional Studies*, 47(4): 613-627
- Galloway, S., Bell, D., Hamilton, C., & Scullion, A. (2006).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Measuring the benefits of culture and sport: Literature review and thinkpiece*. Edinburgh, Scotland: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 Gesler, W.M., Kearns, R.A. (2002) *Culture/place/health*. Routledge: London
- Global Happiness Council (2018).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2018*.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vailable: <http://www.happinesscouncil.org>
- Happy City Index (UK) [website]: <http://www.happycity.org.uk/measurement-policy/happy-city-index/the-methodology/>
- Jackson, L. E. (2003). The relationship of urban design to human health and condi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4(4), 191-200.

- Kangas, A., N. Duxbury, and C. De Beukelaer (Eds.). (2018).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Kee, Y., Nam, C. (2016) Does sense of community matter in community well-being? In Kee, Y., Lee, S.J., Phillips, R. (Eds.)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pp. 39-56. Springer: Switzerland.
- Libânio, C. de A. (2018). Cultural Practices and Social Change: Changing Perspectives of the Slums in Belo Horizonte through Cultural Mapping. In N. Duxbury, W. F. Garrett-Petts, and A. Longley (Eds.), *Artistic Approaches to Cultural Mapping: Activating Imaginaries and Means of Knowing*. London: Routledge.
- Mincer, J. (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4): 281-302.
- Montgomery, C. (2013). *Happy City: Transforming Our Lives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New Zealand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2006). *Cultural well-being and local government. Report 1: definition and context of cultural well-being*. Wellington (New Zealand): NZMCH.
- Sachs-Jeantet, C. (1996). Humanizing the c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https://doi.org/10.1111/j.1468-2451.1996.tb00064.x>
- Searle, B., Smith, S.J., and Cook, N. (2009) From housing wealth to well-being?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31: 112-127.
- Shaharir, B.M.Z. (2012). A new paradigm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5(1).
- UNESCO. (2013). *Culture: A Driver and an Enabler of Social Cohesion*. Proceedings -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13-15 May 2013. Available: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ulture-and-development/hangzhou-congress/culture-a-driver-and-an-enabler-of-social-cohesion/>
- UNESCO. (2016). *Culture Urban 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aris: UNESCO.
- University of Minnesota 2016 Community Wellbeing [website]:
<http://takingcharge.csh.umn.edu/community-wellbeing>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2017). *What is Community Wellbeing? Conceptual review*. Available:
<https://whatworkswellbeing.org/product/what-is-community-wellbeing-conceptual-review/>
- Wiseman, J., Brasher, K.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29: 353-366.
- World Happiness Reports*. (2012-2018).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vailable: <http://worldhappiness.report>
- Yang, M. (2016). Humanizing cities through culture (pp. 133-139). In *Culture Urban 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aris: UNESCO.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제1세션 :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이 지 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前 제주시장

1. 제 토론은 서은국 교수님의 발표(The “Surprisingly” Unhappy East Asians: Going beyond objective QOL numbers)를 중심으로 코멘트 합니다.

☞ 평소 만나 뵙고 싶었던 행복연구 전문가이신, 『행복의 기원』저자 서 교수님 발표문 매우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행복의 기원』을 유쾌하게 읽으며, 또한 이번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내용을 종합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교수님은 행복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으로 ‘외향성’이란 유전적 특성을 들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이 ‘내성적 성격’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절망적!)인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역작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은 객관적 삶의 조건들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까지 강조하셨기 때문이지요.
-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으셨지만,
 - 원래 낙천적인 인종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 반대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사람들은, 인종적(유전적)으로 낙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 서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인들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몇 배나 더 노력해야(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한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 서교수님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 대신, “동아시아 국가 모두 강한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 지역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물질주의가 사회적 고립과 관용의 부족, 부패를 낳아 행복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 이에 다른 해법으로 교수님은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적 요구, 그 중에서도 사회적 니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발표와 관련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Q1.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왜 행복한가?

- 라틴아메리카는 실업률, 범죄발생률, 부패, 빈부격차도 높은 사회임에도, 성소수자에 관대하고, 남녀평등도 북유럽 수준인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 첫째 질문, 원래 이들이 낙천적인, 인종적 특성 때문인가요?
- 다른 이유는 없지요? 이를테면 종교적(문화적) 배경 같은.
 - 라틴아메리카는 (토착화된) 가톨릭이 거의 국교회(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메자키 마사아키는(『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2011)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환경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합리성과 비판적 사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이 미덕이라는 관념도 비교적 약하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부의 축적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근면한 것 보다 연줄과 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부패지수는 높고 근면성실함이 오히려 바보취급을 당한다.”
 - 이러한 마사아키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인가요?
 -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북유럽지역의 경우, 바이킹과 함께 루터교의 영향이 크고, 부탄의 경우도 티벳불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 인종적, 문화적 요인 외에 다른 배경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이를 테면 봉건(계급)체제 경험이 별로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평등의 배경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 물론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인일 뿐이라 강조하셨습니다만.

Q2.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나?

- 모두에 질문 했지만, 원래 낙천적이지 못한 인종적 특성 때문인지요?
 - 우리나라로 한정시켜 보면, 우리가 원래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는 사실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또한 과도한 물질적 가치 지향 때문이라는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데,
- 제가 궁금한 건, ‘왜’(why)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었나는 겁니다.
 - 그 ‘시기(when)’는 또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하구요(이와 관련한 시계열 분석 자료가 있는지요).
- 왜냐면, 원래 동아시아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신세계를 강조하던 곳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 동아시아 문화권 : 유교문화권(+불교문화)

- 어쨌든, 이 유교문화에서 파생된 ‘집단주의’가 문제라는 것인데,
 - 즉.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성을 중시하는 사회(북유럽 :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대비)
 -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에다 군사문화까지 결합되어 증폭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여하튼, 집단주의의 양면성 중 긍정성(공동체성)과 부정성 중 부정성만 확대된 이유가 뭘까요?
- 한국은 물질주의와 집단주의 이 두 가지가 결합돼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 그런데 이게 단지 이데올로기(문화)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 이런 물질주의와 집단주의가 왜 발생하고, 언제부터 심화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 동아시아 국가별로도 각각 다른 ‘원인’과 ‘시기’상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아래 자료를 보면, 한국의 경우 ‘관용도’ 최저 수준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거든요.

※ 한국인 관용도 조사 대상 27개국 중 26위(BBC 글로벌 조사결과)

- 지난 4월 22일 입소스(Ipsos)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발표
-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배경, 문화 또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관용적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응답자의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답함.
- 이는 조사 대상 27개국 중 26위(평균 응답률 46%)였으며, 캐나다가 74%로 1위 그 다음으로 중국(65%)과 말레이시아(64%)가 뒤를 이음(중국의 관용도 높음).
- ‘자국이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인은 7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 이는 27개국 평균치(76%)에 가까운 답변이나, 이웃 나라인 중국은 48%, 일본은 5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답변율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

Q3.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나?

- 한국의 경우 봉건체제와 식민지 경험, 내전(한국전쟁, 4·3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 경험이나, ‘전체주의적(독재) 사회’의 경험은 영향이 없었을까요?
- ‘응답하라’ TV시리즈에 국민들이 열광했듯이, 봉건제 착취와 제국주의 수탈, 전쟁의 참화,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도(8~90년대까지도) 힘든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를 유지해 오지 않았나요?
- 협동과 공동체의 미학 사라지고 살벌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로 전락하고 만 시기가 언제부터 라고 보시는지요? 서로 품어주고 고통을 나누어 가졌던 마을도, 심지어 가족까지 해체되기 시작한 결정적 시기가? - 저는 IMF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 이때부터 ‘불평등’(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 성불평등 등)이 확대 고착화되고, 사회적 자본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건 아닌지.
 - 그 이전 시기까지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불평등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계층이동의 희망이라도 있었고....
 -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핵심원인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Q4.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 그렇다면, 헬조선을 탈출하기 위한 처방이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해소, 최소한의 기본권(사회안전망) 보장을 통한 계층 이동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서교수님 말씀처럼 애초부터 태생적, 인종적 한계가 있다면, 이 때문이라도, 불평등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2. HO 교수님의 ‘행복한 도시로 이르는 길’

- 호교수님의 원고 읽으면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마을공동체 운동’과 ‘커뮤니티 웰빙’의 결합, 이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마을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모두 함께 행복한 마을과 도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 특히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야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싱가포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울시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 Nancy Duxbury 박사님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공동체적 행복 속의 문화가치’

- 발표문을 통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문화(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삼 배웠습니다.
- 특히, 문화는 ‘커뮤니티 웰빙’과 ‘삶의 질’, ‘도시(지역) 지속가능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인상적입니다.
 - 메가시티 중 문화유산이 많은 서울시로서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 사료됩니다.
- 저는 힘든 생활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도심 속에 문화유산(宮)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환경 뿐 아니라 자연환경(central park)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아젠다 외에 문화적 웰빙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작년 방문했던 부탄(Bhutan)에서, GNH의 4가지 기둥 중 두 번째로 강조하는 기둥이 바로 '문화의 보전과 증진'이었다는 것도 새삼 생각납니다.
-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문화의 기능을 새삼 깨닫습니다.

☞ 많은 가르침 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끝)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제1세션 :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서 우 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과연 한국인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질문지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국제비교조사 결과 만큼 한국인들이 실제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이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그동안의 발전 방식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방향의 사회변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최근 이념적 지향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지향이 되고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 경제정책과 하드웨어 건설에 주력해 왔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세션에 발표된 세 논문을 함께 읽으면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 따른 논의가 서로 보완되면서 〈도시와 삶의 질〉의 관계가 가지는 특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 행복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가 아닌 도시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심도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많은 도시정부들이 앞다투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표방하는 반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왔던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이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두 발표가 심리학과 사회학의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안에 관하여 같은 맥락의 진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제적 조건이나 객관적 여건 이외에도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사회적 교류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서은국 교수님의 진단은 도시 근린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이나 재정 수단에 좌우되지 않고 부유하지 않은 계층에게도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호콩충 교수님의 제안으로 잘 연결된다.

서은국 교수님의 진단은 경쟁과 불신, 물질주의적 가치의 지배가 아니라 상생과 존중, 인간적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상호감시를 부추기는 제도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한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가지는 특징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과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심리학적 논의가 변화 가능

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

호코총 교수님은 도시정책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분배정책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집단에게 지역사회 사업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나 대도시의 빈번한 인구이동에 대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요구, 주제, 역량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주도의 모델인 싱가포르의 Tampines Central과 시민사회 중심의 모델로서 대만의 Tangbu를 비교해 주셨는데, 이러한 차이가 가지는 도시정책 차원의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요청드린다.

추가적으로 두 교수님에게 최근 고립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사회적 변화의 상황에서 사회적, 공동체적 관계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묻고 싶다. 일본에서 등장한 “무연사회”의 현상이 한국 사회에도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집단행동을 강제해 왔던 집합적인 문화는 사회나 기업 조직에서 빠르게 쇠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선택의 자율성이 증진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를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의무적으로라도 존재해 왔던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급격하게 축소되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인구 집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다른 인구사회집단에 대한 혐오의 감정 표현은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AI 발전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적, 심리적 요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 진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관계를 살리고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도시정부의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따르는 수고와 피곤함을 기피하고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예측가능한 만족이 행복을 위한 더 확실한 수단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가지는 현실성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낸시 덕스베리 위원님의 논의는 문화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문화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분석의 차원에서 문화는 주변화된 변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국제비교연구로 진행되는 행복 연구의 프로젝트 안에서 문화는 표준화된 변수로 포함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는 문화 부문 자체가 국제 비교가 가장 더딘 영역 중의 하나라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행복과의 조합이 그리 쉽지 않다.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 지향은 행복 추구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스 연극에서부터 예술적 가치는 희극보다는 비극에 더 많이 주어졌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보더라도 세속적인 견지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많다. 유럽 도시에서 문화 인프라 건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19세기의 과정

을 보더라도 왕과 귀족을 위한 시설이 국민 대중을 위한 전시기설로 바뀐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보화의 민주화”를 지향한 정치적 과정이었고, 유럽 도시에 콘서트홀들이 들어선 것은 시민계급이 음악 소비층으로서 등장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공리주의에서 행복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삶의 질과 같은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에서 최근에 문화의 도구적 활용이 증가하며 행복과의 관계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상으로부터의 재활이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아트테라피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계기로서 문화활동이 가지는 유용성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재정 압박이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문화를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커졌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나 행복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을 개념화될 때, 문화예술이 인류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매우 협소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도구적으로 효과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창조하는 즐거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공동체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성 사업이 가지는 한계와 반작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속성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낸시 덕스베리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의 도구화 위험을 피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대안적 방식에 대한 고민을 유도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정부의 문화계획 사례들이나 이를 위한 문화맵핑과 같은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도시발전 지향을 정책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 시도가 필요해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사회학)

공공부문의 행복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위한 정책 지향 담아야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지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 발전수준 =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전 세계의 성장은, 한 국가의 성장은, 한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며,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대도시들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즉 사회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이 단순하게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미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발전국가의 도시가 갖는 위상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메가시티의 행복 영향 요인은 인적자원, 건강, 주관적 만족감,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순

세계 메가시티나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 영향 요인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은 인적자원 역량으로서의 학력이나 기술 요소와 건강, 주관적 만족감과 일과 삶의 균형 요소 등이었다. 특히 소득 요소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OECD Better Life Initiative 11개 영역 중 자신들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건강, 소득,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만족감 순이었다.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요소별 가중치 요인과 유사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 폴란드, 룩셈부르크로 나타났다. 한편, 가중치 서열 유형에서 서울과 유사도가 가장 먼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이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결정요인은 물질적 요소가 우세하나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인 역시 중요 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삶의 성취도, 미래안정성, 생활수준, 직업 만족도 순으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성취도는 삶의 질에 관한 변수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계층 지위와 사회적 성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물질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미래안정성과 생활수준 역시 물질적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들의 행복 지수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 분을 설명하는 변수 중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감 증가분보다는 다른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들(주관적 계층소속감, 계층이동 가능성, 생활영역별 주관적 만족도)과 신뢰 요소가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사회의 행복한 삶,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높은 사회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소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시민들의 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혹은 사회 공동체의 태도와 인지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행복의 질(質)과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행복제고를 위한 여러 측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시민과의 소통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다.

한편, 이번 발표문에서 분석된 자료를 보더라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사회와 서울시 역시 이러한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와 가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간에는 지역민에 미치는 행복영향 요인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정책의 공공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발전단계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이익을 넘어 유익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공론의 장에서 정부영역, 시민영역, 전문가 영역 등이 상호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소통을 위한 자료의 생산(모니터링, 지표, 다차원분석 등)이 필요하고, 그 소통의 결과물로서 자료의 축적이 이뤄진다면(예, 정기적인 국가/도시행복보고서, 행복영향평가 등) ‘보다 나은 공동체 삶’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세션2: 세대별 행복과 삶의 질 _해외 도시와의 비교

Session II :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tion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Quality of Life Indice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이희길(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 서기관)

Hee-gil Lee(Senior Deputy Director, Policy Indicator Research Division, Statistics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creating indicators that monitor the quality of lif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nd to present an indicator system. Based on this system, I try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this paper: 1.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2. Is their quality of life improving or deteriorating? 3. What differences exist among population subgroups? Th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orked together to conduct research on these topic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 examination of general plans relating t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nd collection of expert opinions.

Through this research, a framework was established incorporating a developmental approach in terms of time, an ecological approach that emphasizes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in terms of space, a children's rights approach in terms of norms, and a subjective well-being approach that considers children to have subjective views.

The framework is made up of two types of indicators; background indicators relat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nd social policies as well as indicators relating to living conditions. The background indicators are categorized into two areas, population and social policies, while living condition indicators are divided into materi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health, learning-development, safety and delinquent behavior, relationships, and subjective well-being, a total of six areas. In these eight fields, a total of 157 indicators were created for children and 158 for adolescents. Additional research based on these indicators combined with national statistic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18. 12. 06

이희길(통계개발원)

Contents

제1절 서론

1. 배경
2. 목적

제2절 추진 방법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2. 프레임워크
3. 지표체계

제4절 향후계획

1. 향후과제
2. 활용방안

제1절 서론

1. 배경

◀ 왜 '아동·청소년'인가?

OECD의 웰빙측정(BLI)에서 아동/청소년의 중요성 강조

- 인생의 초기에 웰빙에 대한 정책개입이 효과적(2016)
- How's life 2015? 아동웰빙 포함, OECD 아동웰빙 DB 구축

제3차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 아동웰빙의 중요성 강조

- 노인은 노인지표 작성 중, 여성은 '성인지 통계' 작성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옹호(advocacy) 필요

❖ 생애주기 관점에서 OECD에서는 인생을 3단계로 구분

- 0~24세(아동·청소년기), 25~64세(성인기), 65세~(노령기)

제1절 서론

1. 배경

◀ 아동·청소년 지표(통계) 작성현황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정부 '아동·청소년' 통계 부재

- 세이브더칠드런, 방정환재단 등 민간 중심 통계생산

청소년도 '청소년 통계', '청소년 백서'가 있으나 비체계적

-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백서의 성격과 지표성격 공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부업무를 소관부처에 따라 산재

- 아동·청소년 대상 체계적·종합적인 지원 연계망 미흡

제1절 서론

1. 배경

▶ 아동청소년 지표(통계) 작성현황은?

〈표 1〉 영역별 아동정책 담당 부처

영역분류	중분류	주무부처
가정 및 대안양육	가정양육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대안양육	보건복지부
건강 및 안전	건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및 돌봄	교육	교육부
	돌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여가 및 권리·참여	여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권리·참여	

자료: 전진아 외(2014),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개발.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종합 작성되는 정부통계는 제한적
오히려 민간에서 작성을 주도**

제1절 서론

2. 목적

▶ 모니터링 내용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혹은 wellbeing)은 어떤 상태인가?
- 이들의 ‘삶의 질’은 개선 혹은 악화되었는가?
- 하위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작성 지원

▶ 최종목적 : 한국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자료 제공

제2절 추진방법

2.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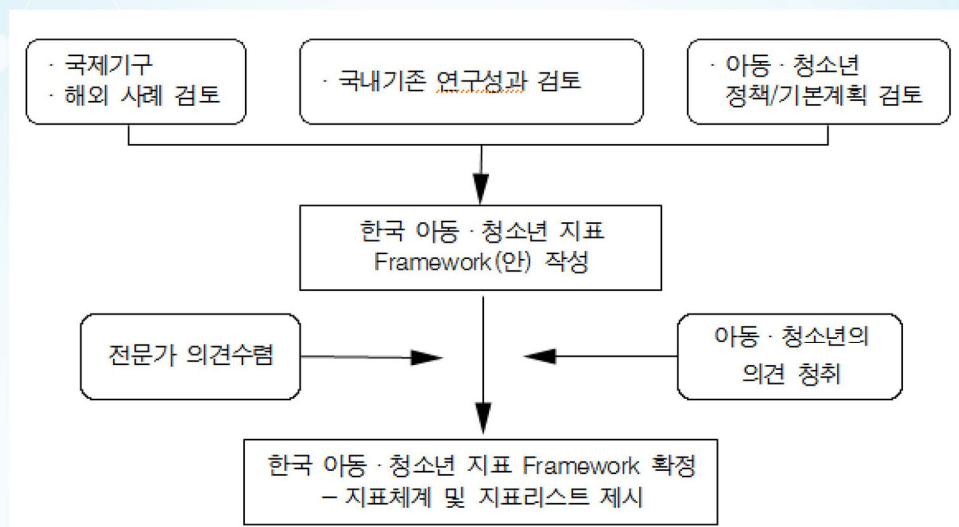
◀ 아일랜드 아동웰빙 지표체계 구축과정

- (목적) '국가 아동 전략(2000)'의 목표인 '국가 아동 상태 보고서 the State of the Nation's Children Report'(2006)의 기초(2004)를 제공
- (관점) '국가 아동전략'은 아동의 생활에 대한 '종합적(holistic)' 접근법과 '아동관점의 중시(whole child perspective)'에 기반
- 4단계 개발과정
 - (문헌검토) 지표체계, 지표 및 영역 정리, 선정기준 검토
 - (실행가능성 검토) 지표구축에 필요한 국가통계 이용
 - (아동관점 연구) 아동이 지니고 있는 웰빙에 대한 이해 관련 연구
 - (델파이기법 활용) 맥락에 맞는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합의

제2절 추진방법

2. 추진절차

◀ 한국 아동·청소년 지표 프레임워크 흐름도



제2절 추진방법

2. 추진절차

● 한국 아동·청소년 지표 프레임워크 흐름도

(해외동향) 아동·청소년 웰빙 측정 관련 국제동향 파악

➢ 국제기구(UN, OECD, EU 등) 및 해외의 단위국가 사례 검토

(국내성과) 기존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파악

(부처계획 검토) 복지부(아동)·여가부(청소년)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검토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여가부)

(전문가 자문)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적절성 지표체계 및 영역별 전문가 검토

(아동청소년 목소리 청취)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삶의 질에 대한 견해와 요구지표 반영

제2절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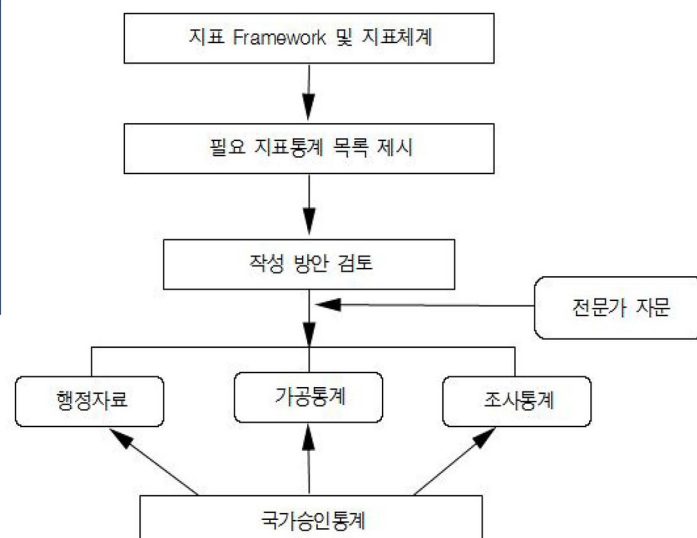
2. 추진절차

● 지표통계 작성

(작성방법)

프레임워크로부터
도출된 세부지표 작성은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약 1천여종)를 활용해
작성 및 생산 추진

〈한국 아동·청소년 지표통계 작성방안〉



제2절 추진방법

2. 추진절차

◀ 활용 가능 승인통계 현황(잠정)

아동 승인통계		청소년 승인통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평생교육통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진로교육현황조사
보육실태조사	한국교육중단조사(패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진로교육현황조사	청년패널조사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국가영재교육통계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교육기본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연구동향

전세계적인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 증가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아동·청소년 웰빙 연구들이 지향하는 특징들



아동·청소년 웰빙 연구에서 이러한 특징들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반영되는 특성
Well-becoming에서 Well-being으로의 관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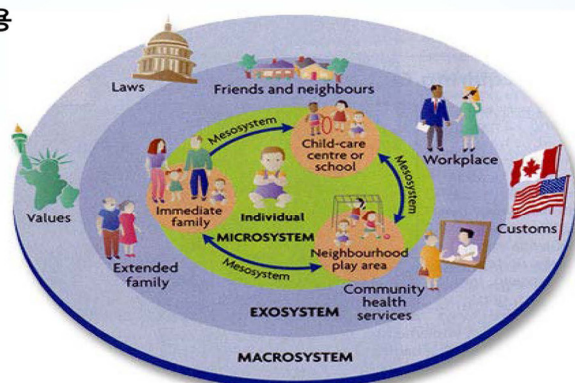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아동·청소년 웰빙 연구들이 지향하는 특징들

[예시] 아이들의 삶 파악하기

- 아동 개인의 특성
- 아동을 둘러싼 환경(가족, 학교, 동네, 사회문화)의 특성
-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료: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 Third Canadian Edition [by] Laura E. Berk with William L. Roberts: Instructor's resource CD-ROM, Pearson Education Canada.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연구동향

(국제기구) UNICEF, OECD, EU 등에서 Child well-being 연구 발표

(개별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의 Child well-being 연구 진행.
민간에서 시작된 연구들이 국가의 데이터 구축에 영향

(국제학회)

- (국제조사) 유럽을 중심으로 한 MYWeB과
전세계를 포괄하는 ISCWeB 등의 국제 조사가 진행 중
- (국제저널) 아동청소년 웰빙을 다루는 SSCI급 저널에서
각 나라의 성과들을 공유 Child Indicators Research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아동·청소년 중심의 웰빙 지표의 프레임워크

대영역	국제기구 연구			개별국가 연구				국내연구	
	UNICEF	OECD	EU	미국 Kids Count	미국 CWI	미국 American children	호주 ACWP	방정환재단-연세대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
물질적 상황	물질적 웰빙	물질적 웰빙	경제보장 및 물질적 환경	경제적 웰빙	가족의 경제적 웰빙	경제적 상황	돈과 물질적 웰빙	물질적 행복	물질적 상황
건강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보장	-	보건과 안전	건강
안전			-	-	안전과 위험행동	물리적 환경과 안전	건강		위험과 안전
위험행동	행동과 위험	위험행동	위험노출 및 위험행동	위험행동	위험행동	행동	-	행동과 생활양식	
주거환경	주거와 환경	주거와 환경	주거	-	-	-	-	-	주거환경
학습(교육)	교육	교육, 학교생활의 질	교육	교육	교육성취	교육	학습	교육	교육
대인관계	-	-	-	-	사회적 관계, 공동체 관계	-	친구, 괴롭힘, 관계의 밀접성	가족과 친구관계	대인관계
주관적웰빙	-	-	-	-	정서적/영적 웰빙	-	좋은 감정, 낙관성	주관적 행복	주관적 행복
기타	-	-	지역환경, 사회참여 및 가족환경 사회참여	가족과 지역사회	-	가족과 사회적 환경	가족, 학교, 동네와 공동체	-	바람직한 인성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사례

아동지표

- 2006년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 2007년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 2014 아동정책 지표개발 연구
- 2016 아동지표
-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Ⅲ

아동·청소년지표

- 2017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책 지표
-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청소년지표

- 2004 청소년 통계지표 작성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사례

- 2000년 초기 부터 아동 지표 연구 시작: 아동, 어린이, 청소년
- (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 아동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아동빈곤
- (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 기초지표,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자녀양육 및 영유복지분야 지표
- (2014 아동정책 지표개발 연구)
 - 가정 및 대안양육, 건강 및 안전, 교육 및 돌봄, 여가 및 권리 참여
- (2016 아동지표)
 - 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빈곤, 사회적 보호, 안전, 교육, 사회참여 및 활동, 기타(OECD 국제비교)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사례

- (초기 연구) 아동과 청소년의 지표를 구성하고자 함
- (2015년 이전) 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지표화하여 보고자 함
 - 국제 지표 수준과 비교할 때 정책 기초자료 성격이 많음
 - 대분류의 영역 성격과 기초지표, 양육 관련 지표가 주를 이룸
- (2016년 이후) 아동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지표와 지수 연구
 - 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표는 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빈곤, 사회적 보호, 안전, 교육, 사회참여 및 활동 등의 영역체계
 -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는 건강,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바람직한 인성, 가족 환경,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아동권리 인식 체계
 - 2018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 양식, 주관적 행복 등의 영역 체계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사례(종합)

영역	2016 아동지표	2017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2018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건강과 안전	○	○	○
주관적 웰빙		○	○
개인의 가족 및 또래관계			○
물질적 웰빙과 경제적 안전	○		○
교육적 웰빙	○	○	○
행동과 위험		○	
주택과 지역환경		○	
학교 생활의 질			
가족 형태와 돌봄	○		
사회, 경제적, 시민참여	○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

-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 받는 아동
- **핵심목표:**
 - 아동 행복도 증진
 -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 **추진영역:**
 - 미래를 준비하는 삶
 - 건강한 삶
 - 안전한 삶
 - 함께하는 삶
- **추진전략:**
 - 성과지표중심의이행관리(핵심지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관리방안마련
 - 상시 평가수행

영역	성과지표
총괄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주관적 행복)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미래 준비	아동결핍수준(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공동체 의식
건강	영유아건강검진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5~19세 자살률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범죄 피해자 수(15세 이하)
	재학대 판정률
함께 하는 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소년법 재범률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국내외 사례 검토

●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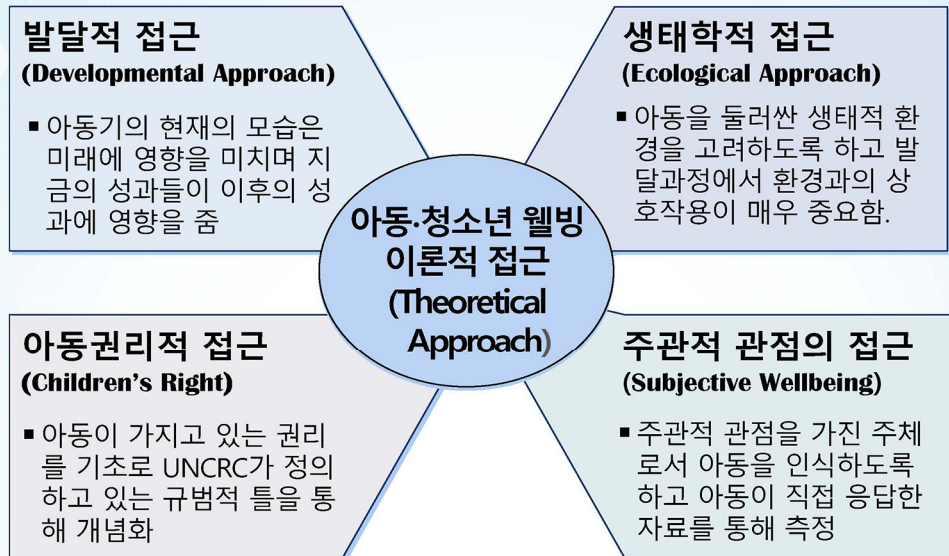
- **비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 **정책목표:**
 -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 **중심과제:**
 -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른 중점과제
 -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으로 전환

영역	주요 지표
최상위지표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수준 보장
	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단체활동 참여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건수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학교밖 청소년 자립 인원
	NEET비율
	아동청소년 빈곤율
	스마트폰과의존율
	아르바이트 경험률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아동·청소년 웰빙의 접근법(Ben-ariel, 2008)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프레임워크

작성원칙

- 핵심적인 발달과제들과 맥락 대표
- 긍정적, 부정적 지표 함께 사용
- 지표의 양적 측정치 실현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해야 함
- 행동 지향적 ⇒ 삶에 변화-사회 행위
- 삶의 질(well-being)과 잘 성장하는 것(well-becoming)의 균형 필요
- 변화측정할 수 있도록 반복생산가능
- 이해하기 쉬워야 함
- 자료수집이 현실적이어야 함

How'sLife(2015) 아동 웰빙 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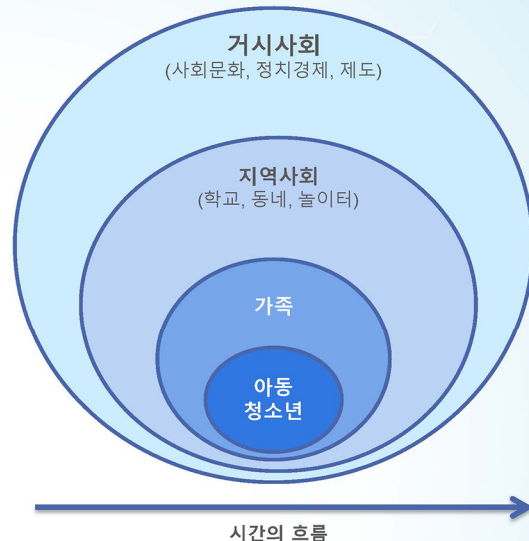
- Face validity를 가짐
 - 요약 성과에 초점을 맞춤
 - 변화를 수용하고 정책적 개입에 민감함
 - 관련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받아들여짐
 - 반복적 수단을 통해 수집됨
 -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구간의 범위가 큼
- (2가지 추가적 기준)**
-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들 포함시킴
 - 가족이 아닌 아동이 분석 단위가 되어야 함
→ 아동 중심 접근법은 최근 연구에서 공통적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아동·청소년의 삶을 파악하기: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시간변화

- 아동청소년의 삶은 성인들의 삶과 차이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시작해야 함
- 아동청소년 웰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청소년 개인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거시사회의 영향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설계 필요
-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변화하므로 시간적 흐름도 고려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아동·청소년 중심 웰빙의 주요 영역

-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
-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한 웰빙 영역을 7개로 구성: 건강, 학습·발달, 여가·활동, 안전·행동, 대인관계, 주관적 웰빙, 물질적 수준 및 환경
- 여가·활동 영역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놀이시간 및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
- 주관적 웰빙 영역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의 낮은 행복도를 고려하여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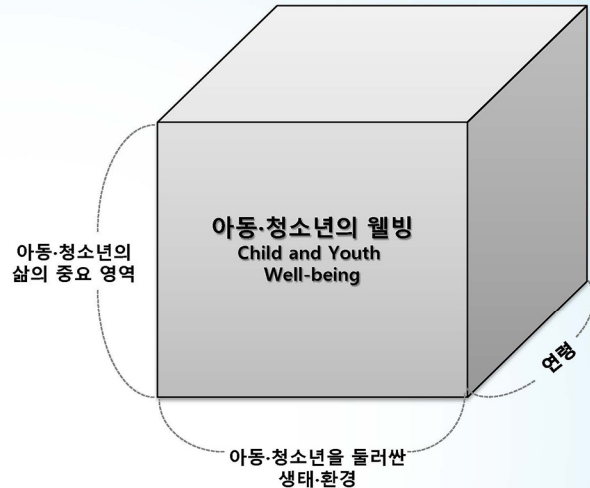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아동·청소년 중심 웰빙 지표의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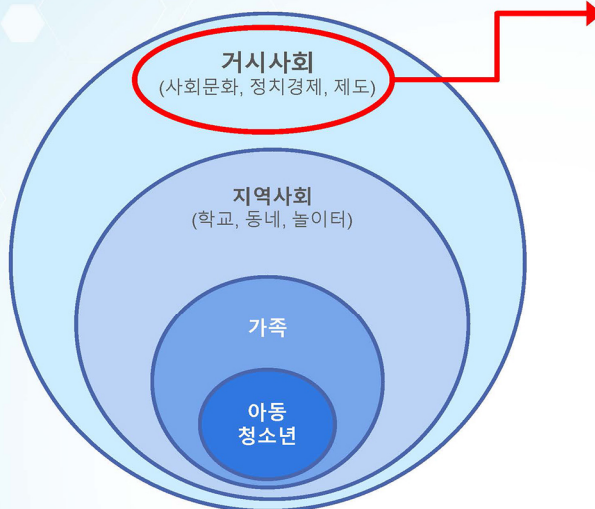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과 시간적 흐름, 그리고 삶의 중요한 영역들을 결합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성
- 생태환경: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생태체계로 설정
- 삶의 중요 영역: 아동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중요 영역으로 설정
- 시간의 흐름(연령):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
-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웰빙 지표 구성이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아동·청소년 웰빙에 관한 인구, 사회정책 자료



배경지표 (인구·사회·정책지표)

인구 (구조, 추계, 동태)	사회·정책 (사회보장 및 인프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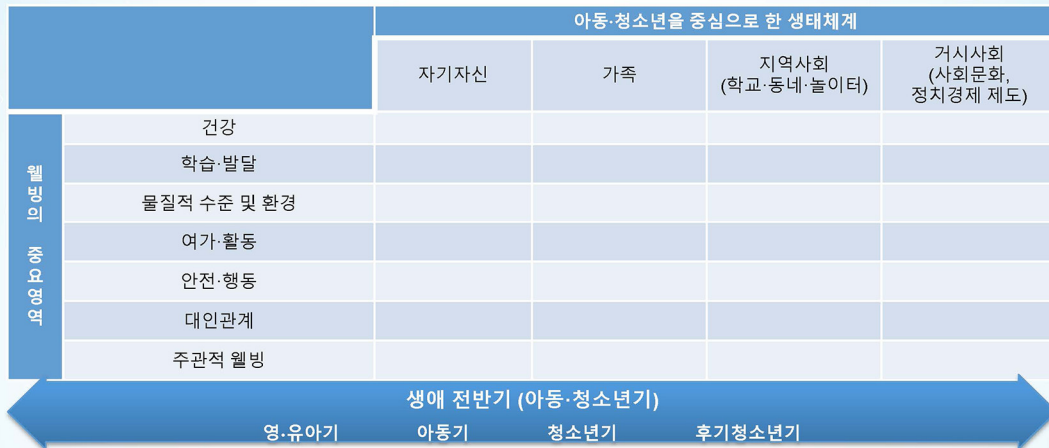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중심의 웰빙 지표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 정치경제, 제도적 특성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배경 지표들을 생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인구사회정책 지표들로 구성하여 인구변화, 사회정책적 특성들을 함께 추가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기로 함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 프레임워크

● 아동·청소년 중심 웰빙 지표의 프레임워크

- **환경:**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생태체계로 설정
- **삶의 중요한 차원:** 아동·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중요 영역으로 설정
- **시간적 흐름:** 생애주기 중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현황

영역	세부영역	연령	
		아동	청소년
합계		157	158
인구·사회 배경	인구	9	6
	사회 정책	21	20
합계		30	26
생활영역	물질적 수준 및 환경	19	19
	건강	18	16
	학습·발달	26	25
	여가·활동	15	20
	안전·행동	10	18
	관계	31	26
	주관적 웰빙	8	8
합계		127	132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표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인구	인구 구조	1	아동·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	
		2	학령인구	○	○	
		3	가족구조	○	○	한국아동패널연구
	인구 추계	4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	○	
	인구 동태	5	출생아수	○		출생통계
		6	혼외 출산율	○		
		7	모의 출산연령	○		출생통계
		8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혼율	○	○	
		9	아동·청소년 사망률	○	○	사망원인통계
사회정책	아동·청소년 정책 예산	10	GOP대비 아동·청소년 정책예산 비율	○	○	사회보장통계
	사회정책	11	아동수당 지급 비율	○	○	보육통계
		12	양육수당비율	○		
		13	누리과정 지원률	○		
		10	GOP대비 아동·청소년 정책예산 비율	○	○	사회보장통계
		11	아동수당 지급 비율	○	○	보육통계
		12	양육수당비율	○		
		13	누리과정 지원률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31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표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사회정책	사회정책	14	보육료지원률	○		
		15	기초보장 수급 비율	○	○	
		16	아동·청소년 1인당 의사 비율	○	○	의료통계
		17	아동·청소년 1인당 교사 비율	○	○	교육통계/보육통계 한국청소년패널연구
		18	보호대상아동발생비율	○	○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19	대안양육 배치 비율	○	○	보건복지통계연보
		20	국내외 입양 비율	○	○	중앙입양위원회
		21	평균 아동양육시설 보호기간	○	○	
		24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 비율	○		교육기본통계
		25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비율	○		교육기본통계
	인프라	26	초등학교 비율		○	교육통계
		27	청소년 1인당 청소년시설 비율		○	여성가족부업무참고자료
		28	청소년 1인당 학교 밖 비율 센터 비율		○	여성가족부업무참고자료
		29	청소년 1인당 쉼터 비율		○	여성가족부업무참고자료
		30	학급당 학생수	○	○	교육기본통계
		31	대안학교 (유/초/중/고)	○	○	
		32	Home schooling	○	○	
		33	방과후 아카데미	○	○	
		34	지역아동센터	○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32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지표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경제적 수준 및 환경	빈곤	35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	○	아동종합실태조사 청년 사회 경제적 조사
		36	교육적 결핍(educational deprivation)	○	○	
		37	아동도서 10권 미만 가구의 비율	○	○	
		38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걱정 정도	○	○	아동종합실태조사
		39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	○	○	가계금융복지조사
		40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빈곤갭	○	○	가계금융복지조사
	생활수준	41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실직 비율	○	○	경제활동인구조사
		42	가족풍요도 (family affluence)	○	○	아동종합실태조사
		43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	○	○	가계금융복지조사
	주거환경	44	가구원 1인당 방 수	○	○	
		45	주거 과밀(Overcrowding) 정도	○	○	주거실태조사
		4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아동·청소년 비율	○	○	
		47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	아동종합실태조사
		48	지역사회 편의(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	○	○	
		49	1년 동안 이사를 한 경험	○	○	아동종합실태조사
		50	↳ 전학비율이 있다면 더 좋은 지표임	○	○	
		51	거주기간	○	○	인구주택총조사
		52	동네의 놀이 공간 여부	○	○	아동종합실태조사
		53	공기오염 정도	○	○	사회조사 환경부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지표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건강	정신건강	54	부모의 우울 정도	○	○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아동패널
		55	부모의 신체적 건강 관련	○	○	아동종합실태조사
		56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57	우울한 감정 경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58	자살생각 경험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59	자살률		○	사망원인통계
	신체건강	60	조산비율	○		
		61	저체중 출산 비율	○		출산통계
		62	장애유형별 출현율	○		
		63	체격(신장/체중/가슴둘레)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64	과체중과 비만(BMI)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보고서
		65	자기보고 건강상태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또는 사회조사(13세 이상)
		66	수면시간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또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인권실태조사, 영유아생활시간조사
		67	만성질환 아동·청소년 비율	○	○	진료비통계연보, 국민건강영양조사
		68	치아건강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구강건강조사
		69	입원	○	○	진료비통계연보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영역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건강	건강행동	70	모유수유	○		출산력조사, 한국아동패널
		71	영유아 건강검진비율	○		
		72	예방접종비율(measles, DPT, polio)	○		보육실태조사, 질병본부
		73	영양(섭취)/영양결핍	○	○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아동패널
		74	규칙적 식사(아침식사)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75	규칙적 운동 실천율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학습·발달	학습	76	유치원, 보육시설 취원율	○		보육통계, 교육통계, 보육실태조사
		77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		보육실태조사
		78	교육 진학률	○	○	교육기본통계
		79	학업 중단률		○	인권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교육통계
		80	사교육 참여율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81	사교육 시간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82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	○	○	
		83	책임어 주기	○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아동패널
		76	유치원, 보육시설 취원율	○		보육통계, 교육통계, 보육실태조사
		77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		보육실태조사
		78	교육 진학률	○	○	교육기본통계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35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영역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학습	79	학업 중단률		○	인권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교육통계
		80	사교육 참여율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81	사교육 시간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82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	○	○	
		83	책임어 주기	○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아동패널
		84	학교생활 만족도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85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86	학교시설 만족도	○	○	사회조사
		87	학교주변환경 만족도	○	○	사회조사
		88	선생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89	교사 만족도	○	○	
		90	학업스트레스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한국아동패널조사
		91	진학 희망 분야	○	○	진로교육현황조사
		92	학교, 시설(어린이집)에 가기 좋아하는 정도	○	○	
		93	학업몰입도		○	
		94	학습시간(공교육, 사교육 포함)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95	교육성취: 읽기, 수학, 문제해결 역량 및 격차(PISA)	○	○	PIAAC, ICSS 활용
		96	자발적 학업 성취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발달	97	resilience	○	○	
		98	수용어휘력/표현어휘력	○	○	
		99	self-regulation	○	○	
		100	자기효능감	○	○	아동종합실태조사
		101	이타심	○	○	PIAAC, ICSS 활용
		102	관용	○	○	PIAAC, ICSS 활용
		103	공감능력	○	○	PIAAC, ICSS 활용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36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요역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여가 및 활동	104	장난감 보유 정도	○		한국아동패널연구
		105	가족과의 경험(외식, 문화, 친척 방문)	○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
		106	놀이 시간	○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
		107	놀이 공간 확보	○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
		108	여가 동반자	○	○	
		109	여가활동	○	○	
		110	시간사용 만족도 및 시간사용 자유		○	
		111	여가시간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12	여가 만족도	○	○	
		113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	○	
		114	문화 및 여가 시설의 이용 접근 가능성 및 질적평가	○	○	
		115	매체 관련 활동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16	애완동물(여부 및 관계)	○	○	
		117	방과 후 활동(학교 밖 활동)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혹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회 경제적 참여	118	부모님 돕기(심부름하기)	○		
		119	친구들과 일정하게 모임	○		
		120	일하는 청소년 비율(학교 유형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21	자원봉사/기부 참여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22	종교활동		○	
		123	동아리 및 클럽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24	청소년 NEET 비율		○	
		125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		○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요역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참여경험 및 의식	126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27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 비율		○	
		128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29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도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위험 및 행동	130	혼자있는 시간 정도	○		
		131	흡연 경험 비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32	음주 경험 비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33	마약 경험 비율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34	약물사용경험비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35	10대 출산, 낙태 비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36	10대 성관계 비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37	비행·범죄 경험		○	
		138	왕따 경험(가해), 매체 경험 포함		○	
		139	학교폭력(가해)		○	
		140	아동 가출	○	○	
		141	혼자있는 시간 정도	○		
	안전	141	가정 내에서의 안전(체벌 경험 비율)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42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안전사고 등)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43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44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사망률	○	○	
		145	아동학대 유형별 신고율 및 발생률	○	○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영역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안전·환경	위해 환경 접촉	146	스마트폰 과의존	○	○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147	유해물질 가정 내 유무	○	○	
		148	스마트폰 소유여부	○	○	
		149	유해매체 노출 및 이용	○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46	스마트폰 과의존	○	○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147	유해물질 가정 내 유무	○	○	
		148	스마트폰 소유여부	○	○	
		149	유해매체 노출 및 이용	○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49	유해매체 노출 및 이용	○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관계	가족관계	150	주양육자 여부	○		
		151	친부모 동거 여부	○		한국아동패널
		152	부모와의 애착 정도	○		
		153	결혼만족도	○	○	한국아동패널
		154	가족상호작용(응집성, 유연성)	○	○	
		155	아버지의 양육 참여	○		
		156	가족내 교칙	○	○	
		157	가족 가치	○	○	
		158	가족관계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59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	
		160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	○	
		161	부모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아동·청소년 비율	○	○	
		16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의 비율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63	맞벌이 가구 자녀비율	○	○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영역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관계	또래관계	164	또래관계 상호작용	○		한국아동패널
		165	또래관계(급우, 교우관계 포함)	○	○	
		166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 존재 비율	○	○	사회조사 또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67	또래관계 만족도	○	○	
		168	친구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	○	○	
		169	친구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	
	지역사회	170	일반적 대인관계 정도	○	○	
		171	일반적 대인관계 인식	○	○	
		172	이웃관계 만족도	○	○	
		173	이웃에 친구 여부	○	○	
		174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75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76	지역사회 만족도	○	○	
		177	사회신뢰도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78	이웃의 지원 가능	○	○	
		179	지역사회 이용 시설 만족도	○	○	
		180	주변에 대한 관심	○	○	

제3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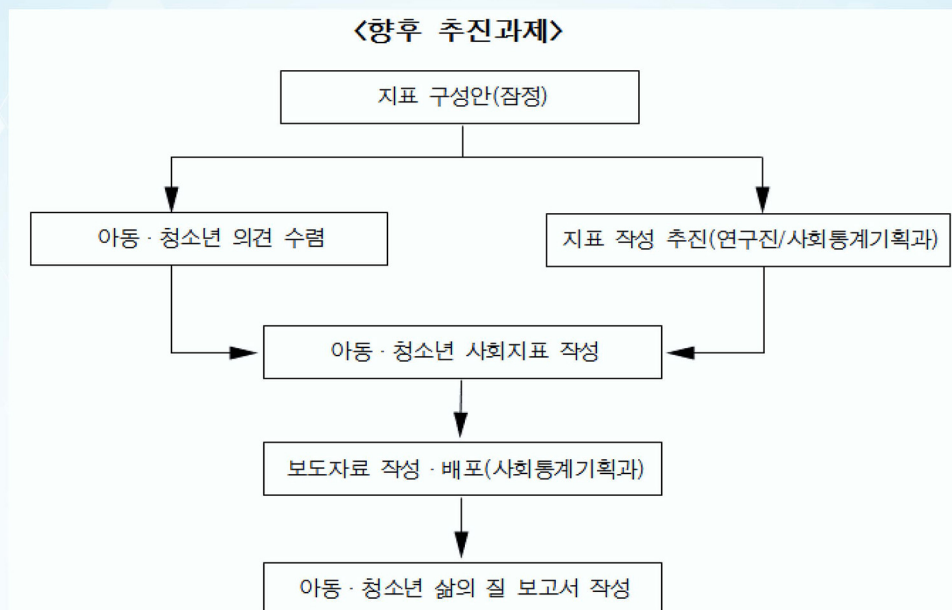
3. 지표체계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방법

요	세부영역	No.	지표명	연령		출처
				아동	청소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181	행복감	○	○	한국아동패널
		182	전반적 만족도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83	영역별 삶의 만족도	○	○	
	긍정/부정 감정	184	기질			한국아동패널
		185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유데모니아	186	삶의 의미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87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	○	
	개인만족도	188	삶에 있어서의 성취(Achieving)	○	○	
		189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	

제4절 향후계획

1. 향후과제



제4절 향후계획

1. 향후과제

●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학교급(초등, 중, 고등, 대학생)별 의견수렴 필요

- 집단 좌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실시

필요시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체계 구축

- 학부모, 아동청소년 정책관계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개최

제4절 향후계획

1. 향후과제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작성

➤ 대상연령 : 0~24세

- 연령세분화 : ISCED Levels(국제표준교육분류)를 활용
- Level 0: 초등 전(0-5세), Level 1: 초등 (6-11세)
Level 2~3: 중고등(12-17세), Level 4(17-24세): 대학 이상

➤ 세분화 변수 : 성, 연령, 학교급, 지역, SES 등(표준화 준수)

➤ 구축연도 : 2000년 이후~(사회통계 구축 인프라 고려)

➤ 지표작성

- 메타데이터 작성 및 지표통계표 작성

제4절 향후계획

2. 활용방안

● 아동·청소년 지표 및 보고서 작성

- (사회통계기획과) '아동청소년 사회지표'의 프레임워크로 활용
- (삶의 질 측정) 향후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로 활용
- (보고서 작성) '아동·청소년 웰빙 보고서' 작성에 활용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가 작성(통계청)되면 이를 활용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작성에 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19년)로 제출예정('18년 12월)

감사합니다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와 시사점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Young Adult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hun Kim(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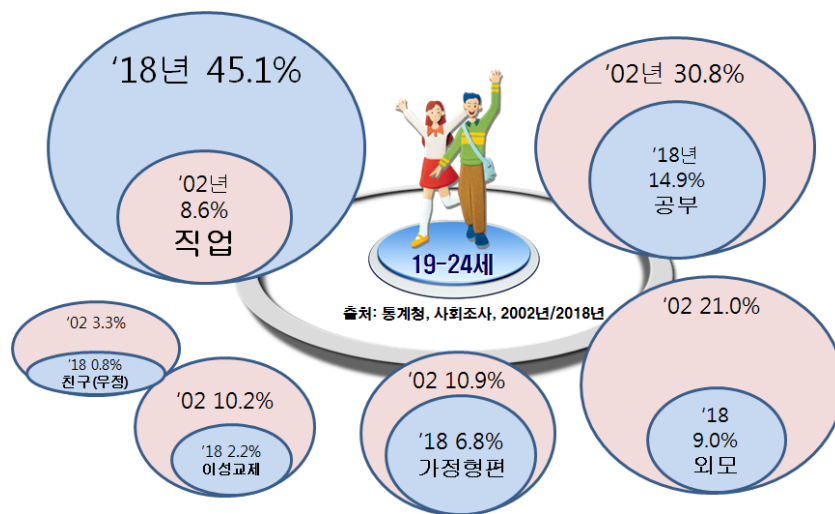
Provid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young adults face is imperative to raise their levels of happines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this paper, we pinpoint issues of young adults based on the Social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utilize a variety of research data to examine the state of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of young adults, then present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hile youth unemployment,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young adults, has been declining globally, overall employment indicators in Korea have remained weak. Relating to the issue of education, while the trend of overeducation has faltered, educational background remains important in Korean society; therefore, it can be foreseen that excessive competition in university entrance exams will continue. In terms of relationships, young adul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re improving but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is no longer thought essential by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adults. Furthermore, they are participating less in group activities. They report an extremely low sense of well-be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ave a greater tendency of experiencing feelings of depression, and feel that wealth and economic power is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a life cycle approach as well as develop indicators and indices that help comprehend the overall current state of young adults in order to improve their sense of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Finally, it proposes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se young adults in implementing policies that affect them.

I. 서론

현재의 청년들이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02, 2018)에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나 직업(취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도 19~24세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선택하고 있다.



자료 : 통계청(2002, 2018), 사회조사.

【그림 1】 청년(19-24세)들의 주된 고민거리(2002/2018)

그렇다면 과거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공부나 직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하고 있을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조사 결과는 2002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이다. 이 조사 결과에서도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30.8%)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은 8.6%에 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부나 직업과 같이 의무적인 생활시간과 관련된 응답 결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외모나 연예를 고민하거나 가정과 친구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외모나 용모는 응답자의 21.0%와 10.2%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하고 있으나 2018년 외모나 용모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한 청소년 9.0%, 2.2%로 크게 낮아졌다.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하거나 준비하겠다는 마음자세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표현일 수 있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감정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현재의 청년들이 전자의 입장을 주로 갖든 아니면 후자의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직업과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공부의 동질성 문제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와 관련된 것이며 청년기에 당연히 고민해야 할 미덕이자 동시에 타인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곧, 현재의 청년들은 지

긱지긱한 입시경쟁을 끝내자마자 취업 경쟁을 대비하든 회피하든 미래의 새로운 경쟁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여유와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재의 청년들도 의연 중에 깨닫고 있는 시대 인식을 반영한다. 곧, 오늘의 청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주목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양한 조사 자료들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청년 연령 정의는 통상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는 기준에 따르되, 10대와 20대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에 15-19세와 20-29세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I. 우리나라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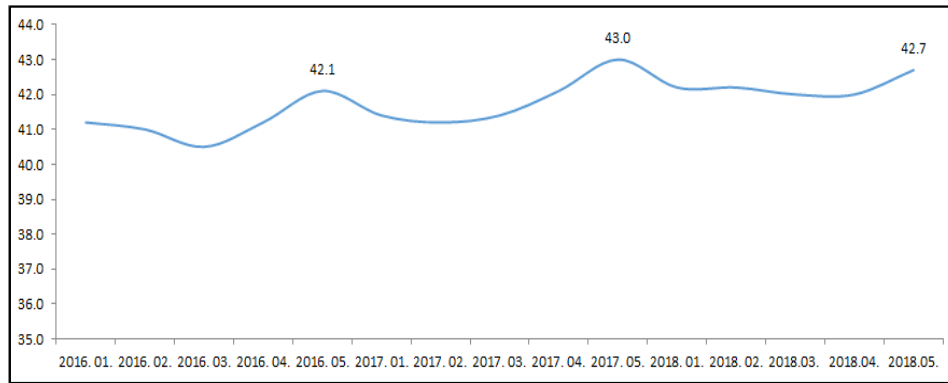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취업¹⁾

가장 주된 고민거리인 직업이나 취업 문제는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실태를 주요 고용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청년 청년 고용 현황을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참여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40% 중반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4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률은 2018년 5월 10.5%로 비교대상 시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추세나 주요국들과는 달리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후기청년 실업률이 4.3%p나 증가해 역주행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의 실업률은 2018년 5월 10.5%로 비교대상 시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추세나 주요국들과는 달리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청년 실업률이 4.3%p나 증가해 역주행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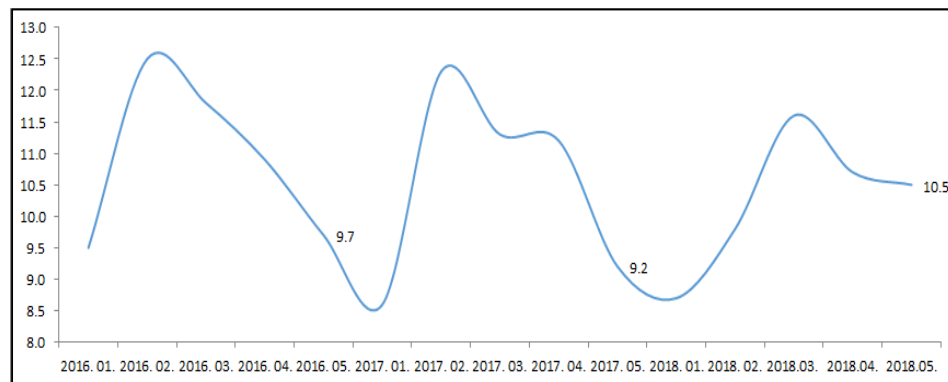
1) 이 절은 경상북도에서 개최한 청소년정책관계자 워크숍(2018년 11월 16일,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시청각실)에서 발표한 김기현의 '후기 청소년의 직업준비와 진로설계'의 내용 중 일부를 가져온 것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추출)

* 출처: 김기현(2018)

【그림 2】 한국의 15-29세 최근 월별(1월~5월) 고용률 추이(%, 2016.1~2018.5)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추출)

* 출처: 김기현(2018)

【그림 3】 한국의 15-29세 최근 월별(1월~5월) 실업률 추이(%, 2016.1~2018.5)

전년대비 청년 일자리 수는 매년 마이너스 추세를 보여주다가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나 2017년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는 고용 사정보다는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2017년 이후 감소 역시 이 세대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통계청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부가조사 자료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중에서 졸업이나 중퇴 이후 취업 경험 여부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5월 조사에서 90.7%가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취업 경험 비중이 낮아져 2017년 5월 현재 86.8%만이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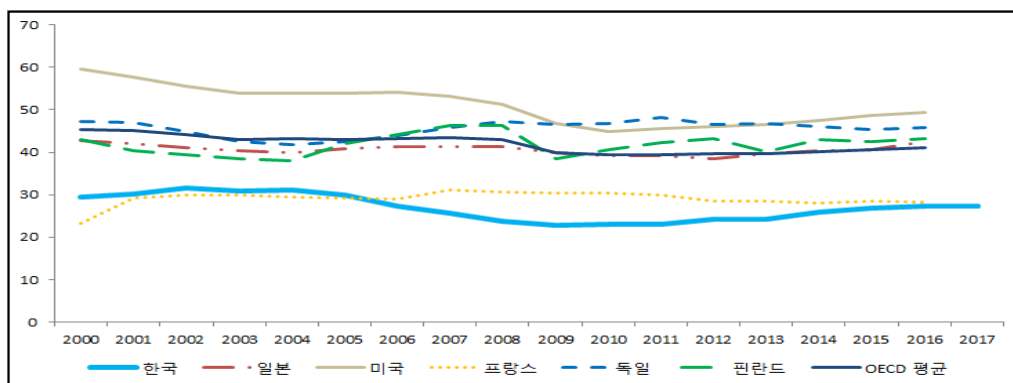
한국에서 청년들이 첫 취업을 하는데 평균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청년층이 첫 취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거의 1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취업 후 해당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5월 조사에서 계속 근무 중인 청년을 제외하고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청년층의 평균근속기간은 17개월이었으나 2017년 5월 조사에서 15개월로 두 달이나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에 취업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기간도 매우 길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4년제 대졸자들의 졸업 소요기간은 5년 이상이고 대졸자들의 휴학 경험 비중도 2008년 5월 조사에서 38.2%였으나 2017년 5월 조사에서 43.2%로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자체를 유예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취업한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적인 임금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소득이 높은 40세에서 44세 장년층의 월평균 임금 총액을 100으로 삼을 때 25-29세 청년층의 상대임금은 장년층 대비 1995년 73.6%(110만원/81만원)에서 2014년 67.1%(274만원/184만원)로 상대임금이 낮아졌다. 취업한 일자리의 질과 관련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는 비정규직 비율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5.9%에서 2014년 32.4%로 낮아졌으나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33.5%에서 34.6%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고용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고용지표 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지표별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청년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스(Youth)의 연령은 15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년 고용 현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 중반 수준으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높지만 대다수 비교대상국가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률 역시 국제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이 2016년 현재 41.1%인데 반해서 한국은 27.2%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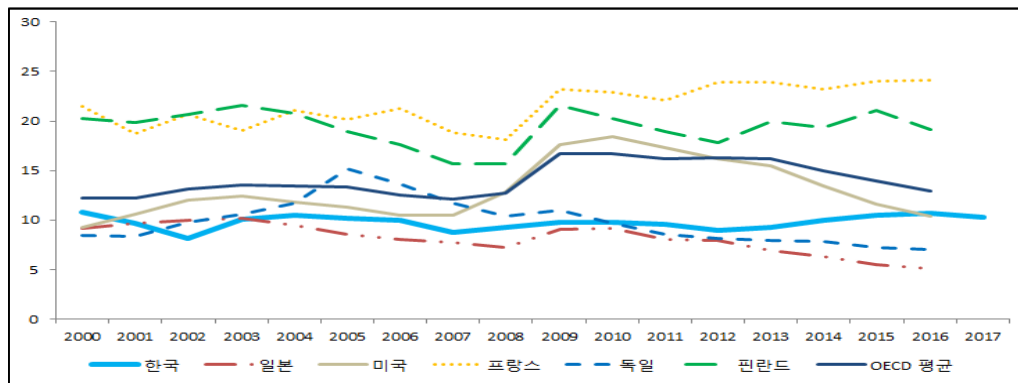


* 자료: OECD(각 년도), Employment Outlook.

* 출처: 김기현(2018)

【그림 4】 한국과 OECD 주요국 15-24세 고용률 추이(% , 2000-2016)

한국의 후기청소년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6년 현재 OECD 평균이 12.9%로 한국(10.7%)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실업률에 있어서도 한국은 독일과 일본과는 달리 실업률이 낮은 국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다.



* 자료: OECD(각 년도), Employment Outlook. 세부적인 수치는 <부록표 1> 참조

* 출처: 김기현(2018)

【그림 5】 한국과 OECD 주요국 15-24세 청년 실업률 추이(% ,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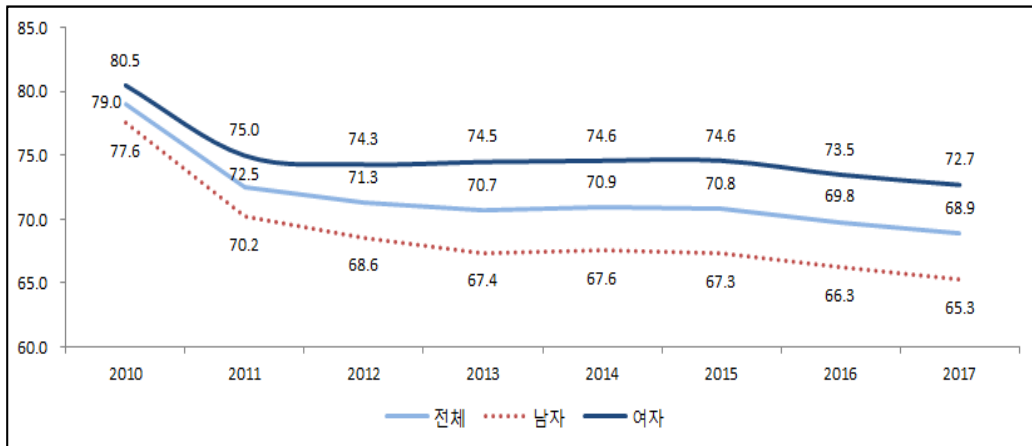
실업률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중장년 대비 청년층 실업률의 수준이다. 중장년 대비 청년 실업 배율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몇 가지 고용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1년 미만으로 이직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70% 이상으로 OECD 평균은 물론 비교대상 국가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하고 있지만 힘들게 취업한 직장 에서 1년 이상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대비 청년층의 상대적인 수입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중장년이 100일 때 40% 중반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국가 중 상당수가 중장년과 청년층의 수입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늘어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청년들의 교육²⁾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관문이전에 입시라는 장벽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대학 진학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두 번째로 큰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중압감은 취업에 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입시경쟁이 완화될지 모른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2010년 대학진학률은 79.0%였으나 2017년 68.9%로 10%p나 낮아졌다. 해마다 1%p 씩 낮아 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이 절은 김기현·이윤주·유선희(2017)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최근 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치를 찾아 기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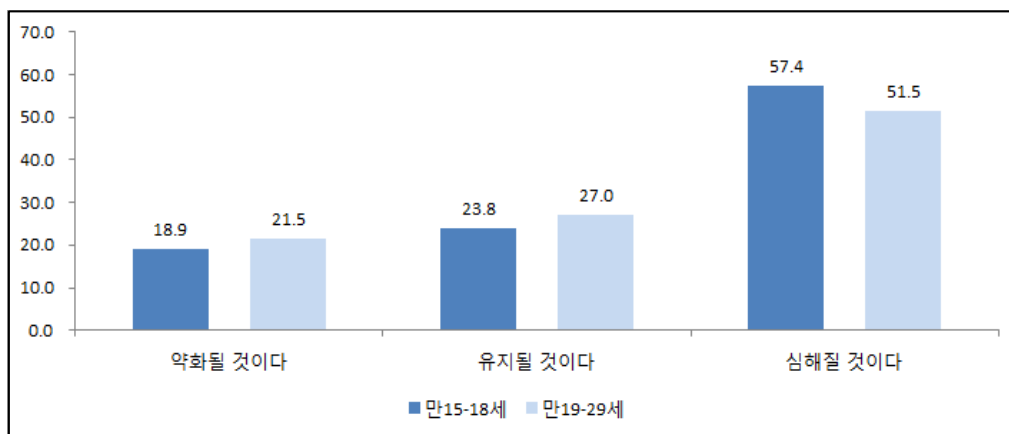


*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출처: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2017). 2017년 결과를 추가함.

【그림 6】 한국의 대학 진학률 추이(%), 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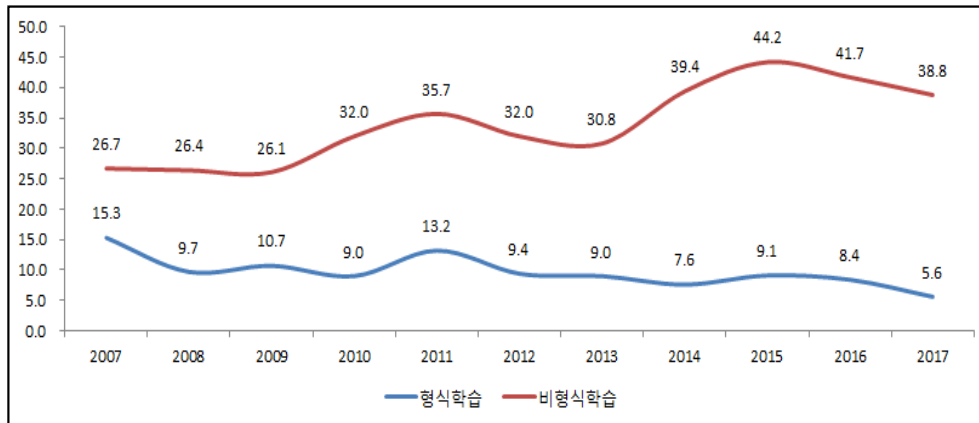
대학 진학률의 감소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입시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에게 2025년 입시경쟁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보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입시경쟁이 미래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보다 10대 응답률이 더 낮았고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0대 응답률이 더 높았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7】 2025년 입시경쟁에 대한 응답결과(2017)

이는 입시경쟁에 직면한 10대들이 좀 더 이 문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입시경쟁이 완화되었다고 체감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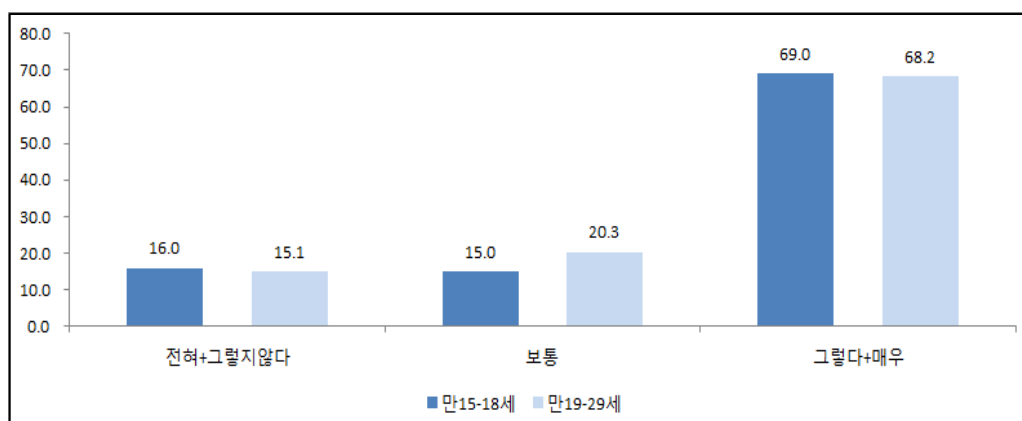


*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출처: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2017). 2017년 결과를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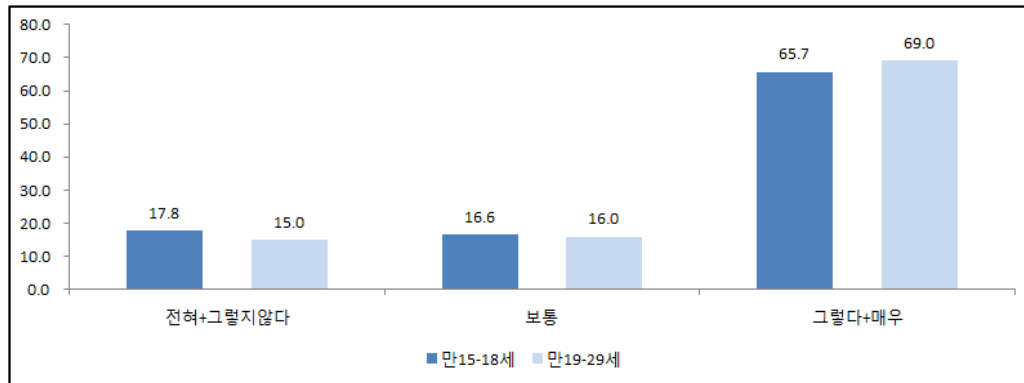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의 25-34세 평생학습 참여 추이(% , 2007-2017)

대학 진학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며 진학률이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학에 가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입시지옥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입시경쟁을 보여주었던 일본 역시 청년들의 의욕 저하와 부등교, 은둔형 문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계속 지금처럼 대학진학률이 낮아진다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정반대의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와 관련 평생학습 추이를 보면, 대학원 진학 등을 의미하는 형식학습은 대학 졸업 직후부터 10년간인 25-34세의 경우 갈수록 낮아져 2007년 15%가 넘었던 참여비율이 5.6%까지 떨어졌다. 비형식학습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2015년까지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17년 38.8%까지 낮아졌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그림 9】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 2017)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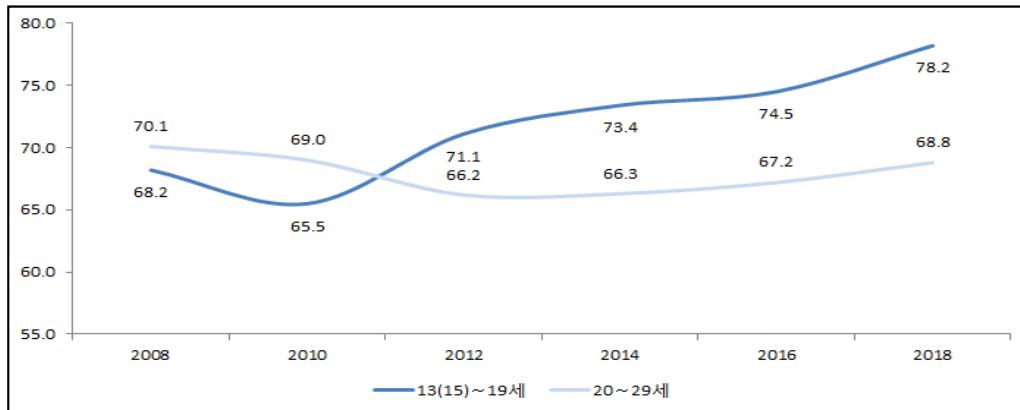
【그림 10】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 2017)

우리사회에서 학력이나 학벌의 중요성이 여전하다면 청년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청년들에게 이를 물어본 결과, 학력이나 학벌이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학력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로, 학벌은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로 물어보았다. 이에 동의하는 정도는 학력이나 학벌 모두 70% 가까이 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학력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대의 경우 학벌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교육을 부담스러워 하고 중압감을 느끼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청년들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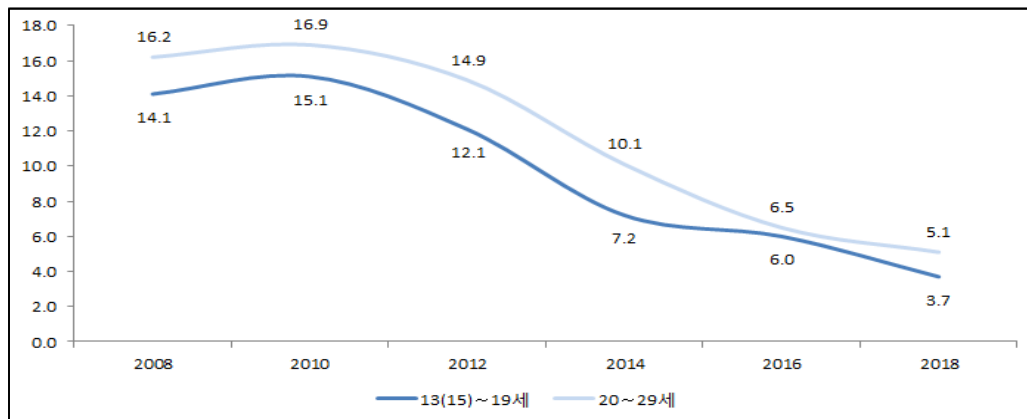
인간관계는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청년들의 고민거리에서 응답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외모나 연애를 비롯하여 가족이나 친구관계 등은 여전히 고민거리 중 하나로 존재한다. 인간관계 중 어렸을 때는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어서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청년기에는 이성관계가 중요해진다.

먼저 청년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사회조사에서 만족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대의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2008년보다 2018년 10%p나 높아졌다. 20대의 경우 소폭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줄어들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측면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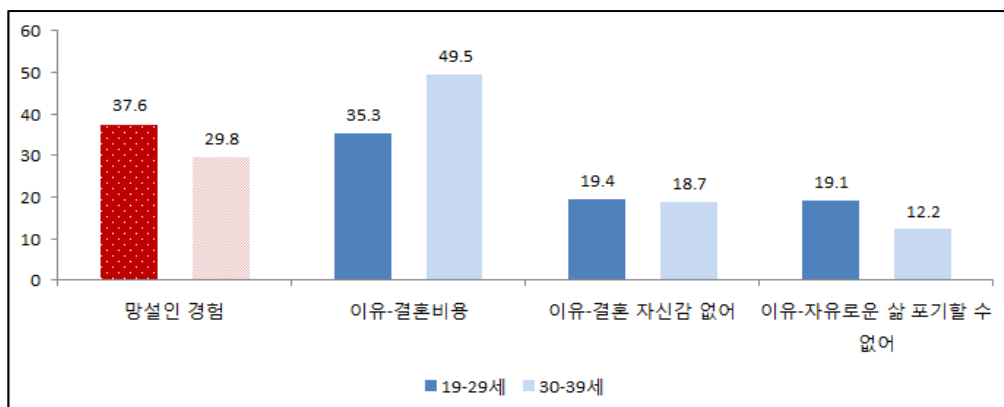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2010년까지는 13세가 아닌 15세~19세 결과임.

【그림 11】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 2008-2018)



* 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2010년까지는 13세가 아닌 15세~19세 결과임.

【그림 12】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 추이(% , 2008-2018)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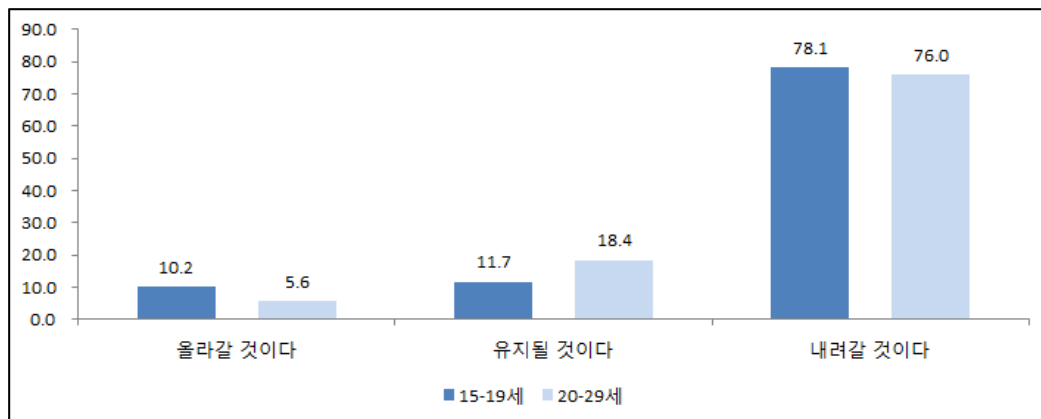
【그림 13】 결혼 준비 중 망설임 경험여부와 망설임 이유(% , 2017)

청년들의 이성과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생애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결혼관의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감소하고 있다. 10대와 20대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으며

최근 들어 20대의 감소폭이 더 커 둘 간의 응답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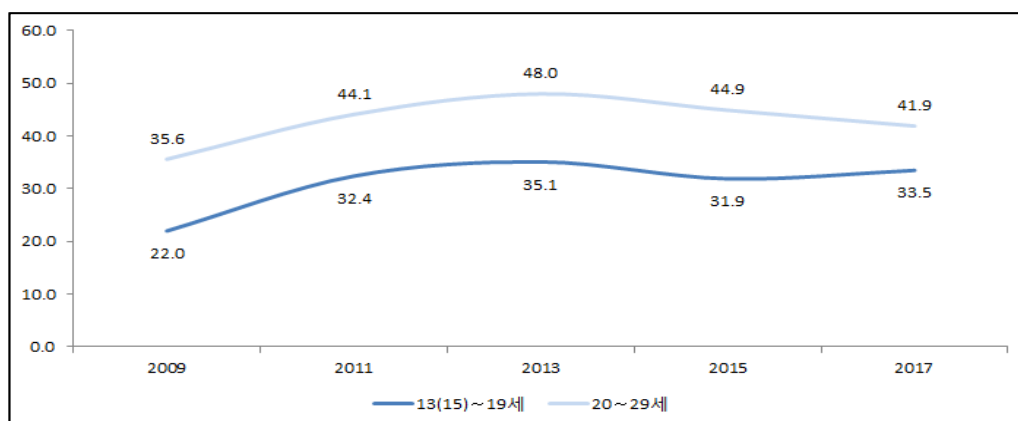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20대와 30대에
게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20대의 37.6%와 30대의 29.8%가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왜 결혼을 망설였는지 물어본 결과, 결혼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35.3%,
49.5%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을 망설인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출산율
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청년들에게 2025년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를 질문해 보았는데
10명 중 7명 이상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14】 2025년 출산율 전망에 대한 결과(% , 2017)



* 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2010년까지는 13세가 아닌 15세~19세 결과임.

【그림 15】 단체활동 참여비율 추이(% , 2009~2017)

이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에서 단체활동 참여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10대와 20대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체활동 참여비율은 10%p 이상 증가했으나 그 이후 다시 낮아져 10대는 40% 초반대를, 20대는 30%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4.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어떤 수준인지를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연령세대를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15-29세의 결과를 토대로 젊은 세대의 행복감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가장 최근의 세계가치조사는 2015-2018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 바로 전이 7차 조사(wave 7)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에 대해서 한국의 15-29세는 15.7%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독일은 26.8%, 일본은 30.4%, 미국은 35.9%, 스웨덴은 41.4%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국가 평균은 36.2%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행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표 1〉 연령대별 행복감 국제비교(2011-2014)

(단위 : %)

국가명	연령집단				국가명	연령집단			
	전체	-29세	30-49세	50세-		전체	-29세	30-49세	50세-
호주	34.9	37.3	33.4	34.6	뉴질랜드	33.7	34.0	31.3	35.4
칠레	24.4	34.7	22.7	19.7	페루	35.1	39.5	34.0	31.0
중국	15.7	16.1	15.6	15.6	필리핀	49.6	51.8	52.5	44.1
대만	26.0	28.0	23.3	27.8	폴란드	22.2	29.0	21.2	20.0
독일	26.0	26.8	27.9	18.5	러시아	14.8	21.1	15.1	10.6
가나	51.0	54.5	46.9	46.2	싱가포르	39.1	32.2	36.9	45.1
이라크	10.5	14.1	8.6	8.0	스웨덴	40.5	41.4	39.6	40.7
일본	32.3	30.4	35.1	30.9	터키	37.5	34.1	37.9	40.4
한국	15.2	15.7	18.1	11.2	이집트	5.3	6.7	2.5	8.2
말레이시아	56.6	58.6	54.3	58.4	미국	36.1	35.6	35.8	36.5
멕시코	67.5	70.1	68.6	60.3	-	-	-	-	-
네덜란드	31.9	36.3	33.6	30.4	국가평균	32.2	36.2	32.0	29.7

자료 : The World Values Survey(<http://www.worldvaluessurvey.org>)

청년들의 행복감은 조사 국가 평균에서 가장 높고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들의 행복감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30-49세의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연령세대 중 행복감에 있어서 30-49세의 행복감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일, 일본, 필리핀 등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편적으로 청년들의 행복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고 가족(부양)이나 사회(책임)의 부담이 가장 덜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한 조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사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염유식 외, 2018).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이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청년 행복감을 토대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연구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UNICEF)에서 실시한 웰빙지수를 활용해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표 1〉은 행복지수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6가지 영역별로 긍정적인 분야와 부정적인 분야의 패턴 자체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행복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점수를 보면, 교육 분야는 크게 낮아진 대신, 주관적 행복감은 크게 높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관적 행복점수가 다른 영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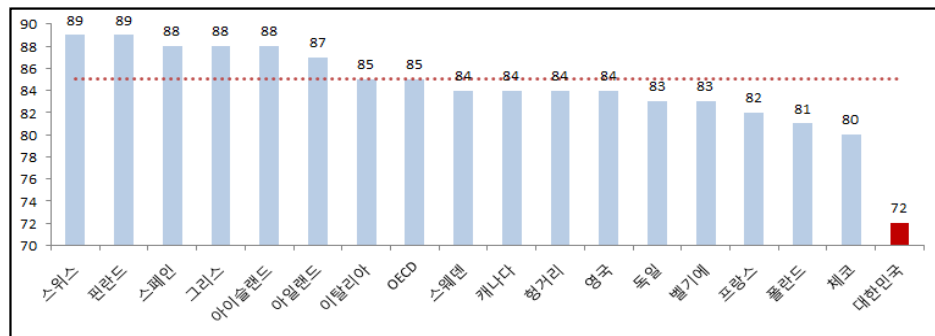
〈표 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2009-2018)

(단위 : %)

구 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년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년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년	110.7	102.6	127.8	96.1	129.3	66.0
2012년	110.1	102.6	133.9	97.7	126.6	71.4
2013년	110.8	108.4	122.9	95.1	129.1	72.5
2014년	111.9	111.1	122.2	98.9	128.8	74.0
2015년	114.4	110.7	114.5	106.1	135.7	90.4
2016년	112.4	113.0	114.5	104.8	129.8	82.0
2017년	115.3	112.5	112.0	111.9	126.4	87.6
2018년	114.2	110.7	107.9	114.5	126.2	94.7

주: OECD 국가의 평균 100점(표준편차 10점)을 기준으로 국가별 상대적 점수 도출, 2009년 행동과 생활양식에 대한 측정지표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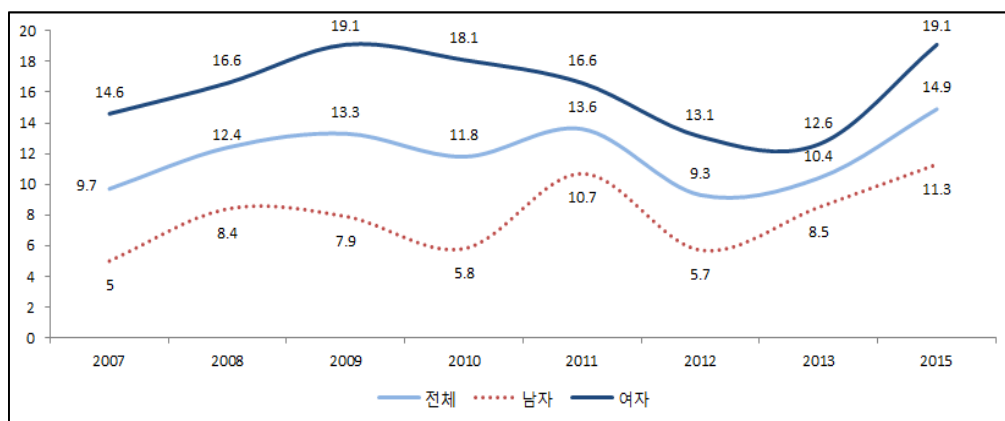
출처: 염유식 외(2018)



* 출처: 염유식 외(2018)

【그림 16】 한국 어린이·청소년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점, 2017)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주관적 행복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핵심지표인 삶의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16]과 같다.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대상 23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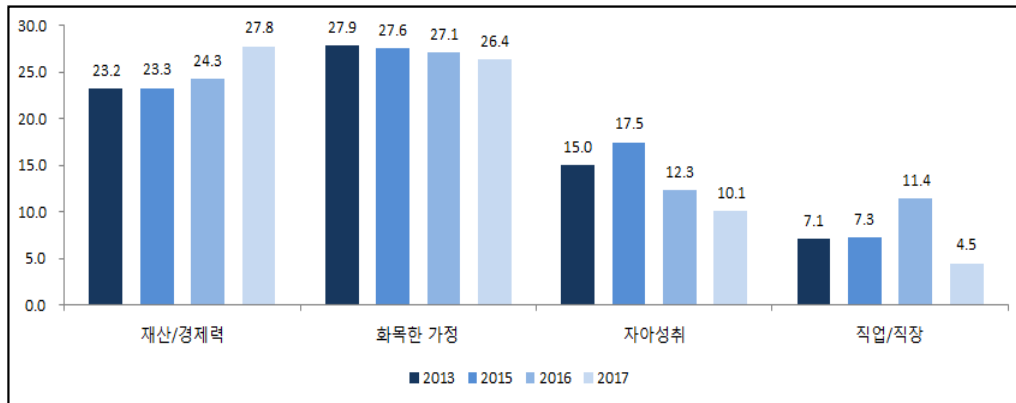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년도).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 출처: 김기현·이윤주·유설희(2017). 2015년 결과를 추가함.

【그림 17】 한국 19-29세 우울감 경험을 추이(% , 2007-2015)

청년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반대 개념 중 하나인 우울감 경험률을 통해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19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9.7%에서 2015년 14.9%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고 특히 여성의 우울감이 2012년까지 하락한 후 2015년 19.1%로 비교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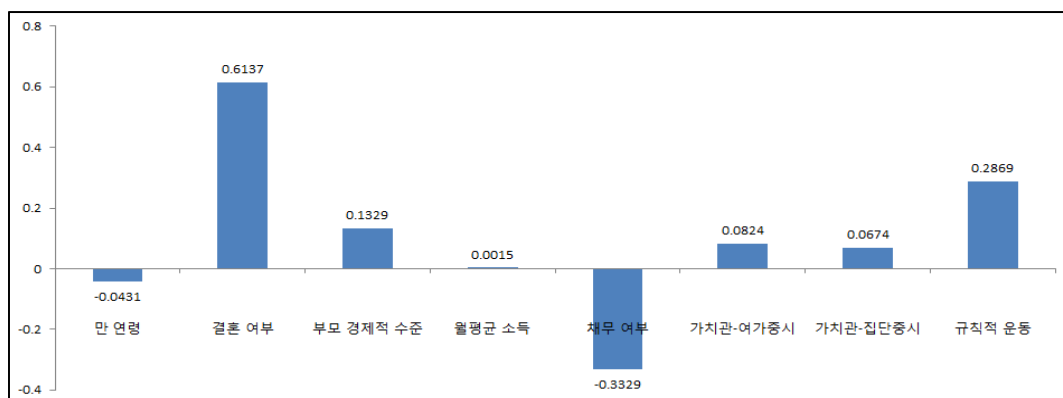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기현·이윤주·유선희(2017).

【그림 18】 행복을 위한 요건 응답 비중 추이(% , 2013-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에게 행복을 위한 요건 중 가장 주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질문은 2013년 조사에서부터 포함된 것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줄곧 첫 번째 요건으로 화목한 가정이 1순위였지만 2017년 조사에서 재산/경제력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자아성취가 2017년 조사에서 세 번째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과 비교해 응답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직업/직장은 전년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청년들의 취업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당사자인 청년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손연정(2018).

【그림 19】 행복 요건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계수)

손연정(2018)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행복 요건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행복 요건 충족도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이상이면 1, 4점 미만이면 0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부모의 경제적 수준, 동거여부, 취업자 여부, 소득, 채무 여부, 선호하는 가치, 건강, 관계, 정치적 효능감 등이었다. [그림

19)는 행복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만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령과 채무 여부는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을 했거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거나 가치관이 여가나 집단을 중시할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경우 행복 요건 충족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시사점

이 글에서는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청년들의 고민거리에서 출발하여 살펴보았다.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여전히 학업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중요한 인간관계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지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관련 통계청 승인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물론 사회조사처럼 모든 연령의 개인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해당 연령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프랑스의 청년지표(Minist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15)와 유럽연합의 청년지표(European commission, 2011),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청년지표(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 등과 같이 체계적인 통계지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은 아동 및 청소년기로부터 이어져 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생애전반기를 아우르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는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포괄하여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상별로 별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중앙부처들과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제출하며 아동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동정책의 정책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과 중복되고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상 청년이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어 청년과도 중복된다. 청소년정책이나 청년정책 역시 독자적인 과정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필연적으로 중복문제가 발생하며 통합적인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생애전반기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들은 이미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 문제 해

결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대상 중심 정책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대상 중심 정책은 해당 정책 대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 정책대상자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인 정책대상자가 참여할 때 비로소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정책들은 수요자의 실태 파악과 욕구에 기반하지 않고 추진된 측면이 있으며 청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다. 향후의 청년 정책은 당사자주의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기현(2018). 해외 청년 고용현황 및 정책시사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포럼 자료집(내부자료).
- 김기현·하형석·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이윤주·유설희(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연정(2018). 청년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 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분석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 염유식·김경미(2018) 2018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Report*.
- Minist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15). *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Retrieved August 3, 2016, <http://www.jeunes.gouv.fr/actualites/priorite-jeunesse/article/comite-interministeriel-de-la-5540>.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11). Retrieved August 4, <http://nces.ed.gov/>.

한국 노인가구의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

Family Tim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김주현(충남대학교 교수)
Ju-Hyun Kim(Ch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of time usag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ly households of over 65 years old living with only a spouse or living alone. The time diar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4 is useful to understand how Koreans spend 24 hours a day and to measure their life style and quality of life. The method of the survey was that respondents directly filled in the time-diary.

This study grasps the usage pattern of family time according to gender and type of elderly household and comprehends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group i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time use and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e weak points of each group's life satisfaction and provide basic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strategies.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가족시간(family tim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강성진, 2010). 아버지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가 가족과 집안을 돌보던 과거에 가정은 각 구성원들이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잘 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를 풀기 위한 지원적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 직업적 성공 못지않게 가족의 영역은 중요한 부분이 되어, 단란한 가족을 삶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졌다. 그래서 수입이 적더라도 퇴근시간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거나 가능한 가족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다(문유경, 강민정, 2003; Glorieux et al., 2011). 한국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2014년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371시간으로 가장 짧은 독일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매우 빠르게 보편적 가족 생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유배우 가구 1,178만 가구 중 42.9%인 505만5천 가구는 맞벌이부부였다. 2017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총 1,222만 4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약 545만 6천 가구로 집계되어 약 44.6%이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 영역과 가족 영역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 갈등을 느낀다(Gracia & Kalmijn, 2016).

가족시간의 부족은 개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Cha & Eun, 2014).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들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 요건이다. 가족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때문에 같이 나눌 경험과 기억이 부족한 부부 그리고 자녀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렵다(Milkie et al., 2004; Offer, 2013). 친밀한 가족관계의 결핍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형성에 치명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Ashbourne & Daly, 2012).

한편 은퇴 이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더욱더 가족 시간이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혼자서 보내는 여가시간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행복감과 관계만족도에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Roeters & Treas, 2011).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행위에서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다.

가족시간과 삶의 질은 광범위한 시간결핍 현상에 따라 가족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장승진, 2011; Roxburgh, 2006). 이에 따라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가족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넓혀주는 것은 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특정집단에 대한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견해는 계층, 문화, 집단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다. 자연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갖는 함의도 다를 수 있다. 그렇기 기존연구의 결론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적 측면에서

도 큰 장애가 된다. 정책입안자들은 가족시간의 긍정적 함의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더 강한지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강한지 알고 싶어 한다. 만약 집단별 차이를 알 수 있다면 정책적 노력을 더 집중해야 하는 집단도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시간과 삶의 질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 시간 자료를 활용한다. 생활시간 자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살펴보는 자료로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요한 활동을 포괄하여 가족생활과 삶의 질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고령자 부부 및 단독 가구의 가족시간 사용과 삶의 질의 차별성을 규명함으로써 집단 간 가족시간 사용 양상을 비교한다. 특히 가족 시간 사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 취약한지 파악한다. 지금까지 가족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가족 특성, 활동, 관계를 개별적 내용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는 가족생활의 각 연구 내용이 조형(造形)되어 나타나는 가족시간 사용이라는 복합적 내용으로 연구를 확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 또는 따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 시간 사용과 삶의 질

과거에는 월수입이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지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점차 개인의 시간사용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Bonke et al., 2009). 지난 2009년 OECD와 EU에서 GDP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것이나 캐나다의 삶의 질 지표(index of wellbeing)에 시간사용이 포함된 사실(Zuzanek and Zuzanek, 2015)은 삶의 질에 미치는 시간사용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Robinson and Martin(2008)은 삶의 질 관련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난 34년간 축적된 시간일지(time diary) 자료와 GS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가장 즐거운 활동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신문을 읽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6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수집된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간압박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생기는 것도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Robinson, 2013).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장기간 수집된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한 Zuzanek과 Zuzanek(2015)의 연구 역시 가족과 식사하기, 친구나 친척과 얘기하기, 다른 사람과 여가활동 즐기기과 같은 다

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이 가장 즐거운 활동으로 꼽혔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적 측면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즐거운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는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인데, 이 활동들은 단기적으로는 즐거운 활동으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감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자 하는 활동은 장기적으로는 행복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학자들은 개인의 만족감은 여가시간을 얼마나 가지며,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자아정체성을 높여서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Wang과 Wong (2014)는 33개국에서 수집된 ISSP 자료를 분석하여 여가와 행복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여가시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고, 여가시간에도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여가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만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TV 시청, 쇼핑, 독서, 문화행사 참석, 친척이나 친구와 시간 보내기, 음악 감상, 운동하기, 운동경기 시청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서유럽인들이 동유럽이나 남미인들에 비하여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Valente과 Berry (2015)은 남미와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남미의 기혼남성들은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보다 짧으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감이 늘어나는 반면 미국의 기혼남성들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행복감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남미의 가족주의적 성향과 미국의 개인주의적 성향, 미국의 경쟁적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 연구는 국가에 따라 시간 활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Halliwell과 Wang (2014)은 일상적으로 'blue monday'를 얘기하는데 요일별로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 주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 효과는 특히 남성, 기혼자, 취업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주말에 더 행복한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말에는 주중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7시간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 사용과 행복 관련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3.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삶의 질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가족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밝혀진 바 있다. 가령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의 화목’이 꼽힌다(김경미 외에서 재인용, 2012), 노인들의 삶의 만족감에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과 함께 식사를 자주하거나 잦은 전화통화, 여가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고령자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경미 외, 2012)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기혼자 부부를 대상으로 10년간 조사를 한 결과 역시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North et al., 2008). Daly (2001)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족시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고 있으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항상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죄책감과 불만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즉 가족시간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며, 이는 상당부분 노동시간과 자녀 양육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Klaveren와 Henriette의 연구(2007)는 네덜란드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부부가 어떻게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부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을 조절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미국의 생활시간 자료를 분석한 연구(Voorpostel et al., 2009; Glorieux et al., 2011)는 시간의 비중뿐만 아니라 시간 양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행복감이나 삶의 질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조사함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측정방법을 정교화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Kruger et al., 2009; Zuzanek and Zuzanek, 2015). 주관적 심리상태의 측정방법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보편적인 중요성은 여러 나라의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채 한 두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는 개인의 시간사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개인의 시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시간 자료조차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 단위로 수집된다는 제한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생활시간 자료가 가구 단위로 수집되는 나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살펴보는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시간자료를 활용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얼마나 길게 함께 하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Sullivan (1996)의 논문과 Flood와 Genadek (2016)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시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사, 휴식, 사교, 수면이 가장 즐거운 활동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 배우자가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자신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llivan, 1996).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부부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서로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개인의 만족감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간 사용,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주목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생활시간자료는 지난 1999년부터 가구 단위로 수집되었으며 2014년 생활시간자료에 처음으로 삶의 만족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는 노인 가구에서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삶의 만족감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시간의 중요성을 조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자료 및 변수와 분석 방법

(1) 생활시간조사와 변수

가족시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가 있다. 최근 조사된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한국인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민의 생활 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약 27,000명(전국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직접 시간일지(time-diary)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이다. 가구 및 개인 관련 조사항목 뿐만 아니라 9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로 나뉘는 자세한 행동분류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국인의 시간사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주요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이 조사되어 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함께한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에서는 ‘함께한 사람별 행위자 비율’이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 중 함께한 사람별로 행동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이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별로 특정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시간(‘함께한 사람별 행위자 평균시간’)도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식사시간, 여가활동, 가정관리에 집중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시간(family time)으로 분석에 포함하는 활동은 다음의 행동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다.

〈표 1〉 연구 대상 행위

연계 코드	행동 분류명	연계 코드	행동 분류명
T1	개인유지	T4	가정관리
T12	식사 및 간식	T41	음식준비
T14	기타 개인유지	T42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T7	교제 및 여가활동	T43	청소 및 정리
T72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T44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T73	종교활동	T45	차량 관리
T74	문화 및 관광 활동	T46	애완동·식물돌보기
T75	스포츠 및 레포츠	T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T77	기타 여가활동	T48	기타 가정관리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단독 및 부부가구)의 시간 사용의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고 생활만족도를 살펴볼 것이다. ① 혼자 있는 시간(주된 행동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주된 행동을 배우자와 함께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조사 참여자들이 혼자서 또는 가족들과 보낸 시간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동원하였다.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시간 제약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피곤에 대한 조사항목을 활용한다.

(2) 분석 대상의 기본적인 특징

〈표 2〉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집단을 다시 성별로 나눠서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고령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구분으로 보면, 남성노인은 64%가 65세에서 74세, 32.5%가 75세에서 84세, 3.5%가 85세 이상이다. 여성노인은 74%가 65세에서 74세, 24.9%가 75세에서 84세, 1.1%가 85세 이상이다. 교육수준은 남성노인은 34.8%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1.9%가 중학교 졸업 이하, 44.2%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노인은 62.1%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2%가 중학교 졸업 이하, 19.7%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75%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녀 모두 45% 정도가 자신의 건강을 보통으로 응답하였다(남: 46.3%, 여: 45.2%). 그렇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남성노인은 17.2%, 여성노인은 25.6%,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노인이 3.4%, 여성노인이 4.8%로 여성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았다. 분석 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특성을 보면, 남성노인 중 42.5%, 여성노인 중 28.8%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 중 45%를 전후로 하는 정도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3% 정도는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등으로 고령집단의 경제적 수준을 조사하였다. 60% 가까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30%정도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를 보면, 85%이상이 자가 상태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 가까이 되고, 100-200만원인 경우가 33% 남짓으로 전체의 60%이상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배우자 없이 살고 있는 노인들을 살펴보자.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했다. 일부는 결혼을 한 적이 없거나 이혼을 한 경우이다¹⁾. 먼저 연령분포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은 55.5%가 65세에서 74세이며 36.0%가 75세에서 84세이고 85세 이상은 8.5%이다. 배우자가 없이 사는 여성노인은 42.0%가 65세에서 74세, 45.5%는 75세에서 84세이고 85세 이상은 12.4%로 여성노인 중 고연령자가 더 많다. 앞의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 비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더 고연령이다.

교육수준은 남성노인은 49.1%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4%가 중학교 졸업 이하, 32.5%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학력수준이 매우 낮아서 83.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집단의 지역분포를 보면 앞의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약간 차이가 있다. 독거 남녀 노인은 대부분 도시 지역에 분포하여,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경우 90.1%, 여성 노인의 경우 88.8%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상태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고령 집단 보다 약간 높아서 남성노인은 50.2%, 여성노인은 45.8%이지만, 나쁨 이상의 부정적 평가에서는 남성노인이 26.9%, 여성노인이 32.9%로 응답하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에 비해서 나쁜 편이고, 여성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더 나쁘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남성노인 중 25.5%, 여성노인 중 21.5%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있는 고령집단에 비해서 농업 등 1차 산업에의 종사 비율은 줄고,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남성 노인은 56.9%, 여성 노인은 41.3%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을 보면, 남성노인 중 59.0%, 여성노인 중 57.2% 정도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고,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대 이다. 주택의 소유 형태는 배우자 있는 고령 집단과 비슷하여 반 이상은 단독주택이고, 아파트는 30% 정도이다. 그런데 주택 소유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고령집단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전체 중 자가인 경우는 남성 노인이 56.2%, 여성 노인이 68.7%이다.

1)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경우는 78.4%가 사별이고, 18.7%가 이혼, 독신자인 경우가 2.8%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경우는 전체의 대부분인 95.9%가 사별이고, 이혼이 3.3%, 독신자가 0.8%이다.

〈표 2〉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특징

(단위: %)

		배우자가 있는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남	여	남	여
연령	65-74세	64.0	74.0	55.5	42.0
	75-84세	32.5	24.9	36.0	45.5
	85세 이상	3.5	1.1	8.5	12.4
교육수준	초졸 이하	34.8	62.1	49.1	83.0
	중졸 이하	21.0	18.2	18.4	9.2
	고등학교 재학 이상	44.2	19.7	32.5	7.9
지역	동부	77.4	76.0	90.1	88.8
	읍·면부	22.6	24.0	9.9	11.2
건강상태	매우 좋음	3.4	1.7	3.9	1.7
	좋은 편	29.8	22.7	19.1	19.2
	보통	46.3	45.2	50.2	45.8
	나쁜 편	17.2	25.6	23.7	27.9
	매우 나쁨	3.4	4.8	3.2	5.4
경제활동상태	일을 하였음	42.5	28.8	25.1	21.4
	휴가 및 일시 휴직	0.7	0.1	0.4	0.1
	일을 하지 않았음	56.7	71.1	74.6	78.5
직종	관리자/전문가	7.5	2.3	4.2	2.5
	사무 종사자	3.4	0.6	1.4	0.6
	서비스 종사자	12.1	15.6	6.9	19.9
	단순 노무 종사자	33.0	33.8	56.9	41.3
	농업	44.0	47.7	30.6	35.7
주택 형태	단독주택(다가구, 원룸 포함)	58.4	60.5	56.5	59.7
	아파트	31.2	30.3	31.8	30.1
	연립/다세대 주택	8.6	7.4	11.7	9.2
	기타	1.7	1.8		1.0
주택 소유 여부	자가	86.5	85.9	56.2	68.7
	전세	6.1	6.0	16.3	12.3
	월세(반전세, 사글세 포함)	5.3	5.5	23.0	14.2
	무상주택	2.0	2.6	4.6	4.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8.7	33.1	59.0	57.2
	100-200만원	33.1	33.8	15.5	14.0
	200-300만원	15.5	14.4	11.3	10.6
	300-400만원	10.0	9.0	3.2	6.0
	400-500만원	5.5	4.2	6.7	4.1
	500-600만원	2.9	2.3	1.4	2.8
	600-700만원	1.4	0.8	1.4	2.1
	700만원 이상	3.0	2.5	1.4	3.1
전체 (명)		1,611	1,197	283	1,497

다음으로 65세 이상 고령 집단의 주관적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표 3〉). 먼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 진술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은 58.2%가 적극 또는 약간 찬성하는데 비해 여성노인은 45.8%가 적극 또는 약간 찬성한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61.8%가 48.3%가 남녀 고정적 성역할에 대해서 적극 또는 약간 찬성한다. 두 집단 모두에서 성차가 나타난다.

시간부족을 느끼는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은 18.3%, 여성 노인은 25.1%로 여성노인의 시간압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9.2%, 여성 노인은 11.2%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시간 압박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피곤함에 대해서 응답 상태를 보면, 조금 피곤하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은 45.9%가 여성 노인은 47.5%였다. 매우 피곤하다고 응답한 배우자 있는 남성 노인은 17.9%, 여성 노인은 그 보다 많은 27.1%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보면, 조금 피곤하다고 응답한 남성 노인은 42.4%, 여성 노인은 41.5%였고, 매우 피곤하다고 응답한 남성 노인은 15.5%, 여성 노인은 24.7%였다. 전반적으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곤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 32.5%, 여성 노인의 경우 30.3%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26.1%, 여성 노인은 27.8%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고령 집단이 시간 압박을 받지만 시간사용에는 오히려 더 만족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3〉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고령층의 주관적 특징

(단위: %)

		배우자가 있는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남	여	남	여
성역할인식	적극 찬성	12.0	7.6	14.8	10.0
	약간 찬성	46.2	38.2	47.0	38.3
	약간 반대	35.2	44.5	31.1	41.8
	적극 반대	6.5	9.7	7.1	9.9
시간부족	항상 부족하다	6.7	10.1	3.2	4.8
	보통 부족하다	11.6	15.0	6.0	7.4
	가끔 부족하다	40.3	43.1	39.2	34.6
	항상 여유롭다	41.3	31.8	51.6	53.2
피곤함	매우 피곤하다	17.9	27.1	15.5	24.7
	조금 피곤하다	45.9	47.5	42.4	41.5
	별로 피곤하지 않다	30.1	22.0	32.5	26.1
	전혀 피곤하지 않다	6.1	3.5	9.5	7.6
시간사용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6.9	5.2	6.0	6.5
	만족스럽다	25.6	25.1	20.1	21.3
	보통이다	57.6	59.2	60.1	61.0
	만족스럽지 않다	8.5	8.9	9.2	9.3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1.4	1.5	4.6	1.9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5.8	4.7	4.6	4.7
	만족스럽다	22.3	21.8	14.1	18.0
	보통이다	51.5	49.2	45.9	49.4
	만족스럽지 않다	16.6	18.2	23.0	20.8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3.8	6.1	12.4	7.1
계		100.0	100.0	100.0	100.0
전체 (명)		1,611	1,197	283	1,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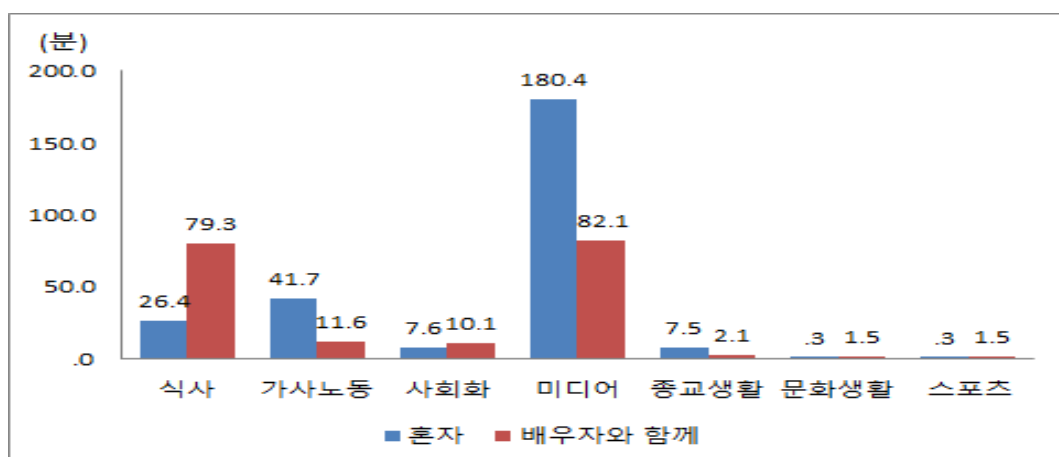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보면, 반 정도의 고령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은 28.1%가 여성 노인은 26.5%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18.7%가 22.7%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고령집단에서는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고령집단에서는 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였다.

5. 분석 결과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 가구의 시간 사용 실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시간사용실태 중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시간사용실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인이 있는 남성노인이 하루 중 혼자서 식사를 하는 평균 시간은 26.4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79.3분이다. 반면 가사노동의 경우 혼자서 하는 시간은 41.7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11.6분이다. 여가와 관련된 시간 사용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미디어 이용인데 혼자서 미디어를 이용하여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180.4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82.1분이다. 교류 등 사회활동을 혼자서 하는 시간은 7.6분이고,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10.1분이다. 그 이외에 종교 활동을 혼자서 하는 시간은 7.5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시간은 2.1분이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에 혼자서 하는 활동 중 시간 이용이 가장 많은 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며, 혼자 하는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 사용이 많은 활동은 식사하기와 교류 등 사회활동이다.

[그림 1] 배우자가 있는 65세 이상 남성노인들의 시간사용(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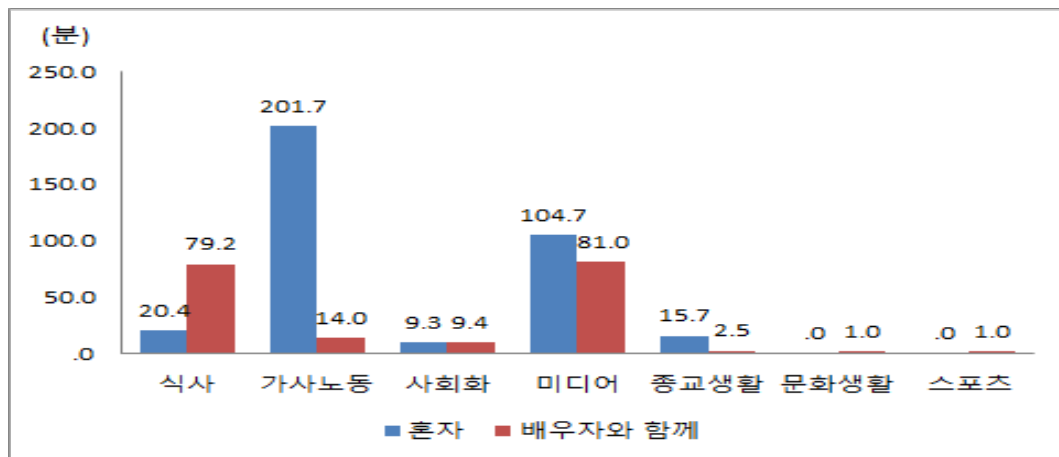


한편,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2). 남편이 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 하루 중 혼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20.4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79.2분이다. 반면 가사노동의 경우 혼자서 하는 시간은 201.7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14.0분

이다. 식사는 부부 모두 혼자서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긴데 비해 가사노동은 부부 모두 혼자 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모든 활동 시간 중 가장 길다.

여가와 관련된 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 혼자서는 104.7분을 사용하고 배우자와 함께는 81.0분을 사용한다. 남성노인에 비해서는 혼자서와 부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의 격차가 적게 나타난다. 종교 활동에 혼자서 사용하는 시간은 15.7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은 2.5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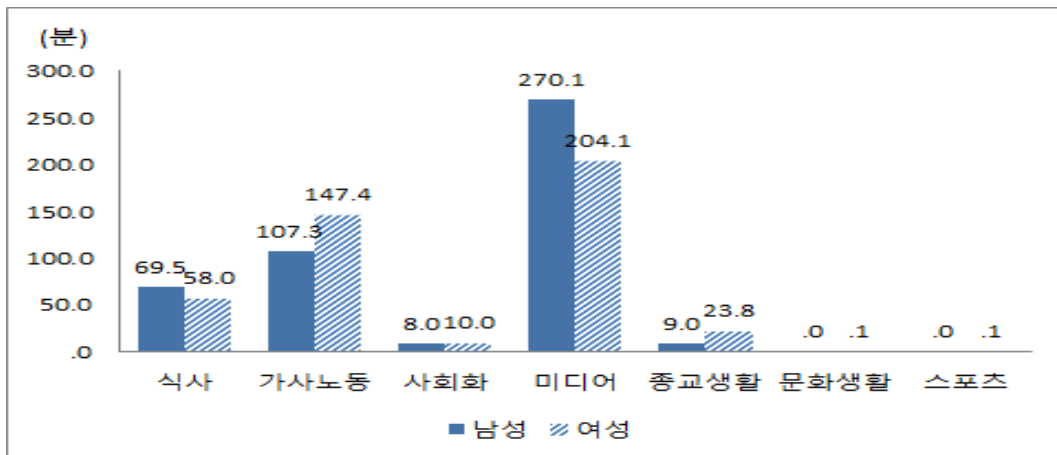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가 있는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시간사용(단위: 분)



배우자가 없는 고령 집단의 남녀별 시간사용 실태를 살펴보면([그림 3]), 부인이 없는 고령남성은 하루 중 혼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남성노인은 69.5분, 여성노인은 58.0분이다.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 노인은 107.3분, 여성노인은 147.4분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와 비교해보면,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들이 혼자서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많아서 가사노동 시간이 2배 이상 많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없으니 혼자서 처리하는 가사노동이 늘어난다. 반면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에 비해 혼자서 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서 한 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가 활동 중 미디어 이용으로 보내는 시간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많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들은 하루 중 270.1분을 혼자서 TV 등의 미디어 이용에 사용한다. 여성노인도 204.1분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미디어 이용에 시간을 사용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량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아서 하루 중 23.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들의 시간사용(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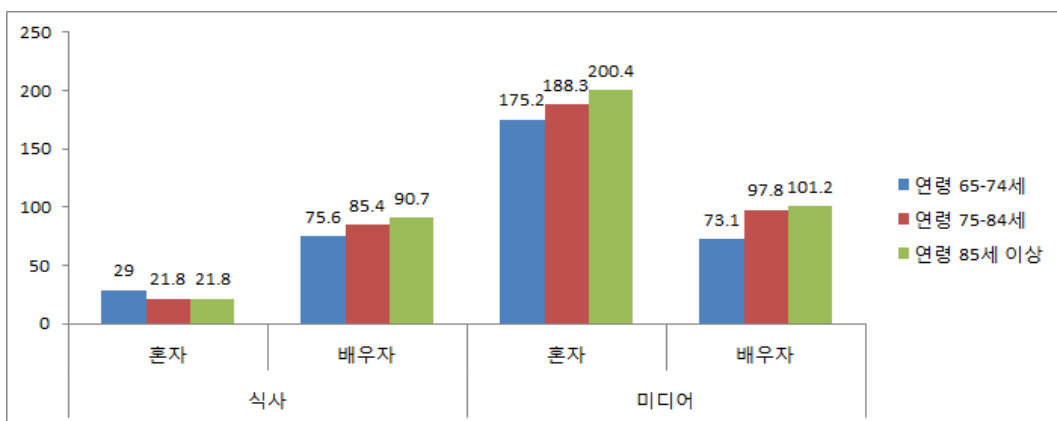


(2) 고령자 특성 별 시간 사용 실태 차이

1)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개인 특성별 시간사용실태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하는 식사 시간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이 늘어난다.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디어 사용시간은 눈에 띄게 많아진다.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시간은 65-74세의 노인 집단은 175.2분이고, 85세 이상 노인 집단은 200.4분을 사용한다. 배우자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도 65-74세의 노인 집단은 73.1분에서 85세 이상 노인 집단은 101.2분으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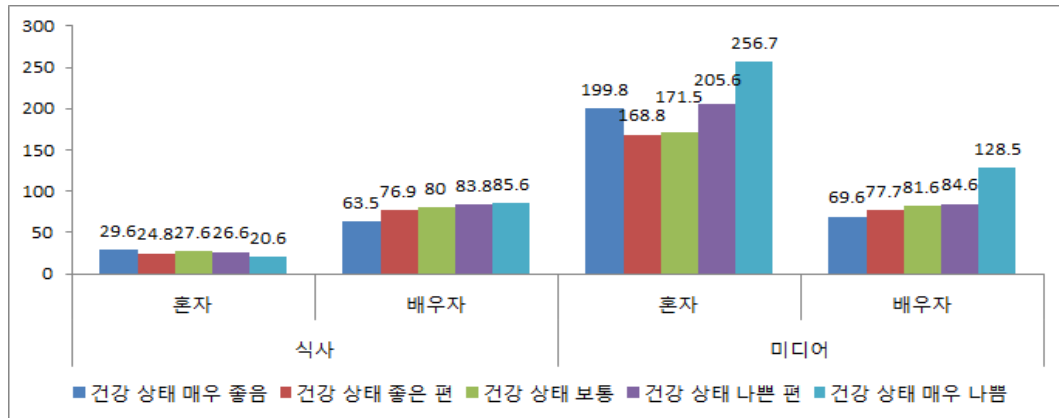
[그림 4]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연령별 식사와 미디어 시간사용(단위: 분)



연령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건강상태에 따른 결과를 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배우자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미디어 사용을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배우자 있는 남성 노인이 혼자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중 256.7분으로 평균보다 매우 높아 네 시간 반 가까이 되었다. 한편 건강상태가 좋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 혼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이 평균 보다 높은 27.8분이었다. 경제적 상태에 따른 시간 사용실태를 보면, 자가가 전

세에 비해서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에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32.9분으로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그림 5]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건강상태별 식사와 미디어 시간사용(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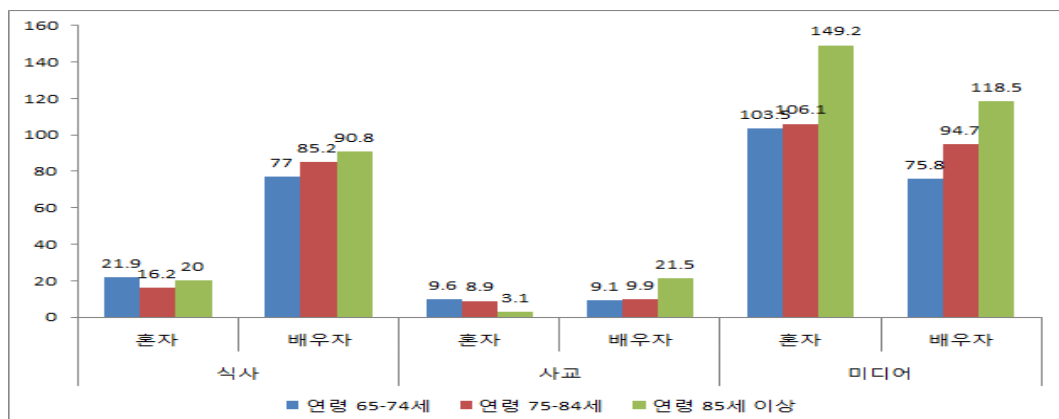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개인 특성별 시간사용실태를 보면, 남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하는 식사 시간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이 늘어난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편인데 85세 이상 여성 노인집단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사교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21.5분으로 평균보다 두드러지게 많다.

남성 노인만큼은 아니지만 여성노인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디어 사용시간은 눈에 띄게 많아진다.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시간은 65-74세 노인 집단은 103.5분이고, 85세 이상 노인집단은 149.2분을 사용한다. 배우자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도 65-74세 노인 집단은 75.8분에서 85세 이상 노인 집단은 118.5분으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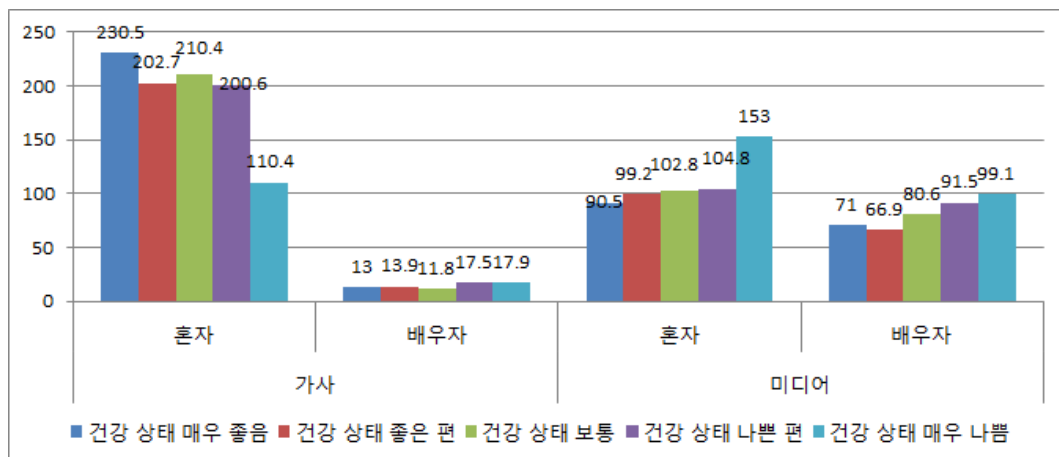
교육수준이 높은 편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25.0분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연령별 식사, 사교, 미디어 시간사용(단위: 분)



연령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건강상태에 따른 결과를 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 노인의 경우 혼자서 가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여성 노인이 하루 중 가사노동에 230.5분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하루 중 110.4분을 혼자 하는 가사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경제적 상태에 따른 시간 사용실태를 보면, 자가가 전세에 비해서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28.8분으로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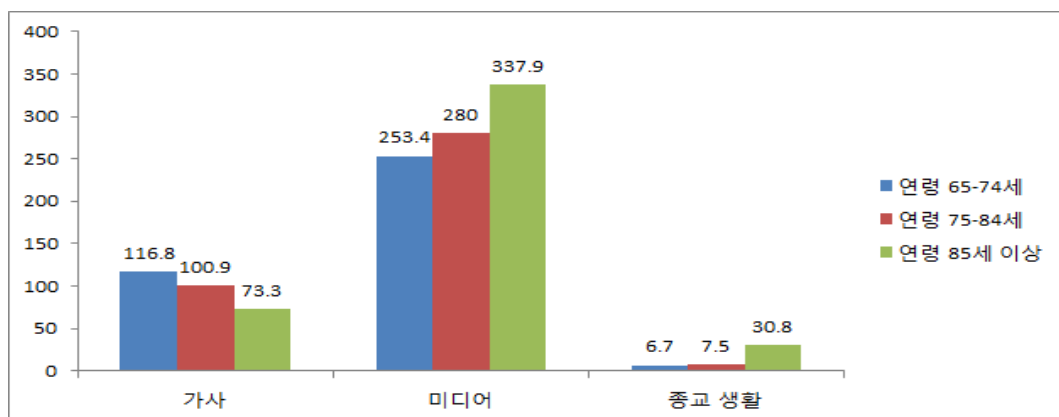
[그림 7]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건강상태별 가사, 미디어 시간사용(단위: 분)



3)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개인 특성별 시간사용실태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사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은 많아진다. 8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경우 혼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중 337.9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8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30.8분으로 평균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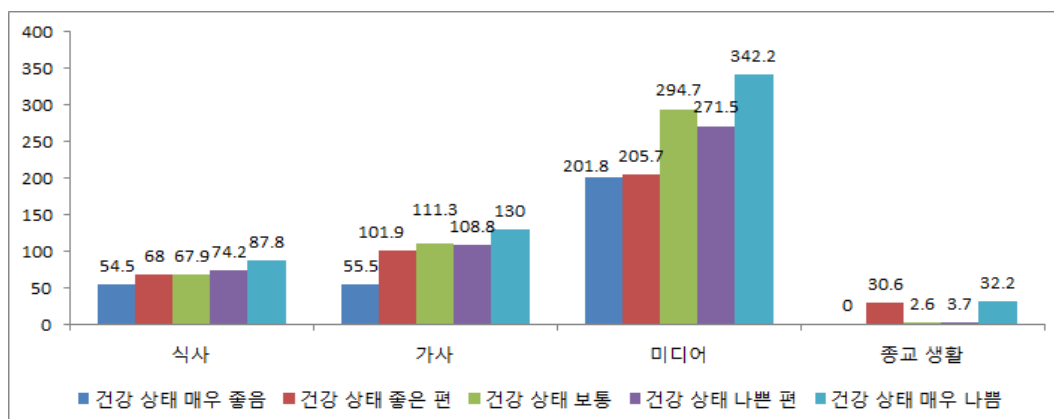
[그림 8]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연령별 가사, 미디어, 종교 시간사용(단위: 분)



한편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디어 사용시간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건강상태에 따른 시간 사용 실태를 보면,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혼자 하는 식사시간이 늘어난다. 가사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도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늘어난다. 건강상태가 나쁜 배우자 없는 남성 노인의 경우 혼자서 식사와 가사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건강상태와 미디어 사용시간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상태가 나쁜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하루에 미디어 사용에 사용하는 시간이 342.2분이나 된다. 본 분석에서의 비교 집단 중 가장 많은 시간 사용량이다.

건강상태와 종교 활동에 사용시간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는데, 건강상태가 좋은 편과 나쁜 편인 경우에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집단보다 많다. 특이하게 이 두 집단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30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값보다 훨씬 많다. 주택소유에 따른 시간사용 실태 중 눈에 띄는 내용 것은, 미디어 사용 시간이다. 자가의 경우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이 248.9분으로 평균보다 적은 시간이었고, 전세와 월세의 경우는 미디어에 이용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많아서 309.3분, 296.8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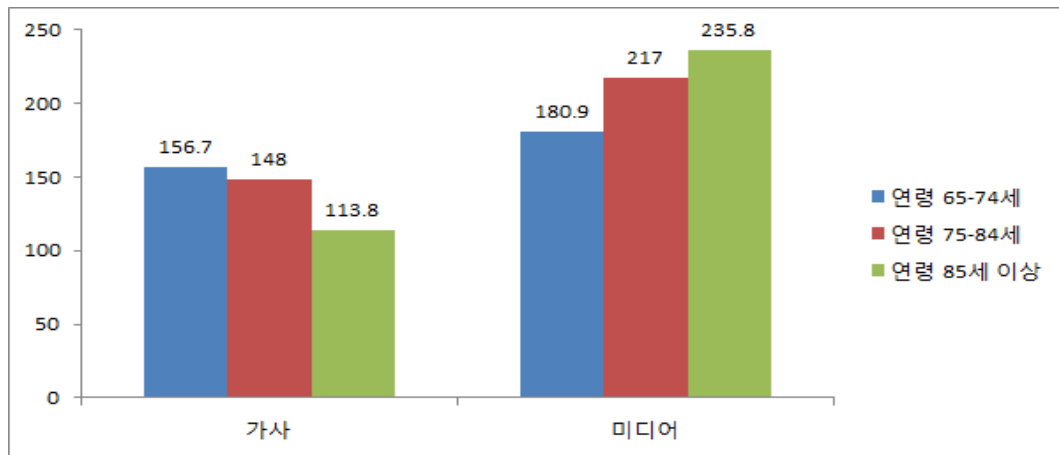
[그림 9]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건강상태별 식사, 가사, 미디어, 종교 시간사용(단위: 분)



4)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개인 특성별 시간사용실태를 보면, 남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든다. 반면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진다. 남성노인과 다른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남성 노인은 85세 이상의 고연령집단의 경우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여성노인은 이와 반대로 85세 이상 고연령집단은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적은 14.1분이다.

[그림 10]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연령별 가사, 미디어 시간사용(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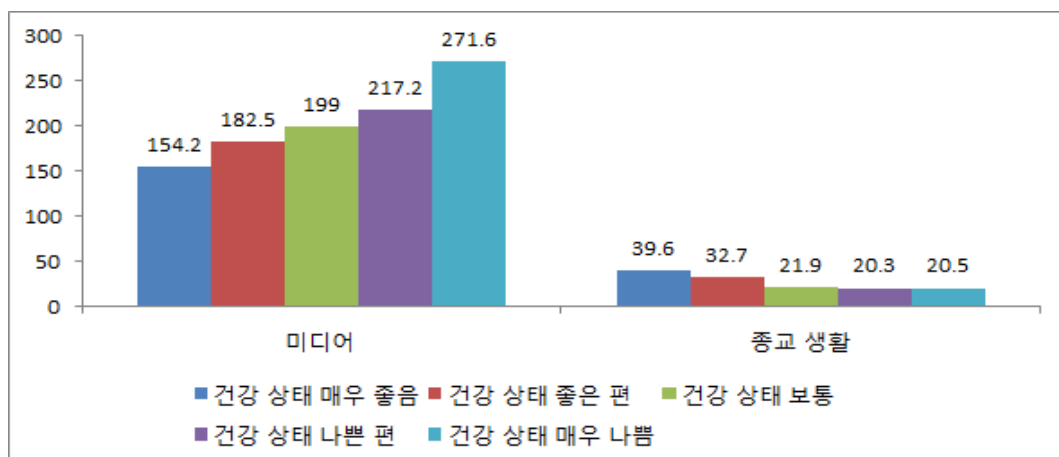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시간 사용실태를 보면, 사교를 통한 사회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아진다. 중졸과 고등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40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태에 따른 시간 사용 실태는 남성 노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반면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늘어난다. 종교 활동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인 경우에는 39.6분으로 평균보다 많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질수록 줄어서 매우 나쁜 경우에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적은 20.5분이다.

경제적 수준과 시간 사용 실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은 100 만 원 이하의 경우에 비교 집단에 비해 식사시간과 가사활동 시간이 약간 더 많다.

[그림 11]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건강상태별 미디어, 종교생활 시간사용(단위: 분)



(3)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

본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나누고, 각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은 모든 모형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그 외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 요인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이다.

하지만 성역할인식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 혼자서 시간을 사용하는 각각의 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유일하게 종교 활동이다.

〈표 4〉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령	.038	.036	.036	.031
학력	.115***	.102***	.100***	.097***
지역(농촌)	-.097***	-.114***	-.112***	-.113***
가구소득	.114***	.121***	.121***	.122***
주관적 건강상태	.353***	.314***	.307***	.309***
피곤함		-.127***	-.135***	-.132***
성역할인식		-.027	-.028	-.027
식사하기(혼자)			-.030	-.010
가사노동(혼자)			-.036	-.035
사회활동(혼자)			.013	.016
미디어 이용(혼자)			-.040	-.034
종교생활(혼자)			.029	.022
식사하기(배우자와 함께)				.025
가사노동(배우자와 함께)				.011
사회활동(배우자와 함께)				-.008
미디어이용(배우자와 함께)				.019
종교생활(배우자와 함께)				.047*
R^2	.184	.198	.201	.202
N	1,610	1,610	1,610	1,61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은 혼자서 하는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서, 여성노인은 혼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의 영향력을 모델에 포함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성역할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진다. 또한 혼자 하는 종교 활동에의 시간사용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 한 가사활동과 종교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남편과 함께 한 미디어 이용 시간은 오히려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5〉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령	.048	.048	.047	.052
학력	.112***	.108***	.103**	.092**
지역(농촌)	-.023	-.044	-.041	-.035
가구소득	.047	.054	.054	.047
주관적 건강상태	.343***	.272***	.266***	.261***
피곤함		-.192***	-.195***	-.196***
성역할인식		.054*	.056*	.044
식사하기(혼자)			-.017	-.012
가사노동(혼자)			-.016	-.008
사회활동(혼자)			.033	.035
미디어 이용(혼자)			-.045	-.047
종교생활(혼자)			.053*	.042
식사하기(배우자와 함께)				.013
가사노동(배우자와 함께)				.082**
사회활동(배우자와 함께)				.038
미디어이용(배우자와 함께)				-.073*
종교생활(배우자와 함께)				.087**
R^2	.143	.177	.181	.199
N	1,196	1,196	1,196	1,196

주: * $p < .05$, ** $p < .01$, *** $p < .001$

3)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건강상태이다.

〈표 6〉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날)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46	.046	.040
학력	.129*	.130*	.120*
지역(농촌)	-.131*	-.132*	-.137*
가구소득	.191**	.193***	.181***
주관적 건강상태	.350***	.307***	.289***
피곤함		-.131*	-.128*
성역할인식		.087	.101
식사하기(혼자)			.017
가사노동(혼자)			-.045
사회활동(혼자)			.056
미디어 이용(혼자)			-.085
종교생활(혼자)			.088
R^2	.227	.243	.251
N	282	282	282

주: * $p < .05$, ** $p < .01$, *** $p < .001$

4)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건강상태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피곤함은 다른 고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에 비해 혼자서 하는 활동 시간 중 미디어 사용과 종교 활동 시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반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표 7〉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날)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40	.020	.031
학력	.094***	.099***	.091**
지역(농촌)	-.064***	-.076**	-.075**
가구소득	.136***	.125***	.139***
주관적 건강상태	.317***	.269***	.254***
피곤함		-.158***	-.166***
성역할인식		.016	.015
식사하기(혼자)			.029
가사노동(혼자)			.037
사회활동(혼자)			.003
미디어 이용(혼자)			-.063*
종교생활(혼자)			.051*
R^2	.137	.159	.166
N	1,495	1,495	1,495

주: * $p < .05$, ** $p < .01$, *** $p < .001$

6. 결론

본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부부(독거) 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가족시간 사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생활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령자 집단의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집단 구분을 하였고, 각 집단을 다시 성별로 나눠서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분석 집단의 특징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 보다 연령이 높다. 교육수준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에 비해 더 높다. 일반적인 노인 가구의 특징과 동일하게 남성 노인집단이 여성 노인집단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더 높다. 건강상태는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안 좋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고령층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더 높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 중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가 가까이 되어 경제적 상황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낮았다.

한편 분석 대상 각 집단의 주관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역할 인식은 여성 노인집단이 남성 노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가 더 높다. 시간부족에 대한 압박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에 비해, 여성 노인집단이 남성노인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피로함의 정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곤함을 더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가 시간 압박을 받지만 시간사용에는 오히려 더 만족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에서는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에서는 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간 사용 분석의 첫 번째 결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시간 사용실태를 집단 비교를 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에 혼자서 하는 활동 중 시간 이용이 가장 많은 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며, 혼자 하는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 사용이 많은 활동은 식사하기와 교류 등 사회활동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식사는 부부 모두 혼자서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긴데 비해 가사노동은 부부 모두 혼자 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모든 활동 시간 중 가장 길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남녀별 시간 사용실태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은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들이 혼자서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보다 많아서 가사노동 시간이 2배 이상 많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은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에 비해 혼자서 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서 한 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가 활동 중 미디어 이용으로 보내는 시간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많다.

두 번째 각 고령자 집단의 특성별 시간사용 실태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이 늘어나며 미디어 사용시간을 급격히 늘어난다. 연령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건강상태에 따른 결과를 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배우자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미디어 사용을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사교활동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 집단의 경우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많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자가의 경우보다 월세의 경우에 배우자 없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길다.

세 번째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나누고, 각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 요인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경우, 혼자서 시간을 사용하는 각각의 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유일하게 종교 활동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

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은 혼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배우자와 함께 한 가사활동과 종교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남편과 함께 한 미디어 이용 시간은 오히려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건강상태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건강상태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인에 비해 혼자서 하는 활동 시간 중 미디어 사용과 종교 활동 시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반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부부가구와 독거가구를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역시 각 경우의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의 시간사용과 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65세 고령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 그리고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 시간 사용의 양상이 한쪽에 치우쳐 나타난다. 남성 노인의 경우 은퇴 후 생활시간 활용에 다양성이 떨어지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활동에 여전히 시간사용이 많은 상황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65세 고령집단의 경우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 노인의 경우, 고연령 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수록 더욱 그렇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혼자서 하는 미디어 이용 시간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디어 이용 시간의 치우침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다양한 시간 사용을 통해 보다 활력적인 노년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58(1): 5-36.
- 김경마·류승아·최인철 (2012) “가족 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18(2): 279-300.
- 문유경·강민정 (2003)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230-23》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현숙·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복지학》18: 5-31.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10(2): 43-66.
- Ashbourne, L. M., and Daly, K. J. (2012) “Changing patterns of family time in adolescence: parents’ and teens’ reflections” *Time & Society* 21(3): 308-329.
- Bonke, J., Deding, M., and Lausten, M. (2009) “Time and money: a simultaneous analysis of men’s and women’s domain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2): 113-131.
- Cha, S. E., and Eun, K. S. (2014) “Gender difference in sleep problems: focused on time use in daily life of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3): 1447-1465.
- Daly, K. J. (2001) “Deconstructing family time: from ideology to lived exper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83-294.
- Glorieux, I., Minnen, J., and van Tienoven, T. P. (2011) “Spouse “together time”: quality time within the househol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2): 281-287.
- Gracia, P., and Kalmijn, M. (2016) “Parents’ family time and work schedules: the split-shift schedule in Spai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2): 401-415.
- Helliwell, J. F., and Wang, S. (2014) “Weekends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2): 389-407.
- van Klaveren, Chris and Henriette Maassen van den Brink (2007) “Intra-household work time synchronization: togetherness or material benefi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 pp. 39-52.
- Krueger, A. B., Kahneman, D., Fischler, C., Schkade, D., Schwarz, N., and Stone, A. A. (2009) “Time us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France and the 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7-18.
- Milki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 M., and Robinson, J. P. (2004) “The time w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739-761.
- North, R. J., Holahan, C. J., Moos, R. H., and Cronkite, R. C. (2008) “Family support, family income, and happiness: A 10-year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75-483.
- Offer, S. (2013) “Family time activities and adolescents’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1): 26-41.
- Robinson, J. P. (2013) “Americans less rushed but no happier: 1965-2010 trends in subjective ti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3): 1091-1104.
- Robinson, J. P., and Martin, S. (2008) “What do happy people do?”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3): 565-571.

- Roeters, A., and Treas, J. K. (2011) "Parental work demands and parent-child, family, and couple leisure in Dutch families: What g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32(3): 269-291.
- Roxburgh, S. (2006) "I wish we had more time to spend together... The distribution and predictors of perceived family time pressures among married men and women in the paid labor f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27(4): 529-553.
- Sullivan, O. (1996) "The enjoyment of activities: Do couples affect each others'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1): 81-102.
- Valente, R. R., & Berry, B. J. (2015).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 Voorpostel, M., van der Lippe, T., and Gershuny, J. (2009) "Trends in free time with a partner: A transformation of intima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165-169.
- Wang, M., and Wong, M. S. (2014) "Happiness and leisure across countries: Evidence from international survey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85-118.
- Zuzanek, J., and Zuzanek, T. (2015) "Of happiness and of despair, is there a measure? Time us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4): 839-856.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세션2 : 세대별 행복과 삶의 질_해외 도시와의 비교

구 교 준
고려대학교 교수

전체적인 코멘트

- 본 세션에서 논의하는 세대별 국민의 삶의 질 측정과 정책의 활용을 위한 노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 1)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옴...그리고 우리가 바라 보았던 이정표는 경제성장이라고 볼 수 있음...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2만불에서 3만불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주로 고민해 왔음...하지만 자살율과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풍요는 국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지 않음...이제는 단순히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질의 국민소득 3만불을 만들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소득의 질을 고민해야 하는데, 바로 그 출발점은 이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2) 정책은 임상과학임...임상과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학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이 엄격히 실증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임상과학으로서의 정책도 진단과 처방의 근거가 되는 실증 데이터가 필요함...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이냐임...건강검진에서 진단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듯이 (예를 들면 혈압, 혈당, 간수치, 신장수치, 등등), 좋은 사회를 평가하는 도메인을 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은 정책이 가지는 임상과학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3) 지금까지 우리는 대개 삶의 질의 평가를 나이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측정하는데 있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이는 생애주기별로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가장 많은 관심이 학업에 쏠릴 것이고, 청년기에는 취업, 장년기에는 직업적 성취, 노년기에는 건강 등일 것임...따라서 이러한 유니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평가 체계를 구성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음...

구체적인 코멘트

-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 1) 우선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를 논의하기 위해선 생애주기에 대한 구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함...첫 번째 발표에서는 아동 청소년기를 0세에서 24세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19세에서 24세를 청년기로 구분함...그럼 청년기가 아동 청소년기에 포함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기를 18세까지로 하고 19세에서 24세를 청년기로 세분해야 하는건지 등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함...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민법에서도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9세 이상이 아동 청소년에 포함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2) 삶의 질을 포함하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회지표 개발은 탄탄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이론적 기반이 중요한 이유는 지표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도메인이 포함되어야 하느냐의 이슈가 있기 때문...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통계청 지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언뜻 보기에 발표에서 제시된 7개 영역은 Nussbaum이 "fundamental entitlement"라고 표현한 삶의 역량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경제, 정치)...게다가 역량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자유롭게 구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기의 평가에 더욱 잘 맞아떨어짐...
- 3) 세부지표가 너무 많음. 7개 영역을 측정하는데 189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걸 다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음...훨씬 단출하게 불필요하고 중복된 지표들은 정리해야 함...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흡족감,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의 세 가지인데 각 영역은 이미 투입지표로 구성된 상황에서 또 결과지표인 영역별 만족도를 포함하는 것은 종합지수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영역별로는 투입지표를 사용하고 종합으로는 결과지표인 전반적 만족도를 사용하여 둘을 통합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함.
- 4) 향후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지수 도출 과정에는 두 가지 문제점 존재...1) 세부지표에서 영역별 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표별 가중치 뿐 아니라 투입지표와 산출지표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의 문제도 존재...2) 영역별 지수를 통합하여 어떻게 종합지수를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여기서는 분야별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가 됨...

-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와 시사점

- 1)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왜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성인이 되기 전 10대 시기와 20대 시기는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포함하여 청년기로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임...만약 청년기의 삶의 질 평가를 시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9세에서 29세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2)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지난 10년 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임...실제 원문을 찾아서 살펴보니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학교생활 만족도로 나타남(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함)...그런데 이러한 점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실과 다소 괴리가 있음...예를 들어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가 확대 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입시 경쟁은 내신, 과외활동,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사상 최악의 수준임...또한 학교폭력의 증가로 학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이런 상황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난 10년 간 대폭 상승했다고 믿기 어려움...
- 3) 지수/지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지수/지표의 타당성 평가에서 상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임...예를 들어 몇 해전에 발표된 통계청의 삶의 질 지수가 비판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 삶의 질 영역에서 지수가 상승 추세였는데, 특히 안전분야의 경우 2013년 세월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지 의문임...아동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 노인가구의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

- 1) 행복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행복수준은 연령과 V자의 관계를 보임...즉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형태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회복이 관찰되지 않는 L가 형태에 더 가까움...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률 때문이라고 추측은 되나 다른 나라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와 같은 노년층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시도는 의미를 가짐...
- 2) 우리나라 노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과 건강수준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됨...따라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3)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에 포함된 노년기 활동(혼자 식사 혹은 사회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도 있으며, 따라서 모델링 과정에서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혼자 식사하거나 혼자 활동할 가능성이 높음...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세션2 : 세대별 행복과 삶의 질_해외 도시와의 비교

최 슬 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대별 행복과 삶의 질을 주제로 한, 두번째 세션은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삶의 질을 대표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세 편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발표인 〈한국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는 아동/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아동/청소년기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그 변화의 폭이 넓고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 이 연구는 OECD에서 생애주기를 0~24세(아동, 청소년기), 25~64(성인기), 65세 이후(노령기)로 구분한 것을 차용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안에서도 레벨 0~4까지 다섯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즉, 0~24세 안에서도 유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시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가 구분된다는 것은 삶의 단계마다 주어지는 역할과 기대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을 경험하는 개인의 욕망과 역량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0~24세 안에서도 8세 아이가 원하는 것과 18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지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는 지표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나 아동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표체계들은 각기 서로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에는 9~24세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29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개념 정의와 연령규정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단일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정의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다. 아동/청소년기의 변화무쌍함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기 연구목적과 정책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질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기의 하위개념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체계와 관련된 두번째 논점은 지표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서, 한국적 맥락에서 지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여러 세부영역별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 이를 어떤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실제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시기마다 서로 다른 영역과 지표가 중요지점으로 달리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국적 맥락의 지표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발표인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와 시사점>도 개념정의가 첫번째 논쟁점으로 보인다.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령대를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이 연구에서는 15~29세를 대상으로 하되, 10대와 20대의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15~19세와 20~29세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이나 취업을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 인간관계를 중요 요인으로 서술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진 욕망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간 긴장관계 속에서 정해진다. 그렇다면 간단히 두개의 연령집단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응답자의 다양한 특성 별로 삶의 질 결정요인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표2에서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6가지 영역에서 행복 관련 지표로 측정되었다. 그 중 5가지는 결정요인이고 한가지가 결과요인인 주관적 행복감이다. 그런데 결정요인인 5가지는 모두 OECD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결과인 주관적 행복감만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5가지 요인이 제대로 된 결정요인이 아니거나,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였는지가 의문시된다. 또한 주관적 행복도 비록 OECD평균보다는 낮지만 2009년 64.3%에서 2018년에는 94.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표의 validity와 reliability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 발표인 <한국 노인가구의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는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해서 노인가구의 시간사용 특성과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미디어이용시간과 생활만족도이다. 연구결과는 65세 고령집단에서 미디어이용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이용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디어이용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설득력있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왜 미디어이용이 생활만족도를 낮추는지, 혹시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인데 허위관계로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나의 용도로 시간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절대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사용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다. 무엇이 미디어이용을 늘이고, 그 사이에 잃어버린 기회가 무엇인지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

이 병 호

아주대 사회학과

이번 토론문은 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현재의 아동청소년, 청년들의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문에 대한 논평자의 평론과 함께 논평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소견을 밝힌다.

우선 한국 실정에 맞는 아동 및 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희길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논평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와 연동되거나 이에 필적하는 가족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표체계 특히 관련 통계자료와 지표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포털이 한국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만일 없다면 발표자의 제안과 같이 이제라도 아동청소년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한국의 현 단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상기한 OECD DB와도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토론의 주제 특히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와 관련하여 OECD가 산출해 발표하는 Child Well-Being Data Portal을 참고할 수 있다.¹⁾ 해당 포털(이하 CWBDP로 약칭)은 아동의 웰빙과 함께 아동이 자라는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영역별로 분류하면 1) 아동의 집과 가족 환경, 2) 건강 및 안전, 3) 교육 및 학교생활, 4) 활동 및 삶의 만족도, 그리고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통계 수집 대상인 자녀들(children) 혹은 아이들은 최대 0세부터 17세까지인데, 세부 영역에 따라 주로 아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OECD의 CWBDP는 각국의 아동 웰빙 수준을 성별, 가족 상황별, 가구소득 수준별, 부모 배경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1) <http://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Country Fact sheet – Korea

How does KOREA compare on child well-being?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performs relatively well on many (though not all) measures of child well-being. For example, at home, children in Korea enjoy **disposable incomes** that are at least moderate by OECD standards and a risk of **relative income poverty** that is comparatively low (7.1%, compared to an OECD average of 13.4%). However, a relatively high share of 15-year-olds (10%) report failing to **talk to their parents before or after school** on the most recent day they attended school – perhaps a reflection of the long school days and working hours in Korea.

Korea often performs particularly well on measures of children's well-being in education and at school. For example, a comparatively high share of 15-year-olds say **they feel like they 'belong' at school** (80%, compared to an OECD average of 73%), and a relatively low share report being the **victim of bullying** at least a few times a month (12%, compared to an OECD average of 19%). Average scores on the OECD's **PISA reading and mathematics tests** are also high in comparison to many other OECD countries, and a very high share of 15-year-olds say they **expect to complete a university degree** (75%, versus

an average of 44%). Moreover, despite the highly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only a moderate share of 15-year-olds in Korea report feeling **anxious about school tests** even when well-prepared (55%, the same as the OECD average). However, teenagers in Korea are less likely than their peers in most OECD countries to say they are **very satisfied** with their life as a whole, and are more likely to report being **not satisfied**. Only 19% of 15-year-olds in Korea report high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an OECD average of 34%), while 22% report low life satisfaction (versus an average of 12%).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웰빙 수준은 어떠한가? 제시된 표는 OECD의 CWBDP에서 2017년 11월 발표한 한국 아동의 웰빙 상황에 대한 통계이다. 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의 아동은 다른 OECD 국가 아동에 비해 상당히 많은 지표들에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나라에도 잘 알려진 대로 PISA tests를 통해 나타난 한국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편이다.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1달에 최소 수차례씩 따돌림(bullying) 피해를 당한 학생도 OECD 평균인 19%에 비해 낮은 12% 수준이다. 다른 나라 가령 미국의 청소년들은 1999년 콜로라도 Columbine High School Massacre, 2018년 플로리다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shooting 등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활안전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 때 한국의 학교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나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흥미로운 통계는 한국 15세 청소년들의 학교 시험에 대한 걱정과 압박감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라 일견 예상할 수도 있지만 OECD 평균과 동일했다. 김기현 박사님의 발표문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와 시사점”을 보면 그 이유의 단초가 나오는데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주로 대학생인 19-24세 청년들의 주된 고민에서 ‘공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30.8%에서 2018년 14.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입시라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큰 이슈인 사실은 분명하다. 발표문을 인용하면 “대학 진학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두 번째로 큰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중압감은 취업에 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압박감은 이전 세대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발제문을 다시 인용하면 “최근 들어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입시경쟁이 완화될지 모른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2010년 대학진학률은 79.0%였으나 2017년 68.9%로 10%p나 낮아졌다. 해마다 1%p 씩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학 진학률의 감소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입시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에서도 나오듯이 입시경쟁에 내몰린 10대들은 여전히 심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며 입시경쟁이 완화되었다고 실제 체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력과 학벌 인식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교육은 부담스러운 것이며 중압감을 느끼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입시와 관련한 교육 영역이 청소년의 행복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앞에서 논했듯이 그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해석 특히 영향력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은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연령대별로 느끼는 중압감과 걱정의 수준이 다르며, 대학입시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은 줄었지만 좋은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하다. 발표문 〈그림 10〉을 보면 2017년 조사에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 정도를 점하기에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발표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었는데 단일 시점의 횡단조사이기에 시계열적 추이를 살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과 실제 입시로 겪는 심리적 압박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대학진학을 하라기라는 거시적 변화와 함께 교과 및 비교과를 아우르는 내신이 강조되는 입학전형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변화 같은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입시 전형방식의 다양화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경감시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청소년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란 주제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좀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한편 위에 제시한 OECD의 CWBDP 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소통 빈도는 높지 않다. 등교 전이나 하교 후 부모와 대화하는 아동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주관적 웰빙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역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여기서 부모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피기 위해 발표문 〈그림 11〉에 제시된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본다.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발표자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대의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2008년보다 2018년 10%p나 높아졌다. 20대의 경우 소폭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줄어들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논했다. 부모에 대한 만족도 증가가 자녀규모 감소의 결과라는 해석은 매우 흥미롭고 예리한 것으로 굳이 게리 베커와 같은 신가족경제학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있다. 논평자 역시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소통은 부족하다는 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도입되고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간 대면접촉 시간은 이전에 비해 적어도 주중에는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접촉은 줄면서 만족도는 올라갔다’는 다소 역설적이기까지 한 모순이 발생한다.

요컨대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한국 청소년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이 또한 현 단계에서 명확히 단정할 수 없는 난제인데 두 변수 즉 부모 관계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모두 포함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중 그리고 주말에 청소년들

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 혹은 부모의 근로시간, 여가시간과 자녀의 학업시간, 여가시간,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김주현 교수님의 발표문 “한국 노인가구의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의 주제와도 유사하다. 해당 발표에서 사용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던 OECD Family Databas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밝힌다. 해당 DB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다양한 국가별 지표를 제공하는데 가령 지표 PF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는 조부모와 손자 관계를 보여준다.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밝히듯이 조부모는 분명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준다.²⁾ 일찍이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있어도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면서 조손가정(祖孫家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세기 들어 조부모에 의해 키워진 손자녀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빈곤가정 또는 부모의 돌봄을 받기 힘든 아동청소년에게 조부모가 주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은 아이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구권 몰락이나 체제 변혁 과정에서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역할은 컸다. 가령 불가리아의 경우 체제 이행 시기 부모가 실직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지지한 것은 바로 조부모의 연금 수입이었다. 조부모는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했다.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의 양육을 받았던 아이는 그렇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 정서적으로 덜 우울했다.³⁾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으며 흑인 할머니와 동거하는 손자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신장과 체중 등에 있어 발육상태가 월등하게 좋았다.⁴⁾ 요약하면 향후 아동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표 작성에 있어 부모 관계를 넘어 ‘세대간 연대’까지 반영하길 제안한다. 세대간 갈등에서 세대간 상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런 작업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된다. 그런데 빈곤층에 대한 한국사회의 주된 관심은 주로 노인 빈곤율이었으며, 빈곤층 아동의 통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론들은 이런 고령층의 빈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인과관계의 타당성 그리고 현재 공표되는 노인 빈곤율 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며 이 제도를 점점 강화해나가는 상황이다.

2) 김성하, 이병호 (2016) “신냉거루족의 두 얼굴: 우려와 기대” 〈이슈&진단〉 250호 참고

<http://www.gri.re.kr/%EC%9D%B4%EC%8A%88-%EC%A7%84%EB%8B%A8/?pageno=10&ptype2=&sc=&sv=&limit=10&searchcode=&pcode=&brno=5999&prno=5259>

3) Luba Botcheva and S. Shirley Feldman(2004). “Grandparents as family stabilizers during economic hardship in Bulgari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3: 157~168.

4) Esther Duflo(2003). “Grandmothers and granddaughters: old-age pensions and intrahousehold allocation in South Africa.”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7.1: 1~25.

그렇다면 아동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아동 빈곤율은 어떠한가?⁵⁾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가운데 CO2.2 아동 빈곤율(Child poverty)이 있다. 그 결과를 인용하면, 한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아동의 10% 미만인 7.1%로 OECD 평균인 13.4%에 비해 낮다. 국가별로 보면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고 터키는 무려 20%를 상회하는 반면, 덴마크와 핀란드는 3-4%에 그친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빈곤율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의 사회적 맥락과 가족정책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 통계지표를 구축함에 있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견해, 이상자녀수 및 적정자녀수 등 가족 분야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Family Database에는 SF2.2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라는 지표가 있다. 기존의 가용한 자료 가운데 젊은 층 혹은 최근 출생코호트만 추출하여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 특히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5) 이 단락에 제시된 통계의 출처는 http://www.oecd.org/els/soc/CO_2_2_Child_Poverty.pdf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세션3: 도시사회정책조사(서울서베이)를 통해 본 사회의 질

Session II :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tion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in East and Southeast Asia: Findings of the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마사유키 카나이(센슈대학교 교수)
Masayuki Kanai(Senshu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social well-being in Asia and one of its findings. The project consists of more than 80 member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eight Asian societies: Japan, South Korea, Taiwan, Mongolia,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The aim is to investigate the state and its causal mechanisms of social well-being in contemporary Asi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roject has conducted a cross-national survey entitled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was conducted in the above seven societies except for Mongolia where other comparable survey during 2015–2017. In this paper,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relative comparison and subjective well-being using the SoWSA data is introduced as an exampl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1) relative importance of two types of relative comparisons (horizontal comparison with one's reference group and longitudinal comparison with one's childhood) and objective income for subjective well-being and (2) to find a possible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this causal mechanism between the seven societies. The findings are (1) longitudinal comparison has the stronges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in all the seven societies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well-being studies and (2) there exists a manifest difference between East and Southeast Asia regarding the causal mechanisms of subjective well-being which requires a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cultural diversity of well-being and its causes in Asian societies.

Keywords: Social well-being, relative comparison, life-course perspective, Asia

1. Outline of the Project

This paper introduces some research outcomes of a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social well-being in Asia. This five-year project from 2014 till 2018 involves a total of 85 members from universities and institutes in eight Asian societies, i.e., Japan, South Korea, Taiwan, Mongolia,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The project has conducted a cross-na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 these societies between 2015 to 2017.

The title of the project is “Forming a Social Well-Being Research Consortium in Asia.” It is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ese government. As the title says, one of its practical aims was to establish a research consortium on social well-being study in Asia, and the consortium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successfully consisting of research institutes and individual researchers from the eight Asian societies above mentioned.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investigate the state and its causal mechanism of social well-being in contemporary East and Southeast Asia. Though the term of “social well-being” was used in some earlier research such as Keyes (1998), this project defines it as consisting of three dimensions, i.e.,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aspect of well-being (Koo et al. 2016). Based on the tradition of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in the fields of psychology (e.g. (Diener, Oishi and Lucas 2009)), economics (e.g., (Graham 2011)), and sociology (e.g., (Veenhoven 2008)), this project especially focuse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historic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each society in the causal mechanisms of subjective well-being. This strategy would be promising especially in Asian societies where historical, socio-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among them is larger than Euro-American societies on which the literature on subjective well-being has focused so far.

The organization of this consortium is quite large (see Table 1). Twenty-six researchers from Japan and 59 members from other seven Asian societies formally join the project.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whole project is Hiroo Harada, professor at Senshu University, and the secretary-general is Masayuki Kanai, the author of this paper. The renowned universities and institutes join the consortium from each society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Academia Sinica in Taiwan, and so on. Many researchers belonging to other research institutes in each country also join the consortium such as Hokkaido University, Niigata University, Seikei Univers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Sciences in Japan for instance.

Table 1 : Organization of the project

Country	Principal Institute	PI	N
Japan	Senshu University	Hiroo Harada	26
South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yeol Yee	11
Taiwan	Academia Sinica	Ming-Chang Tsai	6
Mongolia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Batsugar Tsedendamba	6
Vietnam	Vietnam Academy for Social Sciences	Dang Nguyen Anh	6
Thailand	Chulalongkorn University	Surichai Wun'gaao	5
the Philippines	Ateneo de Manila University	Emma E. Porio	9
Indonesia	University of Indonesia	Paulus Wirutomo	16
		N of Total	85

Major research activities of the project are threefold: A cross-national survey, semi-annual conferences, and a reviewed journal. The survey will be explained in the next section. Semi-annual conferences have taken place at several institutes in different countries in turn as Table 2 shows. Combination of two-day academic meeting and one-day public symposium is a usual way in the recent conferences. For instance, the 5th conference held in Tokyo on November 23-25 accommodated 17 papers in the academic meeting in the first two days, and two keynote lectures and seven lectures in the symposium on the last day.

Table 2 : Conferences of the consortium

Date	Venue	City	Country
October 2014	Senshu University	Tokyo	Japan
November 2015	Senshu University	Tokyo	Japan
February 2016	Lake Yamanaka	Yamanashi	Japan
June 2016	Senshu University	Kawasaki	Japan
March 2017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October 2017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Hanoi	Vietnam
March 2018	Plataran Hotel & Convention Center	Magelang	Indonesia
June 2018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November 2018	Senshu University	Kawasaki	Japan
October 2019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The consortium also publishes a reviewed annual journal entitled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Not only the consortium members but also everyone who engaged in well-being study can submit their manuscripts for review. The latest volume (vol.5,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18) of the journal contains eight reviewed articles and two non-reviewed commentaries.

2. Outline of the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The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is a cross-national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by the consortium in the seven Asian society except for Mongolia between 2015 to 2017 (see Table 3). Survey mode was a web survey in the three East Asian societies (Japan, Korea, and Taiwan) and a face-to-face interview in the four Southeast Asian societies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It means that the data from Southeast Asia are regarded as representative whereas the data from East Asia are not. This difference in survey mode due to budget restriction also derived a difference in sample sizes between East Asian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i.e., the sample sizes are relatively larger in the former societies and smaller in the latter ones. All surveys were nation-wide ones except for Indonesia survey whose population is limited to Java and Bali islands due to practical reasons.

Table 3 : Social Well-Being Survey in Asia (SoWSA)

Country	Period	Mode	N	Sampling
Japan	Feb 2015	Web	11,786	Quota (gender, age, city size, region) from monitors
South Korea	Jul 2015	Web	2,000	Quota (gender, age, region) from monitors
Taiwan	July 2017	Web	2,303	Quota (gender, age, region) from monitors
Vietnam	Jul-Dec 2015	Interview	1,202	Stratified (region, urban/rural) 3-stages random
Thailand	Oct-Dec 2016	Interview	1,126	Stratified (region, urban/rural) 3-stages purposive
the Philippines	Jun-Dec 2016	Interview	1,200	Stratified (region) 3-stages random with gender quota
Indonesia	Aug 2017	Interview	1,250	Stratified (region) 3-stages random with religion quota (Java and Bali islands only)

The questionnaire of the surveys in each society consists of common module and country-specific module. The common module contains four groups of instruments, i.e., (1) social well-being, (2) social capital, (3) risk and social safety network, and (4) face sheet.

(1) Social well-being is a group of questions for dependent variables of the project. It contains, at first,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e., subjective happiness,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Cantril's ladder of the life question on an eleven-point scale from 0 (unhappy)

to 10 (happy). Though all of these three instruments are well-known and have adopted in major previous surveys such as GSS and its international variants (subjective happiness on a five-point scale), World Values Survey (subjective happiness on a four-point scale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on a ten-point scale), and Gallup World Poll (Cantril's ladder on a eleven-point scale), no previous surveys contains all of these three measures together on the same point scale (eleven-point scale) as SoWSA does (See Table 4).

Table 4 : Instruments on subjective well-being

Survey	Subjective happiness	Satisfaction		Cantril's ladder
		Overall	Domains	
EASS, GSS	5 scale	10 scale	Finance, Family life, etc.	11 scale
World Values Survey	4 scale		Finance	
Gallup World Poll				
SoWSA	11 scale	11 scale	Finance, Family life, Job, etc. (11)	11 scale

This feature of SoWSA enabl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se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to find a possible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societies. Figure 1 show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each society. We can see the different patter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ies. In East Asian societies, correlation between these three measures a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Southeast Asian counterparts. Three East Asian societies are relatively similar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pattern whereas Southeast Asian societies look diverse on this point. For each measur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s higher than other two correlations in almost all societies except for Indonesia. Though this observation seems to support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in well-being studies that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re interchangeable measures of well-being (e.g., (Diener, Oishi and Lucas 2009)), we can also see that this assumption might be true only in advanced societies like our East Asian exa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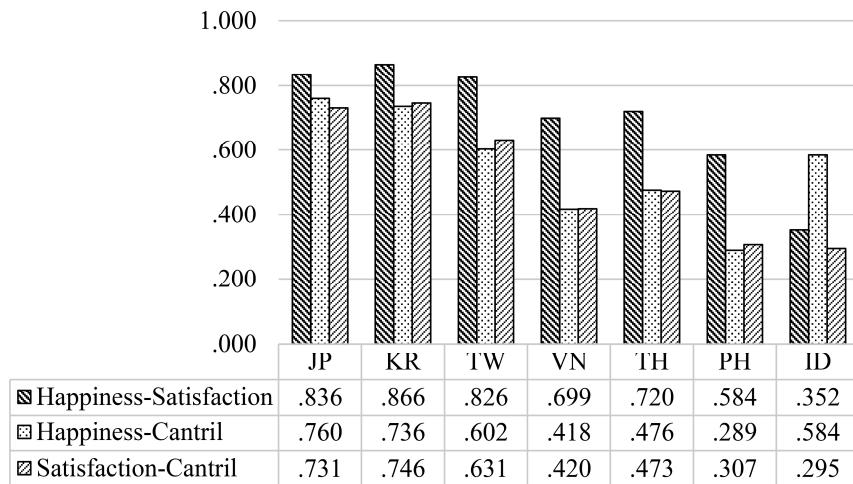


Figur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seven Asian societies

Social well-being module also contains instruments to measure personal evaluation of a whole society such as perceived unfairness and discrimination, and attitude toward inequality.

(2) Social capital module is composed of the instruments to measure personal- and community-level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in various types of people, interaction with relatives, neighbors, colleagues, and so on, and involvement in local community and social as well as religious rituals.

(3) Risk and social safety network ask personal and collective risks such as disaster which respondents' households have ever experienced as well as institutional confidence for saving themselves in case of such emergency.

(4) Face instruments include usual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measur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employment, personal and household income, and religion as well as time allocation to various types of activities in work and life.

Survey reports of SoWSA in each society are available on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Yazaki 2016), (Yee et al. 2016), (Tsai et al. 2018), (Anh 2017), (Wun'gaeo et al. 2017), (Porio and See 2017), (Wirutomo et al. 2018)).

The micro data of SoWSA are being published for secondary analyses at KOSSDA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Data from East Asian societies (Japan, Korea, and Taiwan) are publishing in April 2019, and the rest of the data from Southeast Asian societies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re in January 2020.

3. Findings from SoWSA data: Relative Comparison and Well-Being

Though a volume of outputs by the project members begins to come out on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and other reviewed journals (e.g., (Kanai 2016), (Shimane 2018)), I will introduce my own outcome on the relation between relative comparison and subjective well-being, which was presented at the 14th APSA Conference at Seisa University, Japan on October 5, 2018.

3.1. Introduction

Relative comparison has been one of the major focuses in subjective well-being studies ((Diener 2012)). Income-happiness paradox ((Easterlin 1974), (Easterlin et al. 2010)) which insists the level of happiness does not necessarily correlate with absolute income both in macro and micro levels has been one of the motivations why the literature has focused on relative comparison.

A vast volume of previous studies in economics has examined the effect of relative income on subjective well-being compared with absolute income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 (Diener et al. 1993), (Ferrer-i-Carbonell 2005) among others). This idea of relative income can be generalized to the concept of relative deprivation in sociology ((Runciman 1966), (Merton 1968), (Ishida, Kosaka and Hamada 2014)). Relative deprivation in sociology focuses on a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reflection on one's own social position instead of objective and observable social status of an individual such as the difference between one's actual income and the average income of his/her residential area as in economics. In such a subjective comparison, a reference point, i.e., the things to be compared with one's current status, is also subjectively defined and estimated.

Though there can be several candidates of reference points in relative comparison, this paper deals with a reference group and one's childhood as reference points to be examined. In contract to a reference group ((Merton 1968)) which has been a major focus of sociological relative deprivation studies and logically linked to relative income hypothesis ((Duesenberry 1949)) of the literature in economics, one's childhood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so far, though some pioneering works analyzing longitudinal data begins to come out lately (e.g., (Dolan and Lordan 2013), (Becker and Birkelbach 2018)). As we can see in the cited studies, a comparison with one's childhood can be regarded as an intergenerational or intragenerational mobility effect in the context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studies ((Sorokin 1959)). It is a longitudinal or vertical kind of relative comparison compared to a comparison with one's reference group which is a cross-sectional or horizontal relative comparison.

Thus, this paper analyzes relative strength of the effects of these two types of relative comparison (horizontal and longitudinal) on one's subjective well-being compared to the effect of one's objective income on well-being (RQ1). We also examine whether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se three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could differ between Asian societies (RQ2).

RQ1: Which of

- (1) horizontal comparison (=reference group)
 - (2) longitudinal comparison (=childhood)
 - (3) objective income
- impacts most on subjective well-being?

RQ2: Is the above causal mechanism heterogeneous among Asian societies?

3.2. Methods

(1) Data

We used SoWSA data from seven Asian societies. Since the sample sizes from our East Asian societies are larger than those from Southeast Asian societies as we mentioned before, we used analytical subsamples of 1,200 cases in each dataset which were randomly resampled for the three East Asian societies (Japan, Korea, and Taiwan). On the other hand, the whole samples (1,126-1,250, see Table 3) were analyzed in our Southeast Asian datasets.

(2) Method

We employed OLS regressions of subjective well-being to three factors, i.e., horizontal comparison, longitudinal comparison, and objective income in each dataset. We also controlled for maj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well-being, i.e., gender, age, marriage, education, employment in the analyses. All continuous variables were standardized within each dataset to compare relative strength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3) Variables

For the dependent variable, i.e., subjective well-being, we used Cantril's ladder of life question on a eleven-point scale from 0 (the worst life) to 10 (the best life). The distribution and means of the answers in the seven Asian societies are shown in Figure 2 and Figure 3 respectively. We can observe that (1) the means are higher in Southeast Asian societies than in East Asian counterparts, (2) the level of means and the pattern of distribution are more heterogeneous with each other in Southeast Asian societies than in East Asian counterp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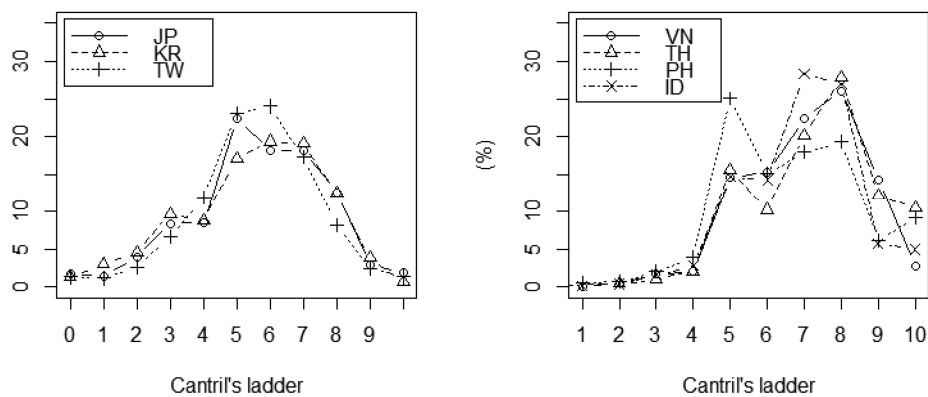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Cantril's ladder of life question in seven Asian societies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

Figure 3 : Means of Cantril's ladder of life question in seven Asian societies

Our independent variables are (1) horizontal comparison, (2) longitudinal comparison, and (3) objective income. (1) horizontal comparison is operationalized by the difference between respondent's actual individual income and imagined average current personal income of the same-gender classmates in the highest school the respondent graduated.

This operationalization of a reference point in horizontal comparison referred to the literature in economics ((Oshio, Nozaki and Kobayashi 2011)). (2) longitudinal comparison, i.e., a comparison with one's childhood is measured by perceived shift in the level of livelihood between the time when the respondent was 15 years old and now. The instrument was "How did your own life circumstances change? Your current circumstances compared to your situation when you were 15 years old" on an eleven-point scale from 0 (worsened) to 10 (improved) with mid-point 5 (not changed). (3) Objective income is operationalized by log of equivalent income, i.e., respondent's household income divided by the square root of the household size.

Descriptive statistics of all the variables including controls are shown in Table 5.

Table 5 : Descriptive statistics (mean and SD, or distribution)

	JP	KR	TW	VN	TH	PH	ID
<i>Dependent</i>							
Cantril's ladder (0-10)	5.6 (2.0)	5.5 (2.1)	5.6 (1.8)	7.0 (1.6)	7.3 (1.7)	6.7 (1.8)	6.9 (1.5)
<i>Independent</i>							
Horizontal comp. (in local currency)	74 (407)	-1,384 (2,634)	605,749 (520,795)	43,608,078 (39,405,242)	60,525 (131,501)	-139,237 (235,244)	-1,136,715 (5,749,200)
Longitudinal comp. (0-10)	5.7 (2.5)	5.7 (2.4)	6.0 (2.6)	7.2 (1.8)	7.1 (2.3)	6.6 (2.4)	7.4 (2.0)
Log equivalent income	5.8 (0.7)	7.9 (1.1)	12.9 (2.1)	17.3 (1.9)	10.9 (1.7)	11.3 (0.9)	14.3 (0.9)
<i>Control</i>							
Male	50%	52%	52%	49%	47%	50%	50%
Age	44.5 (13.8)	43.9 (12.5)	40.7 (11.6)	38.7 (14.4)	48.5 (16.2)	42.4 (14.7)	38.9 (13.2)
Married	62%	63%	50%	67%	61%	71%	71%
Education years	14.6 (2.1)	15.2 (2.1)	15.6 (1.8)	10.2 (3.4)	9.9 (4.5)	9.7 (2.8)	11.5 (3.3)
Employment							
Regular	40%	48%	69%	12%	17%	14%	18%
Non-regular	20%	10%	6%	24%	14%	18%	29%
Self employed	8%	17%	9%	58%	47%	32%	39%
Not working	32%	25%	16%	6%	22%	36%	13%

3.3. Results

Results of the OLS regressions are shown in Table 6. As all continuous variables are standardized within each dataset, we can compare the values of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within and between societies.

Table 6 : OLS regressions of subjective well-being to relative comparisons and objective income

	JP	KR	TW	VN	TH	PH	ID
Hori. comp.	.109 * (.044)	.071 ** (.026)	.068 (.037)	-.029 (.039)	.129 * (.050)	-.031 (.047)	-.013 (.034)
Long. comp.	.420 *** (.036)	.583 *** (.025)	.565 *** (.031)	.335 *** (.035)	.321 *** (.046)	.368 *** (.048)	.336 *** (.035)
Obj. income	-.035 (.048)	.097 *** (.026)	.100 * (.032)	.056 (.037)	-.088 (.051)	.226 *** (.050)	.166 *** (.039)
Male	-.224 ** (.080)	-.101 * (.051)	-.036 (.062)	.024 (.071)	-.241 ** (.092)	-.056 (.099)	-.028 (.070)
Age	.033 (.040)	.002 (.029)	.006 (.036)	-.144 ** (.044)	-.020 (.054)	.043 (.050)	-.034 (.039)
Married	.369 *** (.080)	.237 *** (.060)	.078 (.069)	.108 (.083)	.037 (.101)	.127 (.108)	.144 (.081)
Education years	.023 (.037)	.112 *** (.025)	.031 (.032)	-.110 * (.045)	.038 (.058)	.017 (.051)	.093 * (.039)
Non-regular	-.173 (.109)	-.094 (.086)	-.037 (.143)	-.155 (.117)	-.477 ** (.159)	-.024 (.162)	-.027 (.102)
Self employed	.083 (.131)	-.067 (.068)	.102 (.105)	-.158 (.113)	-.207 (.127)	-.076 (.151)	.061 (.096)
Not working	-.096 (.100)	-.070 (.070)	-.042 (.104)	-.383 * (.186)	-.158 (.155)	.115 (.145)	.102 (.131)
Adj. R^2	.264 ***	.444 ***	.383 ***	.123 ***	.148 ***	.210 ***	.189 ***
N	627	968	680	740	417	375	756

DV is Cantril's ladder of life. All continuous variables are standardized. * <.05, **<.01, ***<.001.

For our RQ1, i.e., which of the two types of relative comparison and objective income are crucial for subjective well-being, we can observe that longitudinal comparis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well-being in all the seven Asian societies. A comparison between one's childhood and current time is far more crucial for current well-being than other type of relative comparison and current objective income. The second observation is that a horizontal comparison, i.e., a comparison with one's reference group (classmates of one's highest school in the current study) has the same level of effect as objective income in East Asian societies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s in Southeast Asian societies. The third observation is objective income is still important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where the absolute level of affluence is still not so high.

Our RQ2 related to a possible diversity in the pattern of causal mechanisms of subjective well-being in the seven Asian societies. Regarding this question, we can observe that our East Asian societies share similar patterns whereas our Southeast Asian counterparts are quite diverse among them. This observation coincides with our early observation about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sian societies.

Another observation as to RQ2 is that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share relatively similar patterns within Southeast Asian societies. This is concurrent with our previous observation on RQ1 that objective income is still important for well-being in these two societies.

3.4. Discussion

The first observation on our RQ1, i.e., the remarkable importance of longitudinal comparisons in all the Asian societies reminds us of the significance of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well-being studies. In other words, mobility effects are crucial for well-being as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Becker and Birkelbach 2018), (Zhao et al. 2017), (Hadjar and Samuel 2015)).

The third findings on the RQ1 and the second one on the RQ2, i.e., objective income is important for well-being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would support Easterlin's argument ((Easterlin 1995)) that income is more important in developing societies than in affluent societies.

The main finding on our RQ2, i.e., East Asian societies are uniform whereas Southeast Asian societies are diverse reminds us of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in Asia. Although some cultural psychologists have recently argued possible cultural differences in happiness itself and its causal mechanism based on empirical evidences (e.g., (Lu and Gilmour 2004), (Oishi et al. 2013), (Selin and Davey 2012)), the coverage of their studies are still limited. Thus, we need to investigate further the possible diversity in causal mechanism of well-being based on reliable data.

References

- Anh, Dang Nguyen. 2017. "Social well-being in Vietnam: Designing and preliminary results from a sampling survey."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4:117-23.
- Becker, Dominik, and Klaus Birkelbach. 2018. "Social mob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revisit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locus of control."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54:1-20.
- Clark, Andrew E, Paul Frijters, and Michael A Shields.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95-144.
- Diener, Ed. 2012. "New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7(8):590-97.
- Diener, Ed, Shigehiro Oishi, and Richard E Lucas. 2009.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187-94.
- Diener, Ed, Ed Sandvik, Larry Seidlitz, and Marissa Diener.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3):195-223.
- Dolan, Paul, and Grace Lordan. 2013. "Moving up and sliding down: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ffect of social mobility on subjective wellbeing." *CEP Discussion Papers* (CEPDP1190).
- Duesenberry, James Stemple.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89-125.
- Easterlin, Richard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35-47.
- Easterlin, Richard A, Laura Angelescu McVey, Malgorzata Switek, Onnicha Sawangfa, and Jacqueline Smith Zweig.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22463-68.
- Ferrer-i-Carbonell, Ada. 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997-1019.
- Graham, Carol. 2011.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y of Well-be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adjar, Andreas, and Robin Samuel. 2015. "Does upward social mobility increase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British and Swiss panel dat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9:48-58.
- Ishida, Atsushi, Kenji Kosaka, and Hiroshi Hamada. 2014. "A paradox of economic growth and relative deprivation."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8(4):269-84.
- Kanai, Masayuki. 2016. "Contextual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2:41-50.
- Keyes, Corey Lee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121-40.

- Koo, Hearan, Jaeyeol Yee, Eun Young Nam, and Ee Sun Kim. 2016. "Dimensions of Social Well-being and Determinants in Korea: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Aspects."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3:37 - 58.
- Lu, Luo, and Robin Gilmour. 2004. "Culture and conceptions of happiness: Individual oriented and social oriented SWB."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3):269-91.
- Merton, Robert King.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Oishi, Shigehiro, Jesse Graham, Selin Kesebir, and Iolanda Costa Galinha.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5):559-77.
- Oshio, Takashi, Kayo Nozaki, and Miki Kobayashi.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351-67.
- Porio, Emma, and Justin See. 2017. "Social Well-Being in the Philippines: Indicators and Patterns."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4:95-116.
- Runciman, Walter Garrison.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Selin, Helaine, and Gareth Davey. 2012. *Happiness across Cultures: Views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Non-Western Cultures*. Dordrecht: Springer.
- Shimane, Katsumi. 2018. "Social bonds with the dead: how funerals transformed in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ies." *Phil. Trans. R. Soc. B* 373(1754):20170274.
- Sorokin, Pitirim Aleksandrovich. 1959.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New York: Free Press.
- Tsai, Ming-Chang, Yow-Suen Sen, Yi-fu Chen, Tsui-o Tai, Hsiu-Jen Yeh, and Chin-Hui Liao. 2018.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 on Lifestyle and Values: A Report of the Taiwan Survey."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5:in press.
- Veenhoven, Ruut. 2008. "Sociological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Pp. 44-61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edited by Michael Eid and Randy J. Larsen. New York: Guilford Press.
- Wirutomo, Paulus, Iwan Gardono Sudjarmiko, Francisia SSE Seda, Lugina Setyawati, Evelyn Suleeman, Daisy Indira Yasmine, Yosef Hilarius Timu Pera, and Roy Ferdy Gunawan. 2018. "Social Well-Being Survey in Indonesia."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5:in press.
- Wun'gao, Surichai, Surangrut Jumnianpol, Nithi Nuangjamnong, Pinwadee Srisupan, and Montakarn Chimmameea. 2017. "Social Well-Being in Thailand 2016: Survey Report."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4:75-93.
- Yazaki, Keitaro. 2016.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of Japan social well-being survey."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2:99-109.
- Yee, Jae Yeol, Hyun Chin Lim, Eun Young Nam, Do Kyun Kim, and Ee Sun Kim. 2016. "Survey Design and Descriptive Outcomes of Korean Survey."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3:59-74.
- Zhao, Yizhang, Yaojun Li, Anthony Heath, and Nick Shryane. 2017. "Inter- and intra-generational social mobility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 Evidence from mainland Chin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8:54-66.

자카르타의 사회적 행복 탐색

Searching for Societal Well-being in Jakarta

파울라스 위루토모(인도네시아 대학교 교수)
Paulus Wirutomo(University of Indonesia)

Abstract

Social well-being is a good complementary measurement to the existing economically biased measurement of Development such as GNP and GDP. However, this “perception based” measurement could lead to a very subjective feeling which results in some false consciousness or even paradox. To achieve more objective picture, we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well-being at the societal level that cover the macro and systemic dimension of Society. In this study, the societal well-being is measured by three basic elements of Society namely the Structural aspect (the pattern of power relations), the Cultural aspect (the internalized values, norms, traditions) and the Processual aspect (the dynamics of everyday interactions among people, the quality of public sphere in which people could express their aspira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etal well-being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Social Well-being Studies. The data analysis shows that South Korea has more balanced mean scores of the three elements of Structure, Culture and Process compared to Indonesia. The conclusion is the societal well-being of South Korea is considered better than Indonesia, because the three basic elements are working in more balance despite of lower mean score than Indonesia. This article also describe the well-being condition in Indonesia with special focus to describe the societal well-being of Jakarta City using the framework of Structure, Culture. Process.

Introduction:

The existing “growth-oriented development” approach with its achievement indicators is too economically biased, this materialistic concept of development has failed to develop people’s essential well-being such as happiness, satisfaction,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to foster an ultimate Good Society. Meanwhile, the existing concepts of “social development” tends to refer development to specific field or sector, thus very partial and even residual such as: the provision of basic social services (Kamerman and Khan, 1979), social work for community development (Payne, 2005), individual improvement such as self-actualization, entrepreneurship, capacity building (Midgley, 2003) (Wirutomo, 2016, p 94).

Social sciences should be able to measure something beyond Gross Domestic Product, that is the real quality of social well-being which ideally balances the materialistic achievements of Development with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quality of well-being such as happiness. Thus, social well-being (SWB) is a good complementary measurement to the existing economically biased measurement of Development such as GNP and GDP. Researchers agree, that SWB should be considered as multidimensional concept encompassing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beyond material condition (welfare). However, this subjective well-being which is “perception based” could lead to a very subjective feeling which results in some false consciousness or even paradox.

Social Well-being, in fact, could be differentiated into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Well-being. To balance the personal and micro relational WB, and achieve more objective data,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ell-being at the societal level that cover the macro and systemic dimension of Society.

Wirutomo has argued that:

“...any developmental endeavor must be rooted in the same purpose that i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ocio-cultural life”. To achieve that, we definitely need a social development concept which simultaneously covers the improvement of all basic elements of socio-cultural life namely the structural aspect (the pattern of power relations), cultural aspect (the internalized values, norms, traditions) and processual aspect (the dynamics of everyday interactions among people, the quality of public sphere in which people could express their aspiration)(Wirutomo, 2011 p. 284).

OECD “Better Life Initiative” identifies 11 wellbeing dimension consisting 24 indicators (Kitayama and Markus (2000 p.115 in Koo et al. 2016 p. 38) *“well-being then is very much a collaborative project. One can’t experience well-being by one’s self; it requires engaging a system of consensual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and depends on the nature of one’s connections and relations to others”*. Thus we cannot focus solely on individual level components, we may ignore the fact that how good our lives are depends on the way we live 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ety we live in.

Thus social aspects of well-being require to reveal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and the quality of society. Quality of society also matter for the quality of individual life. Well-functioning society provides favorable environments for people’s quality of life and encourage individual actions and interactions with other persons. A large body of evidence has proven the individual well-being is significantly differs depending on the society ‘s institutional context, including government quality, size of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source distribution (Koo et al. 2016 p.39)

Social well-being measures, hence, require to combine the perception of individual on micro and macro levels as well as to integrate objective conditions with subjective perceptions. It must captures: how people feel about their own lives, people around them, society they live in (Koo et al. 2016 p. 40).

I argued that we need a more sociological certainty which guarantees that all development programs are producing a real impact on the basic elements of socio-cultural life, i.e., the structure-culture-social process holistically. Every human society is based on the system of interaction and interrelation which is the basis of “social life.” Thus, every development endeavor must be directed to those fundamental or basic elements of “social life”. In so doing, the concept of socio-cultural development has a more fundamental sociological meaning as societal development, not merely as “socio-cultural sectors” development. (Wirutomo, 2011 p.95)

Conceptual Framework: The Basic Element of Social Development.

This article will focus on Societal Well-being which includes macro, systemic and holistic dimension of society. Societal well-being, thus must be able to relate personal perception on the development gain to the sociological condition of the macro system of society. Hence, societal well-being of a society is reflecting the quality of sociological

condition. The Macro societal system however, is very complex. Sociological analysis has developed some theoretical perspectives to deal with its complexities. The major perspectives in Sociology are: The Structuralism which emphasizing the power of the structure toward human actions, the Culturalism believes on the power of values, tradition, belief system as the blueprint of human behavior, and the third one is called the Interactionism that believes on the actor's subjective interpretation on every social fact, thus emphasizing on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of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In macro level it is emphasizing on the dynamic process of a society (Constructivism). Following that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the sake of analysis, I have distinguished the basic elements of societal unit into the so called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dimensions. Therefore, to produce "a genuine societ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basic elements of social life, we must develop the society structurally, culturally, and *processually*.

- Structural Dimension of Societal WB

Social Structure is basically a pattern of relations - particularly power relations - among individuals or social groups that coercively and imperatively constrains and regulates the interactions and interrelations in society (Marx, 1967; Dahrendorf, 1959 in Wirutomo 2014).¹⁾

The structural form of a society is reflected in its Stratification system. The more equal and open the stratification the better the Structural condition is. Hence, development of a society in a real sociological sense needs a Structural change or development. The Social Structure is basically created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rough "structural instruments" such as legislations, policies, regulations. The power of business world could also impose some "extra-legal" Structural power to the life of the citizens. Thus, practically the control of structural power is always monopolized by the elites (e.g. the state in collaboration with big corporates) to maintain structural domination pattern that oppress the people well-being, exploit their economy and produce inequality. The "Structural Development" are needed to improve the balance of power 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mmon people or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rough the development policies, legislations, development budgets and other structural instruments that benefits the majority toward just, non-discriminative and inclusive society. The Study

1) Giddens has argued, however, that Structure is also facilitating and enabling agents to produce praxis which make changes possible within the Structure (structuration) (Giddens, 1984).

on Societal Well-being therefore must be able to monitor the Structural condition of the society through citizen's perception.

- Cultural Dimension of Societal WB

Following Harrison (2000), Culture here is defined specifically in its purely subjective terms as: value system, norms, beliefs, customs and traditions. All those traits are internalized deeply into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s, communities or all members of society, thereby it forms the pattern of behavior and attitudes from “within”. Social Structure, in fact could also be considered as cultural element, but Harrison in “*Culture Matters*” argued: “...if culture includes everything, it explains nothing” (Harrison, 2000 p xv). Thus, in this article - for the sake of analysis, those two concepts: Structure and Culture are distinguished. The most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Structural power and Cultural power is in its level of internalization. The structural power is based on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tions or norms, meanwhile the cultural power is based on internalization of values and norms in the system of personality of an individual or in the social system. It includes what Durkheim (1961) has categorized as “the sacred”, Bourdieu (1992) has named it “habitus” (Wirutomo 2011 p 285).

The existing culture however, is not always the best way of living that provide the well-being of all people. The powerful elite groups through “cultural hegemony” always try to conserve the existing culture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and oppress other groups. That is why we need cultural development programs to improve the people's well-being. This study will see cultur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ic elements of society, following the tradition of Durkheim (1938, 1961), Weber (1958, 1963), Parsons (1951) and some contemporary sociologists like Huntington, David Landes, Fukuyama, Pye and Harrison (2000) who questioned: “*To what extent do cultural factors shap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f they do, how can cultural obstacles to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be removed or changed so as to facilitate progress?*” (Harrison, 2000 in Wirutomo, 2014).

- Processual Dimension of Societal WB.

Social Process here is referred to the dynamics aspect of social life where the members of society (individuals or group) express, discuss, negotiate their aspirations dynamically and creatively through day to day informal interactions or through some formal

institutions. This “fluid” social processes must be considered as important source of changes of the well-established Structure and Culture. Thus, basically “social order is a negotiated order”. Social processes are practically ranging from daily and informal social interaction, people’s participation in social network, clubs, associations,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real and virtual), collaboration, disputes, conflicts, to the more formal (aspiring)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civic movements. In short, all activities of public sphere (public world of politics, see Habermas, 1984) and private sphere (private world of family and economic relations) are Processual. The quality of “social process” could be improved by giving a larger access and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to express their aspirations and opinion. It could be done through providing public space and developing public sphere (Habermas, 1984).

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the wide coverage of Social Process, this concept should be take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ic element of a societal building. In other word the Processual element is very important determinant of a societal well-being.

Thus, the basic question of this study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What are the best indicators for the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basic elements of Societal WB?”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is survey findings of “Comparative Study on Societal Well-Being Conditi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²⁾. The societal well-being is composed by three basic elements namely the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In this survey, Structural dimension is divided by three sub-dimensions: satisfaction, fairness, and trust. Each sub-dimension has its own indicators. All Structural indicators are related to the Government policies, regulations and its executions. Indicators for satisfaction are: employment and job stability, spare time, and income gap. Indicators for fairness relate to issues on occupation, education attainment, income, and asset. Indicators for trust relate to issues on Government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 public facilities, police, army, and fire fighter).

Cultural dimension of societal well-being is measured by looking at the degree people

2) This Survey was sponsored by the “Asian Consortium of Well-being Studies” conducted in several regions in Indonesia in 2017. This finding is now being published in the upcoming edition of Journal of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perceive fairness based on cultural traits such as gender, age, race, ethnic, nationality, and religion. The way people perceive fairness may differ according to their value system. For instance, age and gender may perceive differently across society or country. Meanwhile how people perceive fairness based on ethnicity, race, nationality and religion may represent toleration and intergroup relation. The Processual dimension of societal well-being is measured by people's perception on the ability of "aspiring"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party, local community and civil organization in solving daily problems faced by citizens. (see the table 1. below)

Table 1. Societal Well-Being Measurement³⁾

Dimensions	Sub- Dimension	Code	Indicators	Scale
STRUCTURAL	Satisfaction	W0203	How satisfied are you currently with the employment and job stability?	11 point Likert scale, very unsatisfied (0) to very satisfied (10)
		W0209	How satisfied are you currently with the amount of spare time?	
		W0504	How do you agree to the following statements on current Indonesian society? The income gap is currently too big Income Gap is not too Wide	11 point Likert scale, strongly agree (0) to strongly disagree (10)
		W0505	How do you agree to the following statements on current Indonesian society The Income Gap will likely be greter in 10 Years	
		Satisfaction - Structural		
	Fairness	W0303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educational background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11 point Likert scale, not at all unfair (0) to strongly unfair (10),
		W0304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occupation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W0305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income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invert to strongly unfair (0) to not at all unfair (10)
		W0306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assets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Fairness -Structural		
	Institutional Trust	C0107	To what degree do you feel you can trust or not trust local government office staff, police, and civil servants?	5 point Likert scale, cannot trust at all (1) to 5 can trust a lot, multiply the

3) "The Condition of Societal Well-Being: A Comparis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by. Paulus Wirutomo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Evelyn Suleema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Daisy Indira Yasmin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Riena J. Surayuda(LabSocio-LP2SP Center of Sociological Studies, University of Indonesia). This paper is now being published in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no. 7 (2018)"

Dimensions	Sub- Dimension	Code	Indicators	Scale
				scale into maximum scale 10
			Institutional Trust – Structural	
			STRUCTURAL	
CULTURAL	Fairness	W0301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Gender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11 point Likert scale, not at all unfair (0) to strongly unfair (10), invert to strongly unfair (0) to not at all unfair (10)
		W0302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Age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W0308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Race, Ethnicity, and Nationality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W0311	How do you think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ased on Religion in current society as a whole?	
			Fairness – Cultural	
			CULTURAL	
PROCESSUAL	Risk and Safety Network		What people or organisation do you rely upon to help you deal with your personal daily problems and concerns (unemployment, low income, sickness, old age, everyday surroundings, etc)?	5 point Likert scale, cannot trust at all (1) to 5 can trust a lot, multiply the scale into maximum scale 10
		R0207	Political Party	
		R0208	Local Community	
		R0209	Civil Organisation	
			Risk and Safety Network – Processual	
			PROCESSUAL	
			SOCIETAL WELL BEING	

Overall, the mean score of Societal Well-being of Indonesia (5.97) is higher than South Korea (3.65) in every dimension and indicators (see table 2 below).

Table 2. Societal Well-Being, Mean Score Analysis⁴⁾

Dimensions	Sub- Dimension	Code	Indicators	Min/Max	Scale	Indonesia	South Korea
STRUCTURAL	Satisfaction	W0203	Employment and Job Stability	0/10	Interval	6.57 (Std. 2.24)	5.28 (Std. 2.44)
		W0209	Amount of Spare Time	0/10	Interval	7.05 (Std. 1.90)	6.10 (Std. 2.29)
		W0504	Income Gap is not too Wide	0/10	Interval	3.16 (Std. 2.17)	1.94 (Std. 2.12)
		W0505	The Income Gap will not be Wider in 10 Years	0/10	Interval	3.21 (Std. 2.34)	1.80 (Std. 2.07)
		Satisfaction – Structural		0/10	Interval	4.86	3.79
	Fairness	W0303	Educational Background	0/10	Interval	6.24 (Std. 2.58)	3.01 (Std. 2.04)
		W0304	Occupation	0/10	Interval	5.93 (Std. 2.60)	2.93 (Std. 2.00)
		W0305	Income	0/10	Interval	5.77 (Std. 2.61)	2.57 (Std. 2.17)
		W0306	Assets	0/10	Interval	5.77 (Std. 2.56)	2.63 (Std. 2.17)
		Fairness –Structural				5.93	2.78
	Institutional Trust	C0107	Local Government Office Staff, Police, and Civil Servants	2/10	Interval	5.93	4.95 (Std. 1.63)
		C01071	Local Government and Office Staff	2/10	Interval	5.63 (Std. 2.01)	
		C01072	Police	2/10	Interval	5.95 (Std. 2.02)	
		C01074	Civil Servants	2/10	Interval	6.18 (Std. 1.73)	
		Institutional Trust – Structural				5.92	4.95
	STRUCTURAL						5.57
CULTURAL	Fairness	W0301	Gender	0/10	Interval	6.66 (Std. 2.47)	3.90 (Std.1.99)
		W0302	Age	0/10	Interval	6.70 (Std. 2.45)	3.51 (Std. 1.96)
		W0308	Race, Ethnicity, and Nationality	0/10	Interval	6.62	3.56 (Std. 2.06)
		W03081	Race	0/10	Interval	6.40 (Std. 2.68)	
		W03082	Ethnicity	0/10	Interval	6.65 (Std. 2.57)	
		W03082	Nationality	0/10	Interval	6.79 (Std. 2.56)	

4) “The Condition of Societal Well-Being: A Comparis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by. Paulus Wirutomo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Evelyn Sulema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Daisy Indira Yasmin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Riena J. Surayuda(LabSosio-LP2SP Center of Sociological Studies, University of Indonesia). This paper is now being published in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no. 7 (2018)”

Dimensions	Sub- Dimension	Code	Indicators	Min/Max	Scale	Indonesia	South Korea
PROCESSUAL	Risk and Safety Network	W0311	Religion	0/10	Interval	7.29 (Std. 2.53)	4.66 (Std. 2.12)
			Fairness - Cultural			6.76	3.90
			CULTURAL			6.76	3.90
		R0206	Political Party	2/10	Interval	4.03 (Std. 2.15)	3.20 (Std. 1.57)
		R0207	Local Community	2/10	Interval	7.48 (Std. 2.01)	3.96 (Std. 1.72)
		R0208	Civil Organization	2/10	Interval	5.17 (Std. 2.38)	4.38 (Std. 1.89)
			Risk and Safety Network - Processual			5.56	3.85
			PROCESSUAL			5.56	3.85
			SOCIETAL WELL BEING			5.97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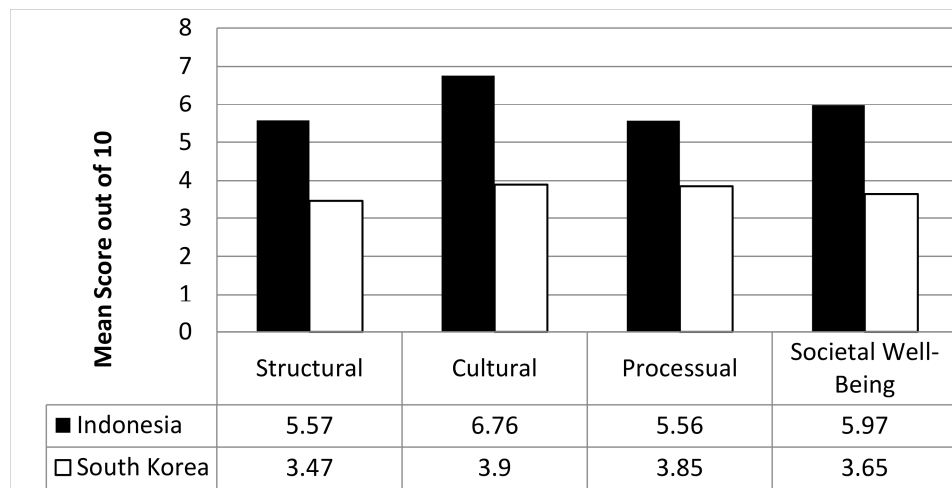
Both countries have the same strength in Cultural dimension of societal well-being since both have highest means score in cultural fairness 6.76 for Indonesia and 3.90 for Korea. Interestingly, in both countries, respondents perceived Structural dimension as problem in their life (5.57 and 3.47.). This Structural factors are strongly represented by income gap and fairness on income and asset ownership. Although South Korea is regarded as high-income countries, in real life, income gap still became structural problems they have to deal with. In South Korea, income disparity could even lead to suicide (Herh, 2018).

This study shows that South Korean has relatively lower score in each dimension of Societal Well-being compared to Indonesia, but a “good society” however, could not only be explained by the score of each dimension individually. Sociologically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ac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hree components of Societal Well-being. In other word, the Societal Well-being is determined by the balanced between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dimension. Korean society has a more balance societal life than Indonesia (see Figure 1). Thus, based on the theoretical thinking above, we have concluded that South Korean Society has better societal well-being compared to Indonesian.

This conclusion is somewhat preliminary, the combination between high score and the balanced score as standardized measurement of Societal well-being still need more considerations and scientific judgments to be determined. This study is not in a position to make that conclusion. Another study with more comprehensive indicators of the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elements is needed in the future. It could lead to the construction of an Index of Societal Well-being.

Figure 1. Societal Well-Being: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⁵⁾



The quality of Social Well-Being in Indonesia.

The following description is about SWB in Indonesia with special focus on the Societal Well-Being in Jakarta City. The framework of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component is being used to identify some valid indicators for construction of the Index of Societal Well-Being as an instrument to measure Urban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Asian Consortium of Well-being Studies” in seven countries, the level of happiness could be ranked as follows: Indonesia (7.68), Vietnam (7.63), Thailand (7.62), and the Philippines (7.00), Japan (6.25), Taiwan (6.14) and South Korea (5.93). In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are: Indonesia (7.91), Thailand (7.58), Vietnam (7.37), the Philippines (6.84), Taiwan (6.31), Japan (5.87), and South Korea (5.70). Interestingly, the highly scored societies tend to be the lower income countries, while the lower scored countries are the higher income ones (Esterline Paradox).

Although subjective well-being is important to balance the materialistic oriented measurement of economically biased Development, there is still problems with the

5) “The Condition of Societal Well-Being: A Comparis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by. Paulus Wirutomo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Evelyn Suleema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Daisy Indira Yasmin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ndonesia), Riena J. Surayuda(LabSocio-LP2SP Center of Sociological Studies, University of Indonesia). This paper is now being published in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no. 7 (2018)”

“slippery concept of social well-being, particularly happiness. There are various meaning of Happiness, it could be meant as the feeling of pleasure or noble satisfaction (Kahneman, Diener dan Schwarz, 1999 in Indonesian Bureau of Statistics 2017 p. 4). It could also meant as the pursuing or fulfilling of the potentials or the purpose of life (Franklin, 2010; Forgeard et al., 2011; Martin, 2012; Seligman, 2002, 2005, 2011 in Indonesian Bureau of Statistics 2017 p. 5). It could also a life evaluation toward specific or general life using Affection (OECD, 2013 in Indonesia Bureau of Statistics 2017 p. 5). Happiness also include the so called eudaimonia or the life meaning (Huppert et al, 2009; NEF, 2011; Clark and Senik, 2011; Deci and Ryan, 2006 in Indonesian Bureau of Statistics, 2017 p. 5). Based on this complexity, the Indonesian Bureau of Statistics using 19 indicators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life dimensions: Life satisfactions, Affection, Eudamonia. Life satisfaction is divided into Personal and Social Satisfaction.

The score for Indonesian happiness is: 69.51. It consists of:

1. Satisfaction:
 - a. Personal: Education: 59.9, Occupation: 67.15, Income: 62.99; Health: 71.12
 - b. Social: Family harmony: 80.05, Spare time: 72.08, Social Relations : 75.45; Security: 77.15
2. Affection: Glad: 75.06; non anxious: 64.33; non stressful: 68.31
3. Eudamonia: Self Independency: 71.21; Self Development: 65.15; Positive relation with others: 71.93; Life purpose: 75.83

According to Indonesia Bureau of Statistics, the National score of Happiness is 70.69. The score of Happiness in Jakarta: 70.32 (2017) from 69.2 (2014). Jakarta is in the middle range in the National Level. The highest scorer is Maluku: 75.38, the lowest is Papua (64.97).

In Indonesia the Urban areas has higher score of Happiness (68.16) compared to Rural areas (66.95). But in term of Social Relation, Rural area is higher 76.51 as compared to Urban 75.86.

In general, the quality of Social Well-being in Urban Areas in Indonesia including Jakarta is relatively good. In the following sub chapter is a qualitative description of Societal well-being of Jakarta City using the framework of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component.

Structural conditions of Jakarta City

The most important Structural condition of Jakarta City is indicated by its social inequality. The Ginie Ratio of Jakarta in March 2018 is 0,389 this is very slightly lower (0.004) compared to March 2017 (0,393). This decrease however, has an important meaning, since before 2015 the Ginie Ratio in National level was always increasing. Ginie Ratio in Jakarta is relatively lower than National means score of Urban area (0.401) in 2018. In general Ginie Ratio in Urban Area (2018) is higher (0.401) than Rural areas (0.324).

The total number of poor people in Indonesia in 2017 is 27.77 million (10.12%) This number is decreasing to 25.95 million in 2018 or 9.82%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overty rate in Indonesia is touching one digit the lowest rate since 1998. The rate in Rural Areas is almost double (13.20) compared to Urban Areas (7.02). The Poverty rate in Jakarta is the lowest since four years.

The worst Structural condition of Jakarta is its Transportation system. From the beginning of Independence era, Indonesia is being fully controlled by world producers of automotives, so imported private cars are overwhelming the traffic. The number of cars is growing 1600 unit per day. Motorcycles 4000 to 4500 per day. Meanwhile the increase of roads only 0.01 per year. Jakarta ranks 17th in terms of the worst traffic jams in the world.

The traffic situation in the City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social well-being in Jakarta in term of reducing income, working time, leisure time with family, health condition and the high rate of accidents. It also the causes a Cultural crisis in the City such as bad discipline, orderly manner, violence. A research of aggressive behavior (1999)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f stress and aggressive mentality of men and women in Jakarta.

Transportation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low Well-Being and the civilization in general in Jakarta

In 2010 Jokowi as Governor has made a revolutionary development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Jakarta (the building of Highway, toll roads, LRT and MRT).

Traffic jam in Jakarta



Newly built Highway



Underconstructed toll roads



Underconstructed M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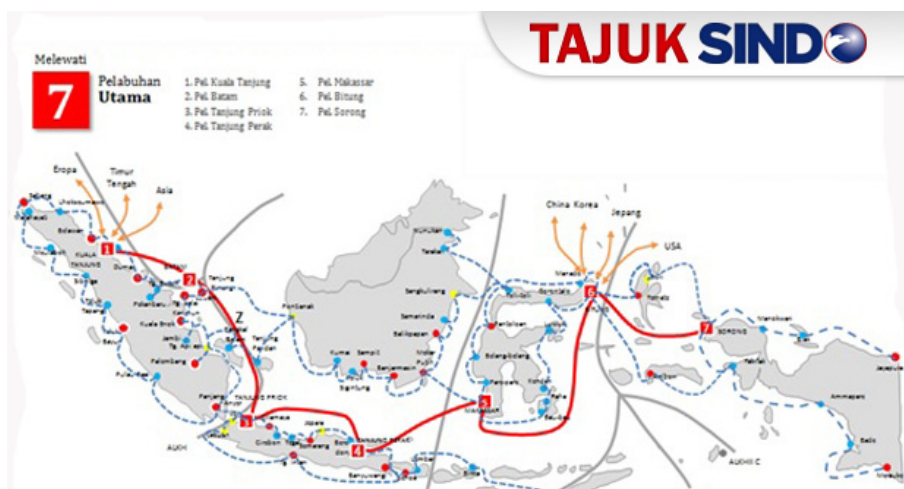


This massive development of new roads is mostly oriented to the utiliz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This new orientation will significantly change the transportation system in Jakarta, it will bring a civilization change for Jakarta. To prepare that the City Government has also encouraging the program of pedestrian. They targeted 80 km start from 2017. But until recently the city is still facing the massive violation of pedestrians by the traders.

The other significant Structural problem which negatively affect well-being in Jakarta is related to the over Urbanization. The Urban facilities always overwhelmed by the mostly poor and low educated in migrants from the surrounding cities or regions. It has created

slum areas which become the sources of social problems in the City. This migration problems cannot be solved from within the city, because the root of the problems is the unequal development of the regions in Indonesia. Thus President Jokowi with his policy: “Development from the periphery” is opening new hope of reducing the overurbanization to Jakarta. People from various regions and Town could improve their economic activities by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s such as highways, ports, Dams for irrig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villages through Village Funds programs.

Building National connectivity through new network of Ports



Newly built Highway in Jawa



Dam for irrigation:



Thus, practically the Development of Jakarta as the Capital and Primate City very much depends on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oriented to the strategy of: Development from the periphery. This is a revolutionary Structural Development for Indonesia in which Societal Well-being of Jakarta depends.

Jakarta City also needs another basic Structural Development namely the Smart City which rely very much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to help control almost all City problems such as traffic, flood, public service faster, real time, transparent and impersonal. Jakarta has made its preliminary start in this respect. This program will make Jakarta an Educating City, the city which make its citizens become better and better.

This is all Structur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gulations to change the exclusive structure of City life into the inclusive one.

The Cultural conditions: Jakarta is one of World biggest city, inhabited by 12 million population. But in terms of modernity and Urbanism, a prominent Cultural Observer named it as “the Big Village” and it makes some sense. The modern cultures has obviously exposed to Jakarta people through education, industrial occupations, and other modern institutions and professions. So, most of the urban citizens are ready to change toward modernity if the structural conditions is ready (the regulations, policy,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o on).

On the other side, the people of Jakarta, however, still very strongly influenced by various traditions by origin, especially religion and ethnicity. People’s religiousity is very strong (in terms of mosque, church going), but it does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civic

morality like discipline, public manner, even trustworthiness.

The strong bound of religion and ethnicity has created a strong and very often fanatic primordial communities. These organizations could very easily be mobilized not only for good purpose of solidarity, but also offensive attacks to other communities (especially the minority). Thus, the cultural factors in Jakarta (especially related to religion and ethnicity) is still considered as sociologically fragile and sensitive. The interreligious tolerant attitudes of Jakarta citizens is not always a good guaranty of no discrimination, segregation, violent attacks (such as the destructions of the house of worships) or even terrorism to other religious groups. During Jakarta governor election in 2017, some political parties has utilized religion (Islam) for political purposes such as forbidding their followers – using the verses of the Koran – to vote non Moslem leaders. Ahok, the former Jakarta's governor (a successful incumbent) was not only defeated in that election, but he was also being accused of blasphemy with a lot of controversy and sentenced two years in jail.

The city of Jakarta is not very well reflecting the traditional arts of Indonesia. Local people and tourists cannot easily find traditional art performances in the city. The City cultural arts is very much dominated by Global culture especially Western and also the Arabic which entering the influences very aggressively through religious rituals. The weakening of traditional arts in Jakarta as Capital city is caused by the overall trend of National neglect (especially by the Government) on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for so long. Indonesian Government now under president Jokowi is trying to develop Tourism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Indonesian cultural pluralism and creative economic products. This National trend will have good impact on the Jakarta city life in terms of arts activities. To do this Jakarta needs to build arts infrastructure for the young people, such as Community Center and Art Center.

Processual aspect of Jakarta City:

The social dynamics and civic activism of urban citizens is very often underestimated as important factor of socio-cultural change and development of an Urban life, whereas actually in this digital era, this Processual element will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the fast development of citizens' awareness and potentials.

Nowadays, the style of City governance is still very much oriented to formal authority.

Almost every problems are defined and solved one-sidedly and very often create false definition of the situation. The solutions of every problems are often dominated by technocratic and bureaucratic authority. So, tend to be artificial and superficial, rootless, miss-targetted and unsustainable. Even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taking part) is very often conformistic, lack of genuine and creative initiatives of the people. In fact every social problems need agreement on the problem solution and full commitment to involve in the actions. That is social **engagement**! It is more than just intensive interactions but as equal partnership (honest, synergic and committed relationship building for the sake of community), to find shared problem definition toward a genuine solution. Civic Engagement recommends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which community members are active participants at every stages of the research process. Thus research is included in the process of healing rather than just an instrumental element.

Our basic problem in developing City life is the crisis in pattern of social interactions and interrelations, communications between the stake holders in the City. People don't need economic development alone, but more than that a better "socio-cultural life."

To foster the Civic Engagement Jakarta needs "Community based Development". There are some types of Community in Jakarta. We have mentioned the Primordial Community the community of people who have the same primordial identity such as religion and ethnicity. This community has the strongest bound of solidarity, but they are exclusive by nature. The second is Spatial Community, the members are bound by the same neighborhood. In Jakarta the Spatial community has been organized formally into RT or small neighborhood (with the size of 10 households) and RW or the Community (consists of 100-150 households), but this Government induced organizations are too much dominated by the government, so they lost their independence and initiatives or activism. The next is interest community which organized and united by the special interest or hobby. The last one is the Occupational Community: the organization of people from the same occupation or profession. Except the Spatial Community, all types of Communities are very independent, very active for their own interests but their contribution to the city life in general is minimalist. The Spatial Community is in fact the most important in the organizing of city life, because it is spread all over the city and involved every urban citizens. To create more Civic engagement to develop the City, Jakarta Government must be more engaged socially with the local communities and give more access and public sphere for the existing communities particularly Spatial Communities to be more

participatory and more independent and creative to build their community Center with more open access to source of funds.

Conclusion

Social sciences should be able to measure something beyond Gross Domestic Product, that is the real quality of social well-being which ideally balances the materialistic achievements of Development with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quality of well-being such as happiness. Thus, social well-being (SWB) is a good complementary measurement to the existing economically biased measurement of Development such as GNP and GDP. However, this subjective well-being which is "perception based" could lead to a very subjective feeling which results in some false consciousness or even paradox.

To balance the personal and micro relational WB, and achieve more objective data,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ell-being at the societal level that cover the macro and systemic dimension of Society.

The discussion on the various factors in each Structural, Cultural and Processual aspects in Jakarta City will bring us into a 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Societal well-being which is connecting the objective macro elements of society with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well-being of the individuals.

References

- Bourdieu, P. 1992. *An invitation to Reflective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London: Routledge.
- Durkheim, E. 1938.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61.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Collier Book.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ction (Vol. 1)*. London: Heinemann.
- Harrison, L., & Huntington. 2000.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
- Herh, Michael. 2018. *AI Preventing Suicides by Monitoring SNS activities*.
(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2)
- Koo, Hwaran, et. al. 2016. "Dimensions of Social Well-Being and Determinants in Korea: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Aspects"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3: 37-58
- Wirutomo, Paulus. 2014. "Sociological Reconceptualization of Social Development: With Empirical Evidence from Surakarta City, Indonesia" *Asian Social Science* 10(11): 283-293
-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no 3 September 2016. Centre for Social Well-being Studies,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lligence, Senshu University Tokyo.

관계적, 감정적 경험들이 사회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Relational-Emotional Experiences and Social Psychological Consequences

임동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Dong-kyun Im(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and pro-social behaviors. Past sociological studies that examined such issu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and 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however, emphasizes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people's daily life experiences such emotional and relational experiences and their social psychological impact.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a novel social survey conducted in Korea that employed survey experiment questions. It found that individuals' emotional experiences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pro-social attitudes and behaviors. For example, we found that people's experiences of positive feeling on the past day has a much larger influence on today's feelings of happiness than personality measures as well as socioeconomic variables do. It is also found that people who frequently experiences uncomfortable feelings or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by other people tend to show weaker prosocial attitudes and weaker propensity to engage in charitable don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found that people's experiences of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in public spac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ir attitudes towards social welfare policy and willingness to pay taxes for other people. Overall, this study shows that individuals' daily interactions with strangers in public space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ir trust towards other members of society, which consequently shape people's general levels of prosocial attitudes and behaviors.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The Happiness of Seoul Citizens

신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Inchol Shin(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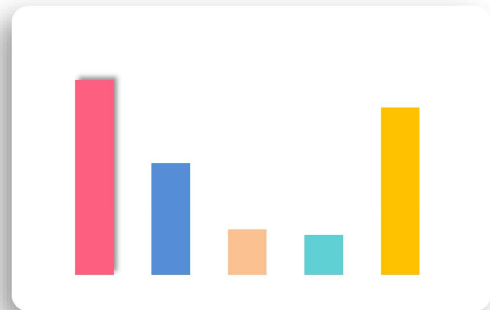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vel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Seoul citizens using data from Seoul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very year since 2005. Seoul Survey is a representative survey at the metropolitan level, which uses a sample of 20,000 householders and household members, age 15 and over, residing in Seoul.

Fir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levels as reflected in the happiness index and the differences that exis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urthermore, as the issue of social isolation has recently emerged in Korean society, the Japanese conception of the unemployed and socially isolated is applied to estimate the size of this population in Korea and their level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s analyzed as well. Finally, the research concludes by inspect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the well-being of Seoul citizens and suggests policy tasks for disadvantaged groups with low level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socially isolated, for future research.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The Happiness of Seoul Citizens

신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Survey
2018
U L

- 01 서울서베이 소개
- 02 서울시민의 행복 상태
- 03 사회적 고립과 행복
- 04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제언

The Happiness of Seoul Citizens

Inchol Shin(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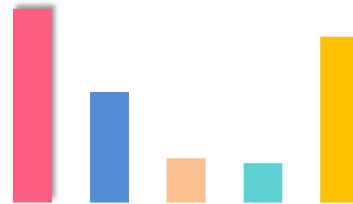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S
Survey
2018
U
L

- 01 Introduction of Seoul Survey
- 02 State of Happiness of Seoul Citizens
- 03 Social Isolation and Happiness
- 04 Policy Recommendations

01

서울서베이 소개

서울서베이의 조사 개요

Survey
2018
S U L

“ 인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참여,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 분야 33개영역 213개 지표 구축

가구 조사

서울 도시정책 지표

외국인 조사

• 서울시 거주 가구의 가구주 및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 대상

• 매년 10월 기준 국내 91일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

• 20,000가구(2017년 가구원수 : 42,687명)
• 조사완료 후 주요변수 기준 오차 재계산(20,000가구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pm 0.69\%$)

유효 표본

• 2,5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pm 1.96\%$)

• 층화군집추출
(Stratified cluster sampling)

표본추출 방법

• 1단계 : 출신국가별 제곱근비례배분
• 2단계 : 성-체류기간-체류형태별 비례배분

•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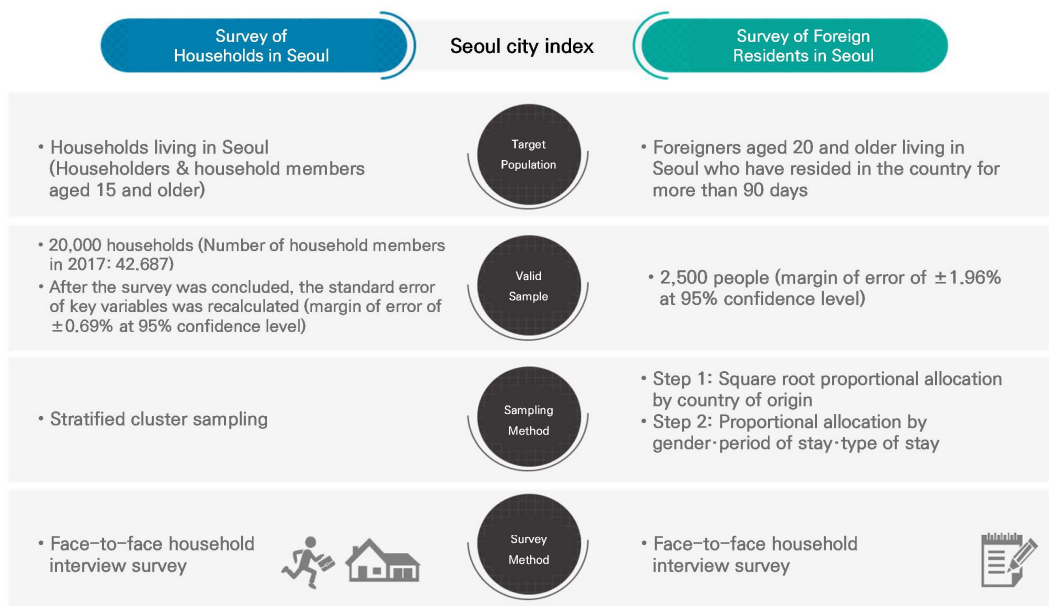
01

Introduction of Seoul Survey

Outline of Seoul Survey Methodology

Survey
2018
S U L

“ 12 dimensions, 33 categories, 213 indicators relating to population, economy, housing & city development, culture, vacation & leisure, welfare, women & family,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 participation, safety & disaster management, social value & citizenship



대표성 높으나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표본설계

Survey
2018
U L

주인등록 DB와 과세대장 DB 연계 ⇒ 모집단 대표성 및 시의성 탁월

가구조사 표본설계 : 사회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표집을 적용

구조가 서로 다른 대용량 파일 매칭 작업 노하우 보유



- 주민등록 DB와 과세대장 DB를 연계하여 구/동별, 주택유형별 세대수를 파악
-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기타/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자료조사 실시로 누락세대수 최소화
⇒ 기타/비거주용 건물 2012, 2013년 169,933건(4.3%), 2014년 152,009건(3.8%)

※ '기타/비거주용 건물'은 주택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모집단에서 제외



5

안정적이고 시의성 높은 문항의 구성

Survey
2018
U L

- 반복횡단조사의 특성에 맞게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보 파악을 위한 기본모듈은 매년조사
- 응답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두 개의 주제 모듈로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되, 매년 서울시의 특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특별 모듈을 포함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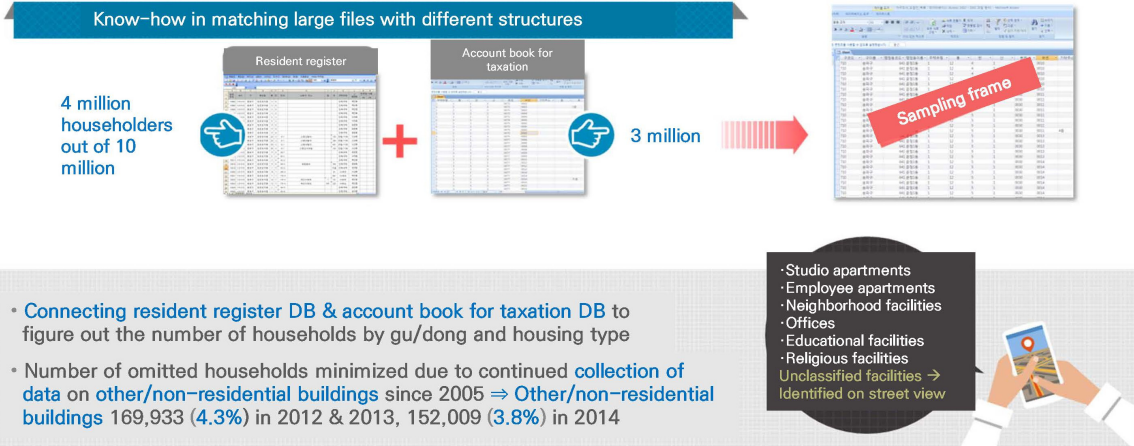
6

Representative sample that also incorporates local characteristics

Survey
2018
S
U
L

Connecting the resident register DB & account book for taxation DB ⇒ Representation of population

Sample design of household survey: Application of sampling frame that promptly reflects changes in society



※ 'Other/non-residential buildings' excluded from population since it is not categorized as a housing type

5

Composed of stable and highly-relevant questions

Survey
2018
S
U
L

Yearly survey of the basic module to keep track of key information (as is the case for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s)

Divided into two modules so that each module is surveyed every two years to reduce the burden on respondents; every year a special module is also included if there are special issues to cover



6

02

서울시민의 행복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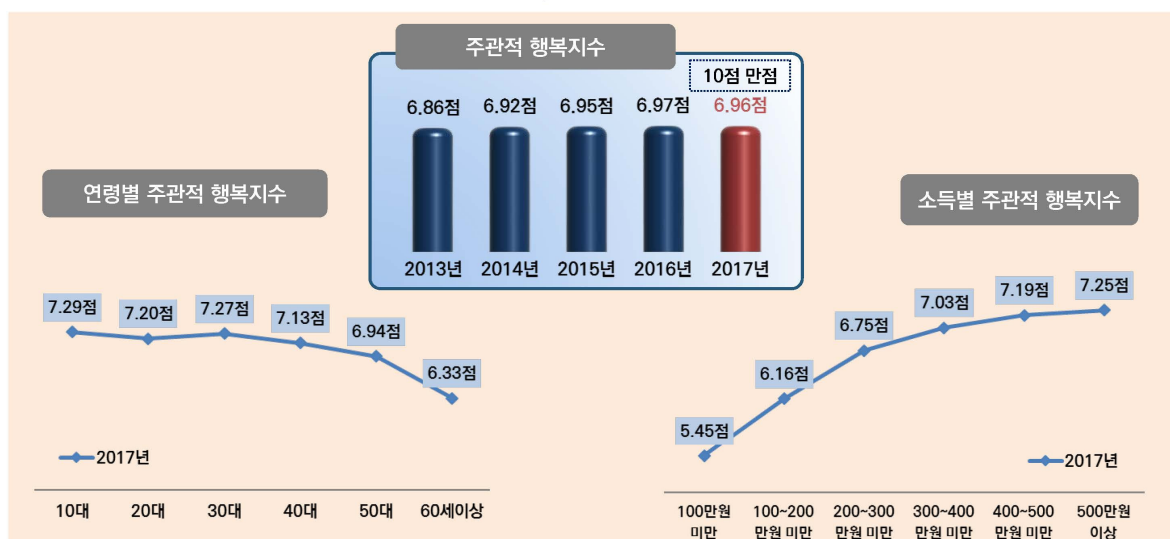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96점

Survey
2018
U L

‘당신은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나타나

* '13년 6.86점 → '14년 6.92점 → '15년 6.95점 → '16년 6.97점 → '17년 6.96점

-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아지며, 50대 이상부터 감소폭이 큰
- 소득과 주관적 행복지수와의 정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



자료: 서울시, '2017 서울서베이', 2018

8

02

State of Happiness of Seoul Citiz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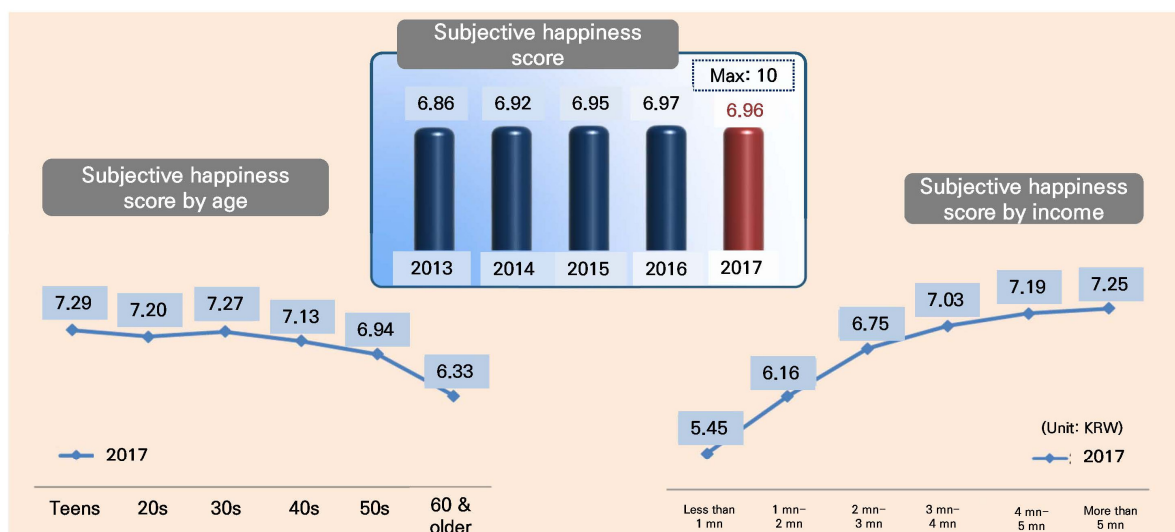
Subjective happiness score of Seoul citizens: 6.96

Survey
2018
S U L

When asked, 'Do you think you are happy these days?' Seoul citizens responded on average 6.96 points out of 10

* '13, 6.86 → '14, 6.92 → '15, 6.95 → '16, 6.97 → '17, 6.96

- Older people had a lower subjective happiness score, and the gap between generations became larger starting from people in their 50s
- Positive correlation exists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happiness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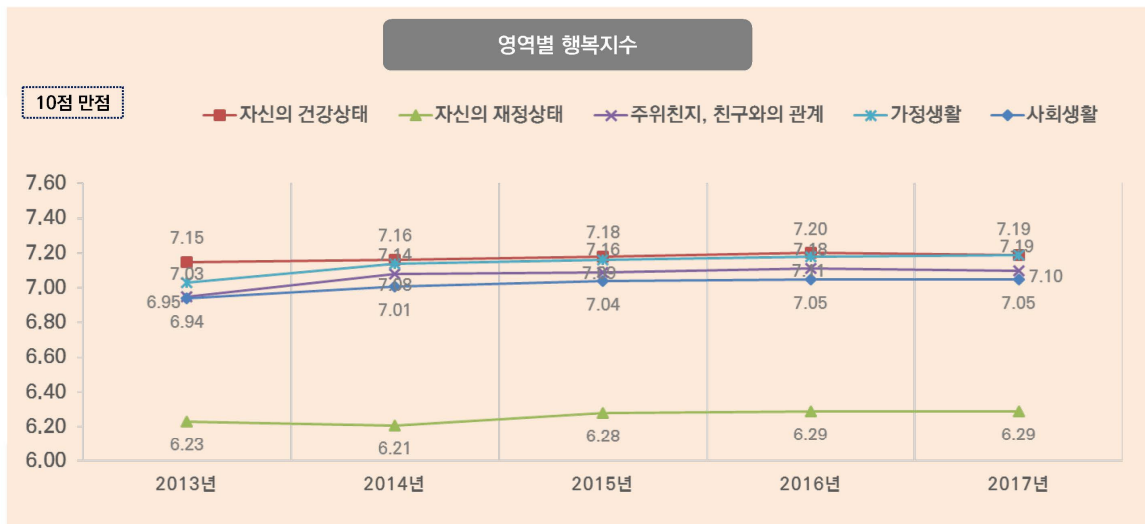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 Seoul Survey', 2018

8

서울시민들은 건강과 가정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행복해하고 있어

Survey
2018
U.L

건강과 가정생활이 7.19점으로 가장 높고, 친구관계 7.10점, 사회생활 7.05점 순
재정상태 만족도는 6.29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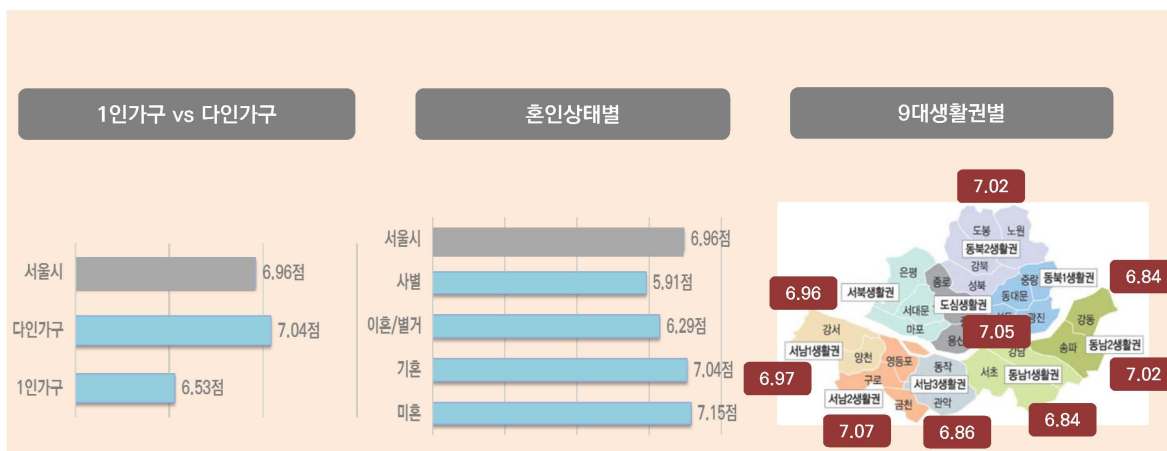


9

누가 덜 행복한가?

Survey
2018
U.L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사별, 이혼/별거자들이 미혼·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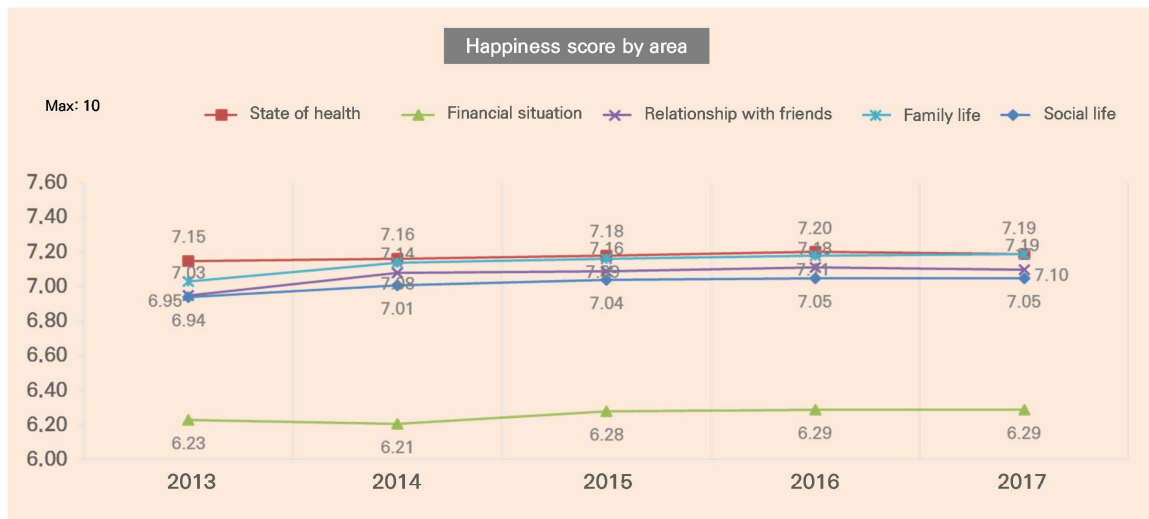
10

Seoul citizens are happy about their health, family life and relationships with friends

Survey
2018
S U L

The happiness scores in state of health and family life are the highest at 7.19, followed by relationships with friends at 7.10 and social life at 7.05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is lower compared to other areas at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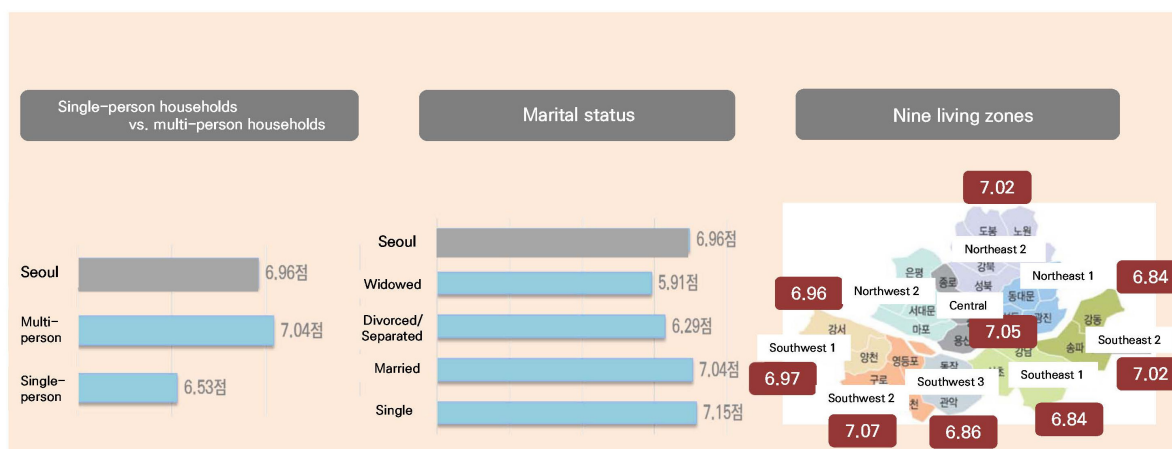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 Seoul Survey'

9

People with low happiness scores

Survey
2018
S U L

Happiness scores were lower for single-person household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and people who were widowed and divorced/separated compared to those who were single or married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 Seoul Survey,' 2018

10

03

사회적 고립과 행복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의 증가

Survey
2018
U L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약화와 함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증가로 인한 '외로운 죽음'이 증가하는 경향
- 그러나 사회적 고립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40대 미혼 장애인 고독사 사건



출처: TV조선(2018.8.8 보도자료)

5년간 무연고 사망자수 및 고령자 비중

출처: 국민일보(2018.2.19 보도자료)
자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

03

Social Isolation and Happiness

Increase in solitary deaths due to social isolation

Survey
2018
U L

- Solitary deaths due to social isolation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issue lately
- Weakening of the family unit and declining emphasis on community, along with the economic slowdown have caused people of lower-income and the elderly to become socially isolated, leading to an increase in lonely deaths
-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exact number of people who are social isolated

Solitary death of a single man with disabilities in his 40s



Source: TV Chosun(Aug. 8. 2018)

Number of solitary deaths



Source: Kookmin Ilbo News (Feb. 19, 2018)
Data: Office of Doja Choi, Righteous Future Party

연령별 사회적 지지망의 격차

Survey
2018
U L

- 개인이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임
- 사회적 지지망을 경제적 · 사회적 · 돌봄 지지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지망이 결여된 비율이 증가하며,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사회적 지지망 측정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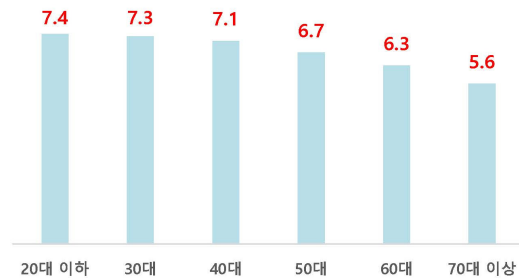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고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

연령별 사회적 지지망이 모두 없는 사람들의 비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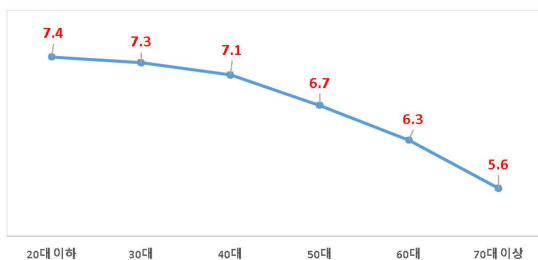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망과 행복과 삶의 질

Survey
2018
U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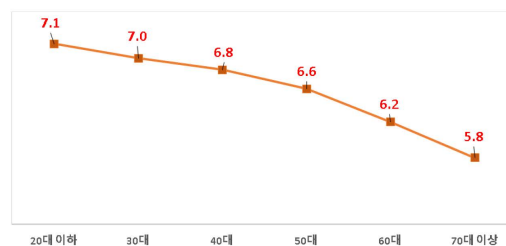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망이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

연령별 사회적 지지망이 모두 없는 사람들의 행복지수(10점 만점)



연령별 사회적 지지망이 모두 없는 자의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14

Gap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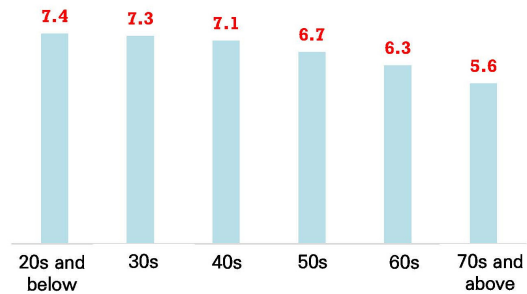
Survey
2018
U L

- Having a support network to rely on when you run into trouble or have an emergency is reassuring
- The older you are, the less you have access to social support networks; people in their 70s and above are most lacking in the social support networks they have access to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networks

-  Caregiving support network to rely on when you are sick
-  Financial support network to depend on when you need financial help
-  Emotional support network to turn to when you are depressed or discouraged

Percentage of people who have no social support networks by age group



13

Social support network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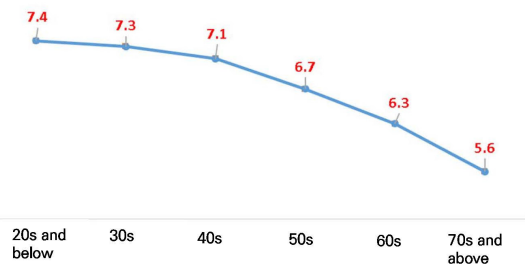
Survey
2018
U L

People without social support networks

- The older you are, the lower your happiness score and life satisfaction
- Social support networks are an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middle-a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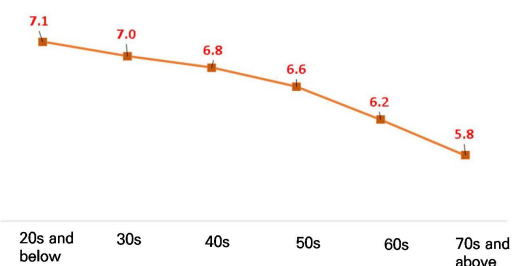
Happiness score of people without social support networks by age group

(Max: 10)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out social support networks by age group

(Max: 10)



14

Japan's response to social isolation

Survey
2018
U.L

Social isolation not only impedes personal happiness but increases social costs

- The issue of people who do not work nor go to school and do not spend time with anyone outside the family, known as hikikomori (secluded loner), as well as an aging population has emerged as social issues in Japan
- ※ Secluded loner: Someone who avoids social participation (attendance of school including mandatory education, employment, interactions outside the home, etc.) and theoretically remains confined to home for more than 6 months (even if they leave the house they do not interact with others).
- To provide a solution to children remaining dependent on their parents at a time their parents themselves start needing social support because of their older age,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s planning to expand support measures after conducting the first study on middle-aged hikikomoris

Article about the number of hikikomoris announced by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n 2013



Article about the first study on middle-aged hikikomoris by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n 2018 (Age 4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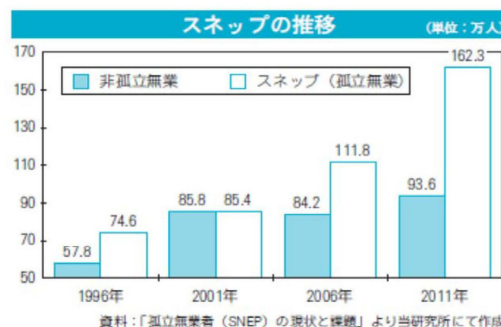
15

Issue of Solitary Non-Employed Persons

Survey
2018
U.L

Japan's issue with SNEP (Solitary Non-Employed Persons) who go beyond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 NEET was coined in 2012 by Genda Yuji,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okyo University.
- NEET is a term based on whether someone who is unemployed is seeking work, while SNEP is based on whether someone maintains ties with people other than their family; therefore, some NEETs are also included in SNEPs
- Refers to "anyone aged 20 ~ 59 years who is not enrolled in education, unmarried, unemployed, and has had no interactions with people other than their family for more than two consecutive days," and is classified as a typical category of social isolation
- According to 2011 estimations, there were 1.62 million SNEPs, whose numbers are rising each year
→ Projected to emerge as a serious social issue



16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일본의 대응

Survey
2018
U L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행복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최근 일본은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 이외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장기화, 고령화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사회적 참여(의무 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 임원을 포함한 취업, 가정 밖에서의 교제 등)를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대체로 가정에 체재하는 것을 계속하는 상태(타인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나들이를하고있다)를 가리키는 현상 개념

- 부모도 고령화되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자녀까지 부모에 의존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내각부는 중년의 히키코모리를 대상으로 최초의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책의 확충할 예정

일본내각부가 2013년 발표한 (준)히키코모리 규모 추정 기사



일본내각부의 2018년 중년(40~59세) 히키코모리 첫 조사발표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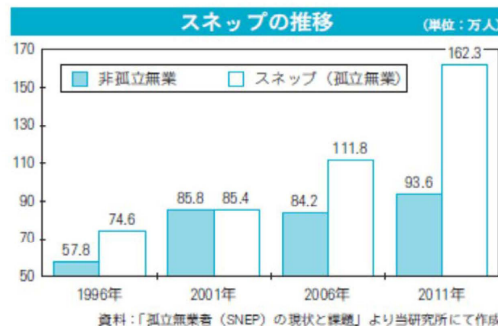
15

고립무직자(Solitary Non-Employed Persons)의 문제

Survey
2018
U L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를 넘어 고립무직자(SNEP, Solitary Non-Employed Persons)의 문제를 고민하는 일본

- 2012년 도쿄대 경제학과 겐다 유지(玄田有史)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니트가 실업자를 구직 활동 여부에 따라 구분 한 것이라면, SNEP는 친구·지인 등의 대인 관계의 유무에 따라 나눈 것으로 니트의 일부가 이것에 포함
- "20 ~ 59 세의 재학 중인 자를 제외한 미혼자에서 평소의 취업 상태가 무직이며 평소 가족 이외의 연속 2일 이상 타인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사회적 고립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분류
- 2011년 추정결과에 따르면, SNEP는 162 만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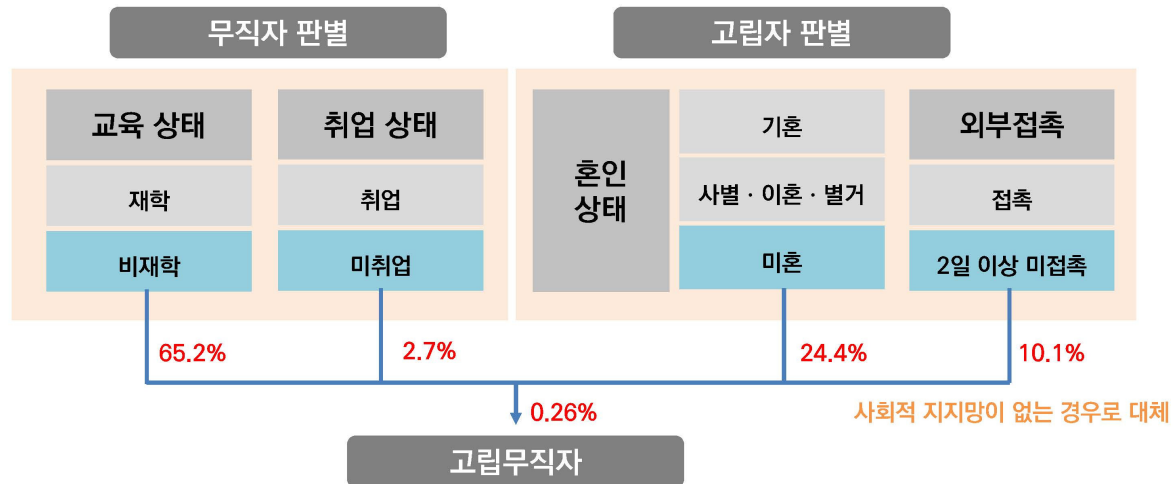
16

서울의 고립무직자: 판별 방법과 규모

Survey
2018
U L

서울의 고립무직자를 대리 변수를 활용하여 판별

- 20~59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립무직자 판별
- 서울서베이에는 교육상태, 취업상태를 통해 무직자 판별 기능이 가능하고, 혼인상태를 통해 미혼자를 구분할 수 있으나, 외부접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경우'로 대체하여 추정
- 미취업자 변수의 영향으로 고립무직자는 0.26%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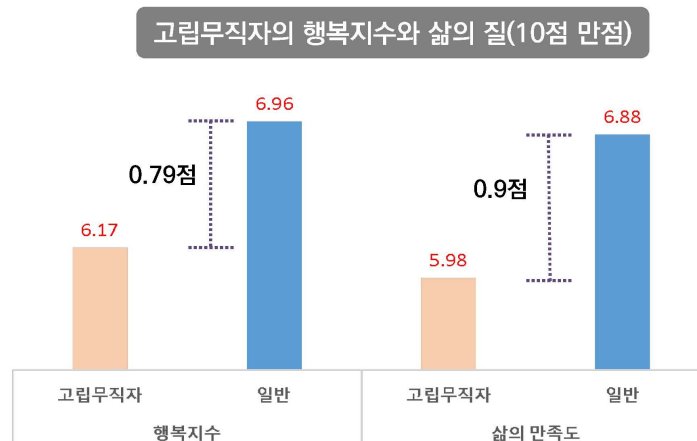
17

서울의 고립무직자의 행복과 삶의 질

Survey
2018
U L

고립무직자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

- 고립무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지수가 0.79점 낮고, 삶의 만족도 역시 0.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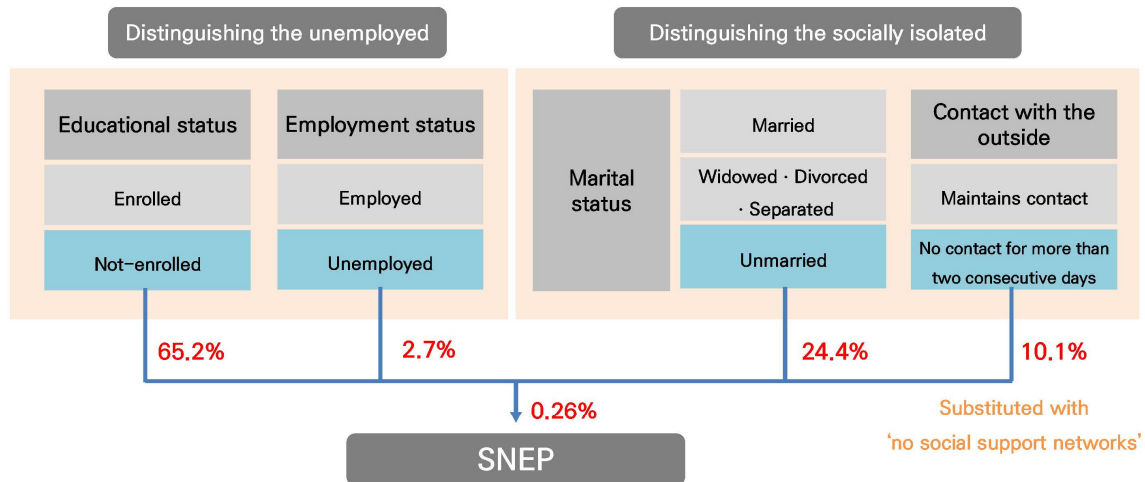
18

SNEPs: Method of distinction and scale

Survey
2018
S U L

Distinguishing SNEPs in Seoul using a proxy variable

- Distinguish SNEPs among Seoul citizens aged 20~59
- Using the Seoul Survey,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unemployed based on questions relating to education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and distinguish unmarried people based on questions about marital status. However, as there are no questions about contact with the outside, it is substituted with 'does not have any social support networks.'
- An estimated 0.26% of Seoul citizens are SN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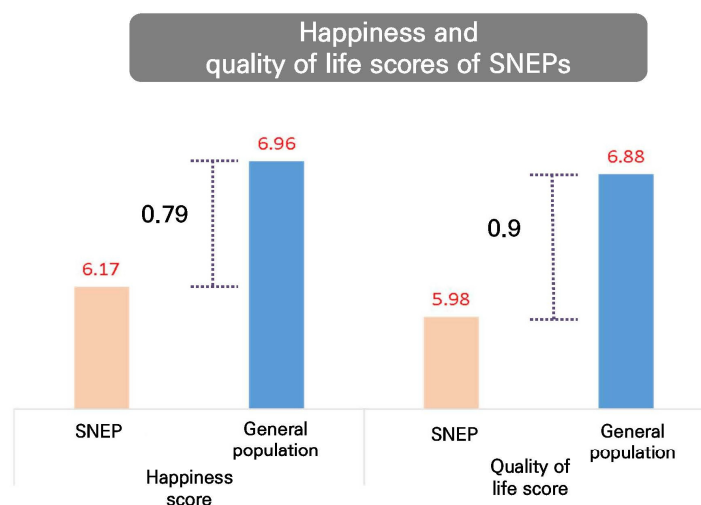
17

Happiness level and quality of life of SNEPs in Seoul

Survey
2018
S U L

Substantially low happiness level and quality of life of SNEPs

- SNEPs have a happiness score that is 0.79 points lower than that of non-SNEPs and a quality of life score that is 0.9 points lower → Shows the necessity of providing public support to SNEPs



18

04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제언: 사회적 고립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Survey
2018
U L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우정' 역설

- 박원순 시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닌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음
- 사회적 우정이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인정하고 서로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존중”
- 지나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지닌 한계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최근 주목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 2018년 4월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형성, 복지·보건서비스 연계 등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대 분야 8개 중점과제를 제시
-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를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이웃살피미(주민모임)」사업을 2018년 26개동에서 2022년 200개동 확대할 예정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대 분야 8개 과제〉

①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추진

- ①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 ②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 ③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 ④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② 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 ⑤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 ⑥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 ⑦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③ 공영장려 서비스 제공

- ⑧ 공영장려 도입·지원

20

04

Polic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the issue of social isol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fforts to prevent social isolation

Survey
2018
U L

Seoul Mayor Wonsoo Park's emphasis on 'Social Friendship'

- In his 2018 New Year's address, discussed opening an era of social friendship through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 Social friendship refers to "the acknowledgement of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nd values and solidarity among people"
-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value beyond liberalism or communitarianism that can provide a solution to social inequality or conflicts

1. A submunicipal level administrative unit of a cit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solitary deaths

- In Apri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Solitary Deaths」, which presents 8 policy tasks in 3 areas including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providing welfare and health services, etc.
- In particular, the 「Resident Group」 project, which targets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have severed social ties will be expanded from 26 dongs¹ to 200 by 2022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Solitary Deaths: 8 tasks in 3 areas〉

① Build social relationships: Neighbors looking out for lonely neighbors

- ① Select areas where the project will be implemented first and conduct a survey of single-person households
- ② 'Resident Groups' conduct regular visits to isolated households
- ③ Check on isolated households and provide daily necessities
- ④ Launch a pilot project to help single-person households form social networks

② Provide customized public services based on specific needs

- ⑤ Strengthen welfare services such as emergency welfare
- ⑥ Establish local health management systems
- ⑦ Provide customized services such as jobs for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 households

③ Provide public funeral services

- ⑧ Implement public funeral services

엄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책대상의 확대와 맞춤형 지원 필요



-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다만, 고립무직자의 경우 ‘1인형 고립무직자’도 있으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나 가족 외 외부인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가족형 고립무직자’도 적지 않기에 이들을 규모와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필요함
- 또한 그 동안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개념들은 서구와 일본의 사례들을 차용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한국사회에 독특한 고립의 유형을 발굴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필요

21



Thank You!

Expansion of policy target groups and provision of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precise surveys is necessary

S
urvey
2018
U
L

-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ingle-households in danger of becoming socially isolated as policy target groups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 However, in the case of solitary non-employed persons (SNEPs), since there are not only 'SNEPs living alone,' but also 'SNEPs living with family' who do not have contact with people outside their family, it is essential to conduct surveys to investigate how many SNEPs there are and the conditions they live in to provide customized policies
-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uncover types of social isolation unique to Korea and conduct future studies conceptualizing these types of social isolation instead of borrowing from Japan and western countries

21



Thank You!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토론문

도시사회정책조사(서울서베이)를 통해 본 사회의 질

이 재 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삶의 질 ◀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7개국이 참여하여 국가간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이번 사회의 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주관적인 웰빙 조사결과에서 동아시아(한국, 일본, 대만)의 패턴이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패턴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지역별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동아시아의 주관적 웰빙수준이 낮은 것은 겸손이 미덕인 문화와 지나침을 경계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번 연구에서 개인의 종방향 비교(longitudinal comparison)가 소득이나 횡적인 남과의 비교보다 주관적인 웰빙에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 이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적 접근방법에 의한 웰빙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임. 또한, 유복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계층상승 이동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들의 주관적인 웰빙이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어 정책적 대안 발굴도 필요해 보임

▶ 서울 시민의 삶과 행복 ◀

-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삶의 질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 개인의 삶의 질은 자신의 속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 수준의 삶의 질 측정과 대응이 중요함.
- 또한, 국가수준의 조사는 각 지역별 지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 지표 선정시 지역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조사방법 관련해서는, 삶의 질 관련 조사가 조사원 대면조사보다 온라인 조사에서 좀 더 솔직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 ☞ 현재 가구방문 조사가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주간에 응답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불응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온라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망이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고, 일본의 경우 고립무직자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 시군구 단위별 사회적 관계망, 지지망에 대한 측정을 확대하고 중요성을 홍보하는 노력과, 사회적 관계망·지지망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함

▶ 관계적, 감정적 경험들이 사회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 사람들의 긍정적 감정(웃음, 즐거움, 행복감) 경험과 부정적(무시, 차별) 경험들이 사회의 복지, 분배, 기부, 자선행위, 규칙위반 제재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었음
- ☞ 분석자료인 “21세기 한국인의 사회의식과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제시하여 분석결과가 신뢰성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 있음
조사대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현장조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음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Does
city living
make us
happy?

